군중과 개인: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

Mass and Individual:

The Archive of the Guyanese Mass Games

2016년 10월 21일 - 11월 27일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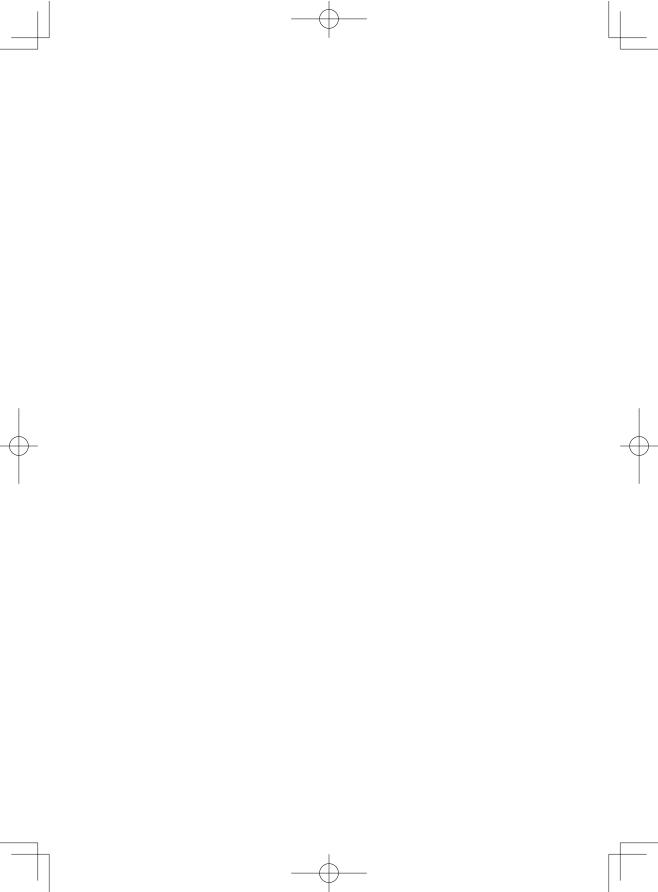
전시기획 : 고원석, 권성연

October 21-November 27, 2016

Arko A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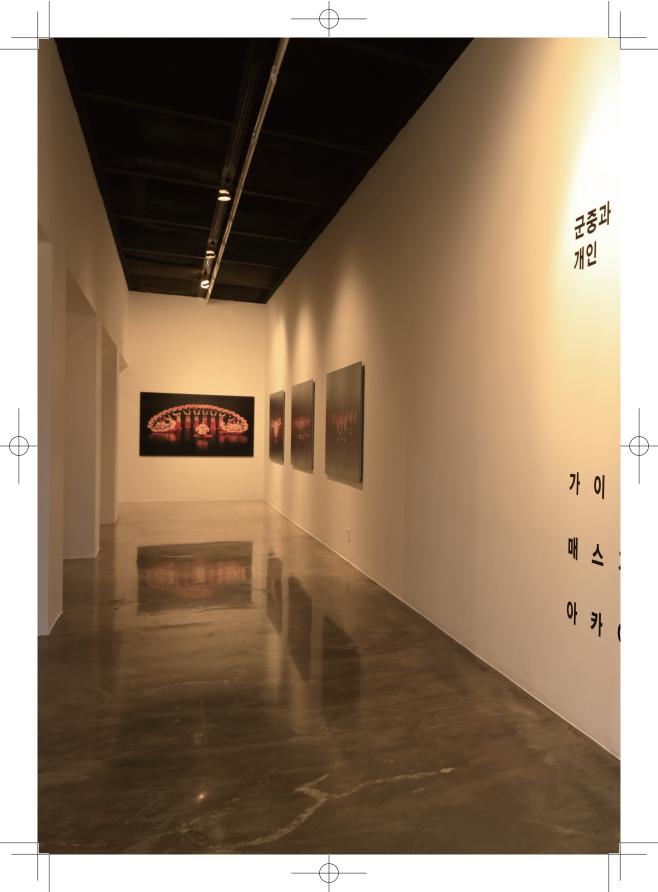
Seoul, Republic of Korea

Curated by Wonseok Koh, Vicki Sung-yeon Kwon



목차 Table of Contents

가이아나에서 한반도까지, 제국주의에서 동시대까지 고원석	6	From Guyana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imes of Imperialism to the Present Wonseok Koh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의미 권성연	22	The Guyanese Mass Games: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mporary Meaning Vicki Sung-yeon Kwon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 하이라이트 권성연	52	The Highlights of the Guyanese Mass Games Archive Vicki Sung-yeon Kwon
현대미술 작가와 작품	186	Contemporary Artists and Works
전시 연계 프로그램	248	Exhibition Related Programmes



AND INDIVIDUAL 과 E H E H C R A F H E 아 나 G 011 U A 게 N E S ≥ 11/G A E 01 S S M E

고원석 (독립큐레이터)

가 이 아 나 에 서 한 반 도 까 지 , 제 국 주 의 에 서 동 시 대 까 지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기반을 둔 전통이 급격하게 단절되고 제국주의의 식민침탈과 독립, 냉전과 분단, 독재 등으로 이어진 근현대사를 겪어왔다. 그리고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질곡이 가장 압축적으로 재현된 곳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지구 정반대편, 중남미에서도 유사한 역사와 맥락이 존재했다. 중남미에 위치한 가이아나는 오랜 식민지배와 독립, 그리고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혼란 등으로 얼룩진 캐리비안 인근 국가들의 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다.

한반도와 가이아나. 각각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 두 지역은 비슷한 역사가 없었다면 서로의 존재를 잘 모르며 살아왔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비슷한 역사와 이념은 교류의 수요를 창출했고, 한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수백년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배를 겪었던 가이아나는 1966년 친영, 친미 성향의 정권이 수립된 상태로 독립했다. 그러나 1968년 정권의 수장이 되었던 포브스 번함(Forbes Burnham)은 1970년경부터 급격히 사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며 쿠바, 소련 및 북한과의 교류를 강화했다. 그는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급속한 재건과 발전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던 북한을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했는데, 특히 북한에서 시행하던 매스게임의 집단주의적 성격과 광대한 스펙터클에 주목했다. 이들은 북한 정부에 요청하여 당시 북한 최고의 매스게임 전문가들을 초청, 방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자국의 풍토에 부합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혼합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매스게임 문화를 만들었다.

이 전시는 1980년대~90년대 가이아나에서 개최되었던 매스게임의 아카이브와, 6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여준다. 매스게임 아카이브는 안무도식 스케치북, 카드섹션 회화도안, 컬러·흑백 기록사진, 사진앨범, 신문기사, 뉴스 영상 등 500여점으로 실물, 디지털파일, 복제본 등으로 구성되었다. 거기에는 부채춤을 응용한 새로운 군무형태나 북한에서 온 전문가들이 가이아나측 지도부와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또는 가이아나인들이 만든 안무도식 스케치북 위에 한글로 적힌 메모 등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역사적 흔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그러한 시각적 흥미를 넘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유의 지점을 제공한다.

첫번째는 그 양식의 특유성이다. 물론 매스게임이 북한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며, 주로 전체주의적 정치체제하의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매스게임 하면 북한을 연상시킬만큼 북한의 매스게임 문화는 강력하다. 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북한은 교조적인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을 재해석하여 문화 저변에 적용시켰다. 다분히 정치적 수요에 의해 실행된 매스게임에도 전통문화의 어색한 각색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매스게임의 정치적 유용성을 적극 수용한 가이아나에 의해 다시 재해석되어 흥미로운 이종(異種)문화의 결과물로 탄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카이브에 포함된 북한의 부채춤을 응용한 군무 사진이나 북한식의 선전문구 중심의 이미지와 아마존 유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얻은 이미지들이 혼재하는 카드섹션 등은 이질적 문화의 혼합이 창출한 독특한 양식과 기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두번째는 집단주의의 이식과정이다. 가이아나의 매스게임 아카이브는 오랜 식민지배를 겪은 신생 독립국에 집단주의가 이식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이아나는 수백년간의 식민지배 기간을 거치면서 원주민 비율이 극히 낮아지고, 주로 타의로 이주한 다인종 사회로 재구성되었다. 식민지배의 기간이나 구성원들의 이질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독립 직후에 국민적 화합을 이룰 동기부여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가이아나 인구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가이아나인과 인도계 가이아나인 사이의 반감은 뿌리가 깊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단위의 총체적 국민 단합은 당시 정권이 간절히 원하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인종이나 배경을 초월한 다수의 개인들이 훈련된 군중으로서 집단예술을 구현하는 매스게임은 어쩌면 정권이 원하던 통치형태의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매스게임의 엄격한 동작이나 정밀하게 짜여진 순서 등은 당시 가이아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집단주의적 공연문화를 체험하게 했을 것이며, 동시에 그 동작의 체화는 근대국가적 훈육에 길들여지는 개인들의 신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개별적 특징들은 결국 체제가 작동하는 형태의 보편적 면모로 연결된다. 가이아나의 매스게임 아카이브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실행시켰던 전체주의 정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매스게임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던 당시의 신문 자료들은 매스게임의 국가주의적 성격과 선전의 요점 등을 잘 보여준다. 당시 학생들의 대대적인 동원에 대한 반대의견들은 매스게임의 스펙터클 위로 쏟아지는 조명 뒤에 묻혀있고 엇갈린 신념이나 괴리감 등 문화 저변에 공존하는 다양성은 매스게임의 당위성에 가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식민지배 직후 독립과 국가형성의 과정에서 전체주의를 겪어야 했던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가이아나의 역사 속에 인류의 현대사적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가이아나의 매스게임 아카이브가 갖는 보편적 사유의 지평은 6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재공유된다. 이번 전시가 아카이브와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 곳에 모은 이유는 바로 그러한 보편성와 동시대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곽윤주는 근대성의 트라우마를 조명하거나 생략된 역사들을 발굴해온 작가다. 그의 관심은 강력한 채색으로 은폐되어 있거나 예민한 사회적 입장들로 인해 그 본질이 탈각되어온 대상들을 향해왔다. 2006년에 발표한 사진작품 〈의지의 승리〉연작은 독무로 창안되었던 부채춤이 정치적 수요에 의해 본래의 미학과는 무관하게 군무로 변화하게 된 역사와, 그것이 전통 문화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역설적 현실을 포착한다. 일상적인 지식의 토대를 교란시킴으로써 새로운 비판의식으로 대상을 관조할 것을 제안하는 그의 작업에서 화려함과 스펙터클은 그러한 역설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노순택은 분단의 현실이 파생시킨 생경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표현해온 작가다. 그의 렌즈가 주로 포착해온 것들은 대규모 시위현장 등 거대한 집단행사의 스펙터클과, 슬프고도 우스운 디테일이 공존하는 역설적 풍경들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다양한 유형의 군중 속에서 어색하게 존재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모자이크 작업을 보여준다. 이 장면들은 체제가 존재를 드러내는 압도적 풍경들의 일부이면서도 결코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군중 속 개인들의 모호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안정주는 주로 강력한 위계질서하에 문제의식이 생략된 채 암묵적으로 동의되어버린 상황들을 영상작품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전시된 그의 작품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살아남아있는 제국주의의 한 자락을 드러낸다. 작품의 제목인 '내셔널 세레모니'는 영상이 잡아낸 행사의 제목이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와 집단주의가 함축된 단어로 느껴지기도 한다. 전준호는 조각과 디지털 영상,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보여준 작가다. 전시에 출품한 그의 작품은 서울의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모뉴먼트 조각인 '형제의 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와중에 아군과 적군의 입장에서 우연히 재회한 어떤 형제의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피아의 대립을 초월한 형제애가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상의 네 명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은 어쩌면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내밀한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작가인 다이아나 유와 중국 콜렉티브 폴릿쉬어폼의 작품은 그러한 공감대의 반향을 더 넓은 대역으로 확장시킨다. 한국계 이민 2세대 작가인 다이아나 유의 작품은 주로 분단과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적 경험들을 가진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 캐나다로 이주한 다수의 한국계 이주민들의 생활방편이었던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자신의 경험들을 표현한 그의 작품은 체제 작동의 경계면에서 발생한 수많은 이주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명의 작가 및 큐레이터로 구성된 중국의 콜렉티브 그룹, 폴릿쉬어폼은 문화혁명이나 천안문 사태 등 어쩌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집단주의를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세대다. 강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본에의 맹목적 추종으로 대체된 오늘날의 중국사회에서 폴릿쉬어폼은 개인이 체제의 부속품이 아니라 의지와 판단력을 가진 주체이자 활기를 가진 새로운 군중으로 기능하는 대안적 집단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전시는 각각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의 긴 거리와, 가장 첨예한 냉전시대로부터 신자유주의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이념을 대체한 동시대까지의 시간을 가로지르고 있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이는 그 가정이라는 것이 다분히 당시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시각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거를 상상하는 것은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의 시각을 제공해준다. 역사는 이렇게 동시대성의 맥락에서 지속적인 생명을 부여받는다. 가이아나의 역사는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전시는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형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 이 전시는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이 갖는 문화적 스펙트럼이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 시각예술계의 여전히 유효한 이슈이며 동시대 문화의 한 지평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이 가진 중요한 문화적 함의들과, 그것의 동시대적 활용을 보여줌으로써 동시대의 문화가 직면하고 있는 풍경들을 보여준다.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많은 국가들이 독립 직후 겪은 짧거나 긴 혼란기는 전지구적 냉전구도의 지평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 치열한 격전의 현장에서 개인이 집단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이 글을 쓰고 있는 2010년대 중반에 개인이 자본의 영향력을 거부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용의 과정에서 최소한 반성과 성찰의 태도는 견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대한 군중 속에서도 사유를 회복한 개인으로 존재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집단에 대한 일방적 저항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리고 개인간의 격리가 아니라 더 큰 연대와 더 의미있는 군중으로 진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Wonseok Koh (Independent Curator)

THE KOREAN PENINSULA AND TIMES OF IMPERIALISM TO THE PRESENT

FROM GUYANA TO

East Asian countries have gone through a severance of its long tradition and formed a modern history of colonization, imperialism, independence, Cold War, division of countries, and dictatorship. The Korean peninsula is where the ordeals of Imperialism and Cold War which swept across East Asia unfolded in the most compressed and intense manner. At the same time, a similar history was taking place in Latin America, half way across the worl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earth from Korea. Among the Caribbean an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Guyana symbolically stands as a country which epitomizes the modern history of nations neighboring the Caribbean, drenched in a long history of colonization, independence, and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struggles.

Located as far as two countries can be on earth, the Korean Peninsula and Guyana would probably not have many connections with each other if it were not for their unique histories. Their similar histories and ideologies made th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sible, and even sustained

a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for some time. Colonized under Spa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England for hundreds of years, Guyana gained independence in 1966 with a pro-British and pro-American government established. However, Linden Forbes Sampson Burnham who w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in 1968 started to enforce exchanges with Cuba,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from 1970s, and quickly started to demonstrate an extremely socialist political agenda. Praised in the socialist world for overcoming the ruins of colonization and the war and rapidly re-establishing and developing a nation, Burnham tried to benchmark North Korea at the time,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North Korean mass games for their magnificent spectacle or collectivist tendency. The Guyanese government invited the top mass game experts from North Korea, and received professional training on mass games from them. Integrating cultural elements of their own unique sentiment to the mass games, Guyana was able to create their own unique mass game culture.

This exhibition consists of an archive of mass games held in Guyana in 1980s, as well as works by 6 contemporary artists. The mass game archive is composed of over 500 original and digital files as well as reproductions of sketches of choreography instructions, schematic paintings for the mass game backdrop, color and black and white documentary photographs, photographic albums, newspaper clippings, and news

videos. The archive includes fascinating historical traces like records of new choreography based on North Korean fan dance (Buchaechum), documentary photographs of North Korean mass game professionals with Guyanese leaders, and memos written in Korean put on Guyanese sketches of choreography instructions. The archive resources are not only visually fascinating but also offer a few important elements to think about.

The first important element is the uniqueness of its style. Although North Korea was not the first nation to implement mass games as it was practiced in various totalitarian nations in the world, the mass game culture in North Korea is striking enough for most to conjure up North Korean mass games as the epitome of the performance of its kind.

North Korea, where the most powerful totalitarianism in the world is in effect, applied a re-interpretation of a doctrinaire Juche Idea (self-reliance ideology) to the very base of its culture. Awkward dramat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s evident in mass games that are practiced out of political demands. These elements were re-interpreted by Guyana, which enthusiastically applied the political usefulness of mass games, and gave birth to a fascinating heterogenous culture. For example, the unique style and technique created by such heterogenous culture can be seen in the archive, such as the photographs of choreography appropriating the North

Korean fan dance, or the card section which mixes North Korean propaganda images and slogans, and images inspired by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of the Amazon.

The second important element of the archive lies in the trace of collectivism. The mass game archive of Guyana symbolically demonstrates the process of transplanting collectivism on a newly independent nation which has gone through a long period of colonization. Through hundreds of years of colonization, the population ratio of native peopl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Guyana became a multi-racial society with forced emigration. There was no motivation for national harmony in Guyana right after the independence considering the period of the colonization or the disparate background of the population. Notably, there was a deep-rooted hostility between Indo-Guyanese and Afro-Guyanese, who made up the biggest ratio of population in Guyana. Under such circumstances, Guyana united on a state level was probably much desired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Mass game — in which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transcending race and background, articulate a collective performance as a trained mass – was perhaps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achieving the perfect image of the regime desired by the government. The regimented movements and precisely choreographed order in mass games were probably a very strange cultural experience of collective performance for Guyanese people at the time.

Such separate traits ultimately come

together to a universal form through which the system operates. The archive of Guyanese mass games captures a totalitarian government which powerfully implemented such performances, and the newspaper archives which extensively deal with news on mass games demonstrate their nationalistic and propaganda tendencies. The dazzling spectacle conceals the oppositions to extensive rallying up and disciplining of students at the time, and the diverse ideas, mixed convictions, and sense of isolation are all rendered invisible by the justifiability of mass games. This is very similar to many nations in the world which had to go through totalitarianism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nd formation of a nation immediately after colonization. In a sense, the universal history of human kind is contained within the history of Guyana.

The subjects of thought penetrating the mass game archive of Guyana are shared again through works by 6 contemporary artists in this exhibition, which brings together an archive and contemporary art works to share such universality and contemporariness.

Yunjoo Kwak's work sheds light on the trauma of modernity and explores histories that are left out. Her interests have focused on subjects in which the essence has been concealed behind the powerful colors or cleared out due to their sensitive social standing. Her photographic series Triumph of the Will, produced in 2006, captures the history of how the fan dance, which was initially conceived as a solo

dance, transformed into a group dance for political reasons that were indifferent to the original aesthetical purposes of the dance, and the paradoxical reality where such dance has become an icon of traditional culture. Kwak's work disturbs the conventional grounds of knowledge and invites the audience to contemplate on the subject through a new critical outlook, while using splendor and spectacle to function as a mechanism which exposes its very own paradox.

Suntag Noh portrays unfamiliar moments derived in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lens of his camera captures spectacles like massive collective events of large-scale protests, and paradoxical scenes where sad and humorous details coexist. In this exhibition, Noh presents photo mosaic works which shed light on the awkward presence of individuals within various types of masses. These are the overpowering scenes in which the system exposes itself, and at the same time, the scenes of the awkward existence of the individual in the middle of the mass.

Through his video works, Jungju An brings to light situations of implicit agreement without any sense of critical outlook, mainly under powerful hierarchy. In this exhibition, his work shows a cross section of imperialism which, despite changing of time, remains in a form that accommodates to new needs. While 'National Ceremony' is the name of the actual ceremony captured in the video, it also seems to be a symbolic 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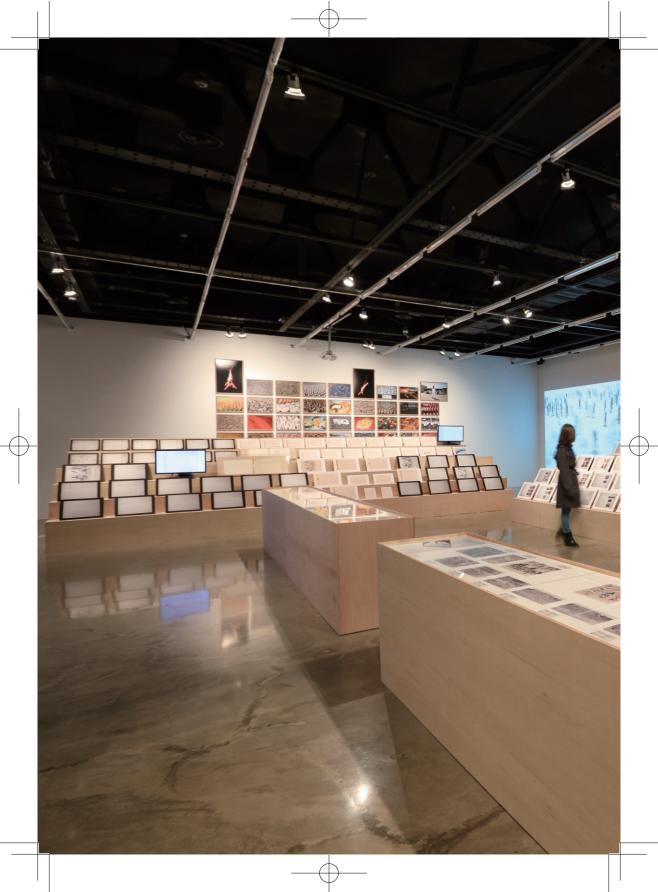
for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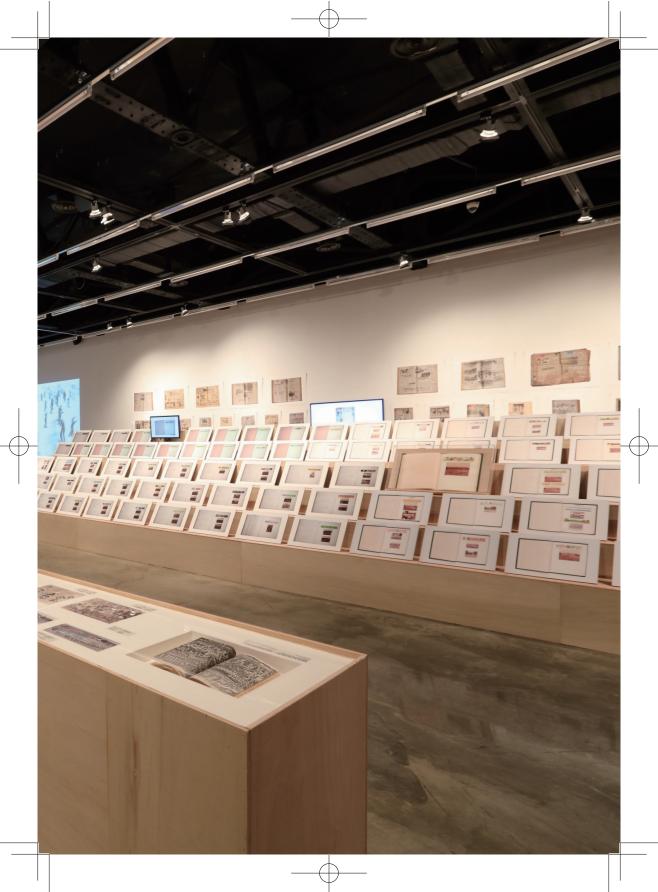
Joonho Jeon's cross disciplinary work of sculpture, digital video and film cross over boundaries of genres and connect the past and the future.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s an animation re-interpretation of a sculptural work of two brothers, installed in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Seoul. Based on a true story about two brothers who meet as enemies in the middle of a battlefield in Korean War, this work shows how the brotherly love — which transcends the polarity of enemies — functions as propaganda tool for unmasking the superiority of the political system.

While the works by the four artists from Korea might arouse universal and deepseated emotions and insight among the Korean audience, works by Korean-Canadian artist Diana Yoo and Chinese artists collective Polit-Sheer-Form expand the directions of such emotions to a broader level. A secondgeneration Korean-Canadian artist Diana Yoo's works are mainly based on her family whose history roots from memorie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diasporic traumas. Growing up in a family who operated a convenience store, which is a form of living for many emigrant Koreans, Yoo's works express her own experiences of identity crisis and symbolically demonstrate the countless emigrant people born in between borders of collectives of different national boundaries.

The Chinese artists collective Polit-Sheer-Form consists of 4 artists and a curator who experienced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ir childhood, and have witnessed perhaps the most violent form of collectivism in history. Portraying the Chinese society today in which the powerful political ideology is replaced by blinded pursuit for capital, Polit-Sheer-Form proposes an alternative form of collectivism in which the individual is not a component of a system but functions as a new living mass with one's own will and judgment.

This exhibition bridges across the long distance between East Asia and the Caribbean and Latin America, which are situated across the world from each other, and different periods in time from the most atrocious Cold War era to the contemporary age where the new neo-liberalistic order has replaced ideologies. Traversing through unique times and places, this exhibition provides a new opportunity of bringing together the past and the present. In history, hypothesis is deemed meaningless. This is probably because hypothesis is made based on the present moment rather than on the time the hypothesis is aimed at. One must be able to imagine the time in the pa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st. And imagining the past in turn provides a new vision of insight and penetration for people in the present, giving history a new lif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iness. In the same way, history of Guyana is no longer a story about a faraway place, but is revived through its physical and even imaginary connection to the Korean audience.





가 이 아 나

권성연(미술사/시각문화사 연구자)

매 스 게 임 의 역 사 적 배 경 과 현 대 적 의 미 ¹

1. 이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매스게임: 탈식민국가 가이아나와
북한의 국가건설 스펙터클: Mass
Games: Nation-building
Spectacles in Postcolonial
Guyana and North Korea의
일부이다. 도록용으로 편집된 본
글은 전시 관람객을 위해 간단히
가이아나의 매스게임과 그 역사적
배경, 의의를 설명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1980년 가이아나의 첫 매스게임

1980년 2월 23일, 중남미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당시 가이아나 협동 공화국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에서는 공화국 건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중남미에 전례가 없던 공연이 펼쳐졌다. 팔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 날의 공연 '매스게임'을 찾아, 가이아나 시민들은 국립공원의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운동장 무대 한켠에 마련된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어린이들의 군무와 기계체조가 펼쳐졌고, 그 뒤 계단식 스탠드에서는 카드섹션 참여자들이 마치 동영상처럼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선보였다. 천여명에 달하는 카드섹션 공연자들은 신문지 크기의 색칠된 책을 높이 펼쳐들고는 신호에 맞춰 일제히 책을 한 장씩 넘김으로써 마치 거대한 벽화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였다. 한시간 가량 지속되는 이 공연의 카드섹션에는 가이아나의 노예해방, 독립운동사, 공화국 건설, 가이아나의 밝은 미래,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찬사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운동장의 단체무용 공연자들은 거대한 꽃을 표현한 대열을 형성하거나, 그룹으로 탑을 쌓는 등 다양한 안무와 기교를 선보였다. 가이아나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첫 매스게임의 성공을 들뜬 어조로 보도하였고, 참여자들과 관객들은 성취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가이아나 매스게임을 연출하고 아이들을 지도한 이들은 수십명의 버로우 예술학교 학생들과 가이아나 전역의 교사들이었지만, 그 뒤에는 가이아나 정치 지도자

- 2. 크리스토퍼 키트 나시멘토와의 인터뷰 중. 권성연과 모 테일러, 2015년, 3월 31일, 조지타운, 가이아나.
- 3. Moe Taylor, "'Only a disciplined people can build a nation': North Korean Mass Games and Third Worldism in Guyana, 1980-1992,"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 Issue 4, No.2, 2015년 1월 26일.
- 4. "Mass Games Instructors Bid Farewell," *Guyana Chronicle*, 1980년 6월 15일, 7.: "Mass Games Move into High Gear," *Guyana Chronicle*, 1980년 01월 10일, 1.
- 5. George Simon and Anne Walmsley, "Art Looking in Land: George Simon Talks to Anne Walmsley," *Kyk-Over-Al*, 46/47 (December 1995): 67—76.: "The People Who Made Mass Games Possible," *New Nation*, 1980년 3월 16일.
- 6. Quintyn Taylor, "Mass Games Here to Stay," *Guyana Chronicle*, 1980년 1월 13일.

린덴 포브스 샘슨 번함(Linden Forbes Sampson Burnham, 이하 포브스 번함, 혹은 번함)과 북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흑인 변호사 출신의 번함은 가이아나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정치인으로 영국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가이아나에 자체적인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인물이다. 1979년 가이아나 협동 공화국의 수상이었던 그는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가 북한 예술가들이 주도하여 만든 매스게임을 보고는 그 스펙터클함에 매료되었다.2 그는 매스게임이 표현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와 어린이들이 질서있게 만들어내는 군무가 당시 정치적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가이아나를 위한 획기적 교육방식이라고 여겼다. 그의 요청으로 김일성이 선별한 7명의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팀이 1979년 7월, 가이아나에 귀빈으로 초대되었다.3 예술감독 김일난을 선두로 안무가, 회화가, 통역사와 행정 간부로 구성된 매스게임 전문가팀은 두달 간 가이아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나서 가이아나의 첫 매스게임 만들기 작업에 돌입했다.4

한편 가이아나에서는 북한팀과 함께 호흡할 가이아나 예술감독을 뽑는 경연이 치러졌다. 우승자 조지사이먼(George Simon)은 아메린디언 원주민 출신으로 영국인 목사에게 입양되어 수도 조지타운과 영국에서 유럽식 엘리트 미술 교육을 받은 아티스트였다. 5 당시 영국 포츠머스 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돌아와 버로우 예술학교에 미술교사로 갓 부임한 그가 중견예술가들을 제치고 가이아나 예술감독으로 선출되자 아메린디언 사회도 들썩이기시작했다. 사이먼은 김일난을 비롯한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팀, 버로우 예술학교 학생들과 함께 매스게임의 배경화면이 되는 카드섹션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첫 해의 매스게임은 가이아나 방송과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연습과정에서부터 관련자들의 인터뷰가 수시로 뉴스에 등장했다. 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일간지 〈뉴네이션〉은 물론,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가이아나크로니클〉은 매스게임이 대성공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이아나는 많은 것을 성취해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⁶ 그후 매년, 매스게임은 공화국 기념일인 2월 23일을 전후한

일요일 오전에 공연되었고 수도 조지타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되었다.

1980년대의 가이아나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35,000년간 아마존 열대우림기후권인 중앙 아메리카에 거주하던 아메린디언 원주민들의 언어로 물의 땅 기아나(Guiana)라고 불린 이 지역은 17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의 북미 정벌을 계기로 서구에 알려졌다. 당시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가 독립하면서 가이아나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고. 19세기 초에는 영국령 기아나(British Guiana), 네덜란드령 수리남(Surinam),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로 영토가 삼등분되었다. 현재 가이아나는 그 중 옛 영국령 기아나로 본래 수도 조지타운을 중심으로 아라왁과 카리브를 포함한 원주민들이 살던 해안가 중심의 비옥한 땅이었다. 이 곳에 플렌테이션 경작을 위해 17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은 내륙의 밀림으로 쫓겨나고, 유럽인들과 그들의 농장에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인들이 해안가를 차지하였다. 1833년 영국의 노예해방 이후에는 해방된 아프리카인들도 원주민처럼 밀림으로 도망가거나 가이아나를 떠났고, 결손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입된 다수의 인도 노동자들과 소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해안가 주변 경작지에 정착하게되었다. 그래서 1980년 당시 가이아나 인구분포를 보면 전체인구의 80%가 해안가 근처에 거주하였으며, 이들 중 50%는 인도-가이아나인, 30%는 아프로-가이아나, 13.2%가 혼혈, 오직 4.4%만이 아메린디언 원주민이었고, 1.4%의 유럽인들과 0.6퍼센트의 중국인 순이었다.8 그렇게 300여년간의 식민지배는 가이아나에게 삼등분된 땅과, 원주민은 말살되고 외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를 남겼다. 이렇듯 한 국가를 구성하는 정체성이 모호해진 상태에서 가이아나는 1966년 5월 23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7. Joshua R. Hyles, Guyana and The Shadow of Empire:
Colonial and Cultural
Negotiations at the Edge of the World (Plymouth, U.K.
: Lexington Books, 2014).
본문에 나타나는 가이아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Hyles의 저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8. Colin Baber and Henry
B. Jeffrey, Guyana: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Beyond the Burnham
Era (London: Frances
Printer/Boulder, Colorado,
1986), 47. 당시 내륙 밀림지역의 인구분포는 집계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인구통계는 해안가 위주라고 보아야 정확할 것이다.

가이아나가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모델로 삼은 것은 이 두 상이한 나라간의 동질성에서 비롯되었다. 두 나라 모두 독립을 쟁취하였다기 보다는 국제적 정세에 의해 독립이 주어졌고 이는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치격변으로 이어졌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에는 친중·소련 사회주의 정권과 친미 민주주의 정권이 태동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럽전역에 식민지 철폐 여론이 형성되면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가이아나를 독립시켜주었다. 1953년 성인참정권이 인정된 후 실시된 가이아나 첫 총선에서 독립파 체디 자간과 포브스 번함이 주도한 사회주의 친독립 세력인 국민진보당(Peoples' Progressive Party)이 승리하자, 영국은 가이아나 독립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친영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가장 존경받던 인도계 정치인 체디 자간은 마하트마 간디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이로 인해 수감된다. 그 사이 아프리카계 지도자 포브스 번함이 분파하여 창당한 국민회의당(People's National Congress)은 체디 자간을 견제하던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집권 여당이 된다. 9 그러나 이들 강국의 기대와는 달리 포브스 번함은 북한, 쿠바, 중국과 수교를 맺는 등 중남미에서 상당히 과격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10

당시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북한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냉전의 주축이었던 한반도에 열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북한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남한과의 경제성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은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쿠바, 가이아나 등 중남미 국가들에게 경제원조까지 주고 있었다. ¹¹ 북한은 이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유럽식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산업혁명을 거친 유럽에서나 가능하고 제3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은데 반해, 북한은 실제로 피식민지 제3세계 국가로서 사회주의 국가 설립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이론을 섞어 자주,

9. Larry Rothermarch, "Cheddi Jagan, Guyana's Founder, Dies at 78," New York Times, 1997년 3월 7일.

10. Hyles, 130.

11. Hazel Smith,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1990s: the Realist Approach," in North Korea in the New World Order, edited by Hazel Smith et al.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93-113.

12. "Juche Idea Seminar," New Nation, 1984년 4월 8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상적 근거로 여겨졌다. 70년대 말, 가이아나 협동 공화국은 주체사상 세미나를 열고 북한 학자들을 초대하는 등 북한의 성공사례를 배우고자 하였다. ¹² 이러한 분위기에서 매스게임은 자연스럽게 이 정권들에 소개되었다.

자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들만의 사회주의 사상 주체는 당시 제3세계 피식민지 국가들에게 독립과 함께 사회주의

또한 가이아나에서 매스게임은 청소년 교육의 한 방편으로 여겨졌다. 가이아나의 교육열은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갓 독립을 이룬 불안정한 정권, 열악한 경제상황, 인프라 부족과 같은 환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후반 가이아나 신문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가이아나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되었고 이들을 훈육할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쿵후 영화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자, 청소년이 이를 따라해서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일기도 하였다. 쿵후 영화 광고와 함께, 중국의 회화족자 해설과 중국 무술에 대한 기사 등이 자주 등장하였고, 가이아나인들에게 동양은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신비로운 곳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한편 쿵후는 인기있지만 일탈로 여겨지는 반면, 북한의 매스게임은 고도의 훈련을 통한 단합과 시간엄수 등 규칙과 단체생활을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획기적인 교육방법으로 여겨졌다.

정치인들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이아나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규율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당시 번함의 최측근 정치인이었던 크리스토퍼 키트 나시멘토는 "개발도상국은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¹³ 그는 가이아나인들이 과거식민통치하에서 배운 것은 노예화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규율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자유가 주어지자 방종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매스게임은 가이아나인들에게 스스로 질서와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며 단체생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매스게임을 통해 그들이 배운 것은 훈육과 조화, 협동,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기사가 반복해

13. 각주 2 참조.

14. 이는 나시멘토의 주장으로 백인 유럽계 가이아나 정치인으로서 피지배층을 바라본 시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장했다. 가이아나 어린이들이 열을 맞추어 같은 동작으로 안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스게임은 수천명이 동원되는 행사이므로 시간엄수가 중요했으나, 나시멘토는 당시 가이아나에 대해 "약속, 헌신의 부재가 만연했다"라고 말했다. 14 1979년부터 1980년 신문에 "올해는 시간을 엄수하자(Let's be punctual this year)"라는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가이아나인들에게 시간관념과 약속에 대한 개념은 모호했는데, 하루빨리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는 개조해야 할 국민습성이었다.

한편 가이아나는 매스게임을 통해 '아마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300여년간 식민통치를 겪고 국제정치계에 갓 발을 내딛은 신생독립국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영국은 식민지 가이아나를 문화적으로 흡수하고 영국인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었다. 원주민 언어를 쓰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질을 당했다. 홍차를 마시며 BBC 뉴스를 보는 일상의 문화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국이 심어놓은 잔재이다. 가이아나에는 단일국가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슬로건을 확립하고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들에게 그것을 주입하는데 매스게임은 일종의 효과적인 제의이자 광고였다. 몇 달을 걸쳐 반복적으로 "노예해방과 독립을 쟁취한 가이아나", "평화를 수호하는 가이아나", "가이아나의 아름다운 자연" 등의 슬로건과 함께 카이터 폭포, 아마존 동식물들의 이미지를 카드섹션으로 그려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몸으로 그 메시지를 표현해야 했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또한 그 공연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어린 공연자들을 지도하고 관람석에서 지켜봤던 성인들에게 매스게임이 준 시청각적, 그리고 심리적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다. 카드섹션에 나타났던 동식물들의 이미지와 다민족을 강조한 이미지들은 지금도 가이아나 시내의 포스터, 매체 등에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현지화, 마슈라마니, 그리고 폐지까지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에는 북한인들이 전수해준 테크닉과 구성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차용됐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가이아나의 고유 문화와 결합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행사로 변모되어 갔다. 환영장, 제1장부터 제7장으로 구성된 본장(매해 다른 내러티브가 선보였다), 그리고 피날레로 이어지는 순서는 북한의 그것과 동일하다. 80년대 초기에는 지도자 번함에 대한 찬사와 당의 위업을 어린이들의 안무와 카드섹션으로 표현하는데 주력했다면, 80년대 후반에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연, 아름다운 가이아나, 무지개 등 매해 특정한 주제 아래 가이아나의 자연과 문화를 찬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이아나 매스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마슈라마니(Mashramani)라는 가이아나 고유의 캐리비언 페스티벌과 매스게임이 혼합되는 과정이다.¹⁵ 마슈라마니는 가이아나 전통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공화국 기념일인 2월 23일 밤에 처음 열렸다. 가이아나의 예술가들은 이 날을 위해 몇 달에 걸쳐 제작한 의상 플롯(float)을 입고 경연을 한다. 이 의상은 마치 사람이 차나 보트를 뒤집어쓴 것 같은 큼직한 크기에 장식이 전위적이고 파격적이어서 보는 이를 한 눈에 압도한다. 가이아나 일년 행사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슈라마니는 이 코스튬 경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80년대 말과 90년의 신문기사를 보면 그 주간에 열리는 국기계양식과 군중행진(People's Parade), 그리고 매스게임까지도 포괄적으로 마슈라마니라고 일컬어지곤 했다. 매스게임과 마슈라마니는 톡특한 대비를 보여주는데, 매스게임은 오전에 어린이들이, 마슈라마니는 밤에 성인들이 공연에 참여한다. 또한 매스게임은 규율과 협동을 중요시하는 단체활동인 데 비해, 마슈라마니는 개인의 화려한 의상과 개성을 뽐내는 개개인의 경연이다.

수집된 아카이브에서 보이듯 87년부터 90년 매스게임에서는 가이아나만의 독특한 의상과

15. 가이아나의 마슈라마니는 일종의 캐리비언 페스티벌로 마슈라마니를 줄여서 마쉬(Mash)라고도 한다. 한편 인접한 국가 트리니다드에서는 비슷하게 코스튬 퍼레이드를 펼치는 마스(Mas)가 공연된다

무용도구들이 선보이는데 이는 마슈라마니에서 차용된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88년 매스게임에 등장하는 '마더 샐리(Mother Sally)'는 마슈라마니에 자주 등장하는 코스튬이다. 여성의 모습으로 과장되게 분장한 남성 공연자가 거대한 치마 속에 숨겨진 장대를 타고 걷는 공연은 본래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요루바에서 행해진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식이었다. 이 외에 치마도 아니고 티셔츠도 아닌 독특한 도트무늬의상과 머리에 쓰는 두건, 공연중 연주되는 가이아나의 음악 칼립소(Calypso) 등 마슈라마니의 다양한 요소들이 매스게임에 등장하곤 했다. 이는 매스게임을 지도하는 예체능 교사들이 실제로 마슈라마니에서 의상경연을 펼치는 예술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매스게임에서 안무와 의상을 담당하며 학생들에게 비슷한 의상을 입히고 안무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영향을 받아 기계체조와 같은 군무를 주로 선보이던 80년대 초의 가이아나 매스게임과 그 차이점이 확연히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가이아나 특유의 청소년 문화도 매스게임의 안무와 결합되는데. 예를 들어 '스틸트맨(Stilt Man)'이라고 하는 가이아나 청소년들이 경쟁삼아 하는 일종의 스포츠도 매스게임에 등장하였다.

1982년, 가이아나의 대표적 문인 이안 맥도날드(Ian McDonald)는 마슈라마니가 여타 국가가 주도하는 행사와는 달리 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캐릭터를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어내는 가이아나만의 고유하고 자생적인 문화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마슈라마니는 "사람들을 국가와 그들 개인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식혀주는 기회"이며 갓 태어난 신생국 가이아나가 가진 유일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¹⁶ 그는 마슈라마니의 주제가 땅과 사람의 역사, 애국심의 테마, 국가 진보의 기록, 예술 축제, 순수하고 간단한 엔터테인먼트라고 정의하였다. 이 주제들은 매해 매스게임의 장을 구성하는 주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88년에 신문기사에서는 매스게임은 가이아나의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라며

16. Ian McDonald, "We've Got Our Own Thing Now," Guyana Chronicle, 1982년 2월 21일, 15.

17. Ian McDonald, "On Mass Games and mass views," Guyana Chronicle, 1988년 12월 14일, 4.

어린이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17

대중들은 매스게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당시 언론에는 검열로 인해 그러한 반대의견은 잘 등장하지 않았다.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독립정부를 수립하여 추앙받던 번함은 점점 독재자로 변모해갔다. 그는 지나치게 주체사상에 매료되어 자주경제를 위해 가이아나에서 재배되지 않는 밀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는 동인도 - 가이아나인들의 주식인 빵 로티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가이아나 인구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동인도인들의 분노를 샀다. 존경받던 사상가 월터 로드니를 비롯하여 번함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참히 살해되었다.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인도계-가이아나뿐 아닌 아프로 - 가이아나인들도 북미와 인근 캐리비안의 다른나라로 이주하였다. 이에 1985년 목 수술 도중 사망한 그의 죽음을 의문사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정권을 이어받은 번함의 후계자 데스몬드 호이트 (Desmond Hoyte)는 번함에 대한 비판을 인식한 듯 번합보다는 유동적인 정책을 펼쳤다. 호이트 정권하에서에서 매스게임은 번함시절처럼 지도자에 대한 찬양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대신 가이아나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다민족 국가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양을 주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여전히 매스게임에 도입부와 후반부에는 대통령을 찬양하는 문구가 등장하였고, 이는 당을 위한 프로파간다에 어린아이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매스게임은 어린이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학부형들은 아마존의 작열하는 태양아래 수시로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야외에서 연습하는 자녀들의 체력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 동원된 학생들에게 식사와 유니폼들이 제공되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행사를 치루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체디 자간이 이끄는 인도계 가이아나인들로 구성된 국민진보당은 이러한 학부형들의 비판을 반정부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1992년, 체디 자간이 이끄는 국민진보당의 친미정권이 수립되자, 매스게임은 구시대 독재자의 프로파간다로 간주되어 폐지되었고 관련자료도 모두 소각되었다.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의의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은 갓 독립한 제3세계 신생국가의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또는 지도자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연행사로, 과연 근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문화인류학자 정병호는 국가를 지탱하는 수단은 경제와 권력이 아닌 주술적 제의라고 주장한 클리포드 기어츠의 "극장국가"의 개념을 빌려 북한의 아리랑 게임이 체제를 유지하는 제의적 기반이라고 분석한다. 18 북한이 허황된 유토피아니즘을 구현하는 아리랑 게임을 통해 피지배층에게 지도권의 신성함과 그들이 부국강병함을 믿게 하는 제의를 펼친다면,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은 아름다운 땅 위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유토피아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제의이다. 국민의 기본적 의식주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거대한 스펙터클을 만드는데 매진했던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전통과 경제기반이 파괴된 신생독립국이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반드시 정체성을 설명하는 제의가 필요했고, 매스게임은 그들에게 국가건설을 위한 제의적 스펙터클이었다.

한편 매스게임이 가이아나의 현대 시각문화에 남긴 자취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카드섹션을 만들어냈던 버로우 예술대학 학생들은 지금 가이아나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들로 성장했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국립미술관 카스텔라니 하우스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필버트 가자다르가 대표적이다. 그는 북한예술가들이 전수해준 거대한 규모의 형상을 그리는 방식을 자신의 기하학적 추상 회화에 접목하여 쓰고 있다고 했다. ¹⁹ 당시 가이아나 매스게임 예술감독이었던 조지 사이먼은 김일난을 비롯한 북한 예술가들을 통해

18.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2010년 하반기 (통권 제 54호) : 1-42.

19. 필버트 가자다르와 권성연 인터뷰. 가이아나 대학, 조지타운, 가이아나. 2015년 3월 31일. 거대한 벽화를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효율적 작업방식과, 당시 가이아나에서 많이 쓰던 과슈와 영국에서 사용했던 유화 대신, 빨리 마르는 아크릴을 처음 접하기도 하였다. 판화가였던 사이먼은 당시 파노라마 벽화와도 같았던 매스게임 카드섹션의 작업 방식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가이아나 시내 곳곳에 벽화를 그렸다.

조지 사이먼, 필버트 가자다르, 그리고 아닐 로버츠가 공동작업한 벽화 ‹천국의 공작새 : 윌슨 해리스를 향한 오마쥬› (Palace of Peacock: Homage to Wilson Harris, 2009)에는 80년대 후반 매스게임이 보여줬던 신성한 땅 가이아나에 대한 주제가 압축적으로 등장한다. 벽화는 가이아나의 문호이자 초현실주의 작가 윌슨 해리스의 소설 〈천국의 공작새〉를 형상화한 그림으로, 이 소설에서는 엘도라도(El Dorado)에 가고자 하는 개척자들과 이를 돕는 듯 하지만 방해하는 신비한 아마존 동식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는 도록 176쪽 참조) 이러한 내러티브는 엘도라도를 찾아온 서구 개척자들에게 누구도 가이아나의 신성한 땅에 침입해 금으로 알려진 보물을 약탈해 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경고이자 가이아나의 독립 서사시이다. 엘도라도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된 사람'을 뜻하는데, 원래 콜럼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었다거나 그곳의 원주민, 혹은 왕이라는 여러 설이 있다. 이 신화가 유럽인들에게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이를 찾던 사람들에게 가이아나는 엘도라도로 유럽에 잘못 알려지게 된다. 영국의 개척자이자 문호 월터 랄리 경(Sir Walter Raleigh)은 1954년에 가이아나를 탐방하고 돌아가서 쓴 저서 ‹가이아나의 발견› (Discovery of Guyana)에서 자신은 엘도라도에 당도하였으며 가이아나 원주민들이 자신에게 가이아나의 금 채굴권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금을 채굴하러 온 서구 개척자들에 의해 가이아나의 긴 식민지 역사가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엘도라도는 금과 보물이 쌓여있는 이국적인 땅으로 알려졌으나 가이아나 문학에서 엘도라도는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 대지의 힘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이아나 내륙의 밀림은 서구 개척자들이 가이아나에 뿌리내릴 수 없게끔 하는 방어적 힘을 발휘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삼국이 가이아나의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려고 수시로 영토를 교환한 끝에 결국 조지타운 근처해안가를 차지한 것은 영국이었다. 아마존 밀림지대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실패하여 수리남과 프랑스령 기아나를 제대로 활용도해보지 못하고 결국 감옥으로 이용했다. 탈옥범들은 대부분 밀림의 야생동물, 독충과 더위로 사망하였고 본거지 해안가에서 쫓겨난 원주민들만이 이곳에 적응하여살 수 있었다. 때문에 가이아나의 내륙은 원주민만 살 수 있는 곳이고 그 곳의 야생동물은 원주민들과 정신적 교감을하는 신성한 존재들로 각인되었다.

후기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카드섹션에 나타난 이미지들과 서사가 그들의 땅과 아마존의 야생동물, 사람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독립서사가 바탕이 되어 있다. 특히 87년 매스게임 "우리의 자연"에서는 아마존의 동식물이미지와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등장한다. 초기북한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가이아나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제 마슈라마니와 청소년 문화, 그리고 문학적서사를 결합시켜 매스게임을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제전으로 발전시켜왔다. 아쉽게도 그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는 인종갈등과 정치 격변, 자연환경과 기록관리의 인프라 부족등으로 많이 유실되어왔다.

가이아나 매스게임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이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트렌스내셔널 문화교류였다는 점에서 세계화와 트렌스내셔널 연구가한창인 지금 다시 돌아볼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례이다. 매스게임은 제3세계 탈식민 약소국으로서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국가의 서사와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자했던 과도기적 상태에서 발생한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공연예술이자 일종의 제의였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신체와 정신을 훈육하고자 하였던 지도자들, 또한 이에순응하였거나, 즐겼거나, 혹은 저항했던 개개인의 다양한이야기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THE GUYANESE MASS GAMES: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MPORARY MEANING

Vicki Sung-yeon Kwon (history of art and visual culture researcher)

The 1980 Inaugural Guyanese Mass Games On February 23, 1980, five thousand Guyanese citizens gathered at National Park in Georgetown, the capital of Guyana,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They came to watch the Mass Games—spectacular multimedia performances played out by three thousand students, artists, dancers, and musicians. Two thousand young students performed group choreography on the tarmac. Behind them, another one thousand students created a gigantic painting by displaying a series of cards. When held up by individual students, the cards combined to portray the plants and animals of the Amazon, the multi-ethnic people and culture of Guyana, and messages of peace. The backdrop images illustrated the modern history of Guyana—including the slave revolt and the independence and labour movements—and presented messages about the bright future of the nation and the long life of its leader. The audience were thrilled to watch their children perform group choreography forming flowers or towers.

This event was organized by a group of artists from Guyana, led by the Amerindian

- 1. Moe Taylor, "'Only a disciplined people can build a nation': North Korean Mass Games and Third Worldism in Guyana, 1980-1992,"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 Issue 4, No.2, January 26, 2015.
- 2. Interview with Christopher Kit Nascimento by Vicki Sung-yeon Kwon and Moe Taylor, March 31, 2015, Georgetown, Guyana.
- 3. "Mass Games Instructors Bid Farewell," *Guyana Chronicle*, June 15, 1987.: "Mass Games Move into High Gear," *Guyana Chronicle*, January 10, 1981.
- 4. George Simon and Anne Walmsley, "Art Looking in Land: George Simon Talks to Anne Walmsley," *Kyk-Over-Al*, 46–47 (December 1995): 67–76.; "The People Who Made Mass Games Possible," *New Nation*, March 16, 1980.

muralist George Simon, and seven artist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lso referred to as North Korea). The Koreans had been invited by the president of Guyana, Linden Forbes Sampson Burnham, to teach the Guyanese how to stage the kind of Mass Games already being performed in North Korea. During a visit to Ethiopia, Burnham had seen Mass Games performed and directed by North Koreans, and he had been fascinated by the spectacle. 2 He thought that the Mass Games would be a great education tool for Guyanese youth. Upon his request, seven artists selected by the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visited Guyana in July 1979. They were the Mass Games art director Kim Il-Nan, who had 10 years of experience in directing the Mass Games in Pyongyang; dance instructors; painters; an interpreter; and an administration staff member. 3 They undertook two months of training to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Guyana and then started teaching Guyanese artists how to stage the Mass Games.

Meanwhile, after a selection competition, George Simon was appointed as artistic director for the Guyanese Mass Games. Simon is an Amerindian artist who had recently returned from training as a printmaker at Portsmouth College in the UK. From 1980 to 1992, with assistance from the North Koreans, Simon directed the annual Mass Games in Georgetown, representing the Guyanese spirit by featuring images of its indigenous flora and fauna and its multiethnic people. Under his direction, students from the Burrowes School of Art designed

the images of the background paintings and produced the thousands of books for the card sections.

The Guyanese media reported on the Mass Games rehearsals with great interest and published interviews with the artists and the participants. The newspaper corporations New Nation and Guyana Chronicle evaluated the first-ever spectacle as a great success and praised it for the achievements of Guyana and its youth. The Mass Games were performed in the morning on a Sunday close to February 23, National Day, in Georgetown and other cities in Guyana for 12 years, until they were abolished in 1992.

5. Quintyn Taylor, "Mass Games Here to Stay," Guyana Chronicle, January 13, 1980.

Guyana in the 1980s

The Guyanese Mass Games arose in the unique socio-political conditions formed by the local and international context of Guyana in the 1980s. The historian Joshua R. Hyles declared, "Nowhere in the world can objective study of colonialism and its effects be more fruitful than in the Guyanas." 6 Meaning land of lots of water in the Amerindian language, "Guiana" had been inhabited by Amerindians for 35,000 years. After being visited by the Spanish in the 17th century, it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placed under colonial rule by the United Kingdom (British Guiana), the Netherlands (Surinam), and France (French Guiana). The Arawak and Carib, the Amerindians who farmed the land along the coastline, were killed or were expelled to the southern hinterland jungle, and the coastline was occupied by Europeans and enslaved people from Africa

6. Joshua R. Hyles, Guyana and the Shadow of Empire: Colonial and Cultural Negotiations at the Edge of the World (Plymouth, U.K.: Lexington Books, 2014). xiii.

7. Colin Baber and Henry
B. Jeffrey, Guyana: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Beyond the Burnham
Era (London: Frances
Pinter; Boulder, Colorado:
L. Rienner Publishers
1986), 47. This demographic breakdown excludes
the population of the
hinterland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accurately
count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the jungle.

working on the European-owned plantations. After the 1833 Emancipation Act was passed in the British Empire, East Indians and some Chinese were brought in as indentured labourers to replace the African slaves. Descendants of the Amerindian inhabitants and these multi-ethnic immigrants form the contemporary demography of Guyana. Guyana became independent in 1966. About 80% of the population lived along the coast. In 1980, 50% of these coast-dwellers were East Indians. The remainder of the coastal population consisted of 30% Afro-Guyanese, 13.2% mixed ethnicity, 4.4% Amerindian, 1.0% Portuguese, 0.6% Chinese, and 0.4% European. The 300 years of colonization had left Guyana an unstable state, with an ambiguous defini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root of its people. It was against this postcolonial and multi-ethnic backdrop that a Socialist regime was established, and it took the DPRK as its model.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s reason for adopting a North Korean model of Socialism wa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republics. Neither country achieved independence from colonialism: rather, independence came abou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Then, both countries immediately encountered the turmoil of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erial Japanese Army's defeat in the Pacific War liberated colonial Chosun. Soon, political intervention by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resulted in the Korean War, which divided the land into North and South Korea.

Similarly, although the British Empire relinguished its colonies due to the international call for anti-colonialism, the British Empire was still intervening in Guyana's politics. In the first elec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adult suffrage in 1953, the People's Progressive Party (PPP), led by Indo-Guyanese leader Cheddi Jagan and Afro-Guyanese leader Forbes Burnham, won the election. The British Empire suspended the constitution of the PPP regime by establishing an interim government consisting of pro-British politicians. As an act of resistance, Jagan launched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inspired by Mahatma Gandhi, and he was imprisoned for six months. During this time, Burnham launched the People's National Congress (PNC) with his Afro-Guyanese fraction. He was supported by the British Empire and the United States, who were concerned about the Marxist tendencies of Jagan and the PPP.8 Embarrassing both Britain and the USA, once he gained power, Burnham made a partnership with Cuba and North Korea, and established a radical Socialist regime.9

At the time, North Korea was quite influential in the Third World Socialist bloc. Having founded a Communist regime in a land devastated by colonialism and the Korean War, North Korea was outcompeting South Korea on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70s. North Korea was even giving financial support to Socialist regimes in countries in Africa, such as Ethiopia, Tanzania, Sierra Leone, and in the Caribbean, such as Cuba and Guyana. 10 North Korea also offered them a

8. Larry Rothermarch, "Cheddi Jagan, Guyana's Founder, Dies at 78," *New York Times*, March 7, 1997.

9. Hyles, 130.

10. Hazel Smith,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1990s: The Realist Approach," in North Korea in the New World Order, edited by Hazel Smith et al. (London: Macmillan Press, 1996), 93—113.

theoretical role model for a post-colonial, independent, Third World Socialist regime. The North Korean model was selling well to these regimes, because traditional Marxists declare that a Communist revolution can take place on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only after industrialization. In contrast, North Korea demonstrated that it was possible to build a Socialist state in a post-colonial Third World nation. Burnham admired juche, a Communist ideology and manifesto developed by Kim Il-Sung based on Marxist and Maoist texts. Translating as "self-sufficiency," *juche* provided newly established Communist regimes in the global South with a philosophical and practical model. The Third World Socialist bloc hosted *juche* seminars and invited North Korean scholars. 11 The Mass Games were introduced to these regimes in this context.

Guyana hoped that the Mass Games would be an educational tool. Although Guyanese people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al fervor, the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unstable regime predisposed Guyanese youth to be prone to crime, delinquency, and violence. Youth delinquency was considere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Guyanese politicians claimed that the violence of kung fu movies, which were widespread and popular among Guyanese youth, had a harmful influence on them. 12 While kung fu was considered popular but malicious, the Mass Games were considered an educational revolution that could strengthen body and mind and teach punctuality and discipline.

Guyanese politicians at the time called

11. "Juche Idea Seminar," New Nation, April 8, 1984.

12. Moe Taylor, "North Korean—style Mass Games in Guyana and the concept of discipline in a Guyanese cultural context, " a talk given during an exhibition program "Shake That Mass Games! Interdisciplinary Roundtable Discussion," held at the University of Alberta, June 16, 2016. The roundtable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Mass Games: Nation-Building Spectacles in Post-Colonial Guyana and North Korea, curated by Vicki S. Kwon at the University of Alberta's Rutherford Library (April 15-June 24, 2016).

for Guyanese people in general to learn discipline. Christopher Kit Nascimento, Burnham's closest administrator, said as much in an interview:

Developing countries remai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y are lack of discipline. It is true in all countries I have visited. Guyana was complete absent of discipline. Our culture was slavery and we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 When we achieved the independence, it was a complete challenge. 13

13. See note 2.

14. It should be noted that Nascimento was an administrator of the PNC and of European descendent.

For Nascimento, the Mass Games were to inculcate Guyanese youth with discipline. Nascimento also commented that Guyana was experiencing a lack of punctuality and dedication to fulfill its promises.14 Even newspapers in 1979 and 1980 published articles with titles such as "Let's be punctual this year." Clock-based timekeeping and punctuality were new, ambiguous, and foreign concepts to many non-European countries. For the leaders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ime-keeping and punctuality were an urgent matter for reform, in order to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and politics. The Mass Games required punctuality from all participants, and they demonstrated that punctuality was possible in Guyana.

Meanwhile, Guyana created a national brand through the Mass Games. The British Empire's cultural assimilation policy had almost obliterated the cultural uniqueness and ethnic unity of Guyana. English became the most spoken language. Students who spoke Amerindian languages were flogged in school. The British culture transplanted to Guyana was so strong that remnants of it can still be found in everyday life, such as drinking tea while watching the BBC news. The Guyanese faced an urgent need to create a national identity and their own traditions. The Mass Games helped design and imprint a national character within a visual spectacle. In the Mass Games, the Guyanese presented themselves as one nation, in which multiethnic groups co-resided in peace in scenic landscapes. The games illustrated Guyana's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fostered a better future for the country's youth. The images and slogans used in the Mass Games still appear in posters and advertisements in present-day Guyana.

Localization of the Mass Games, Mashramani, and abolition

During the early years, the Guyanese Mass Games reflected the content and format of the North Korean model: however, later on, they were transformed into a Guyanese cultural event, incorporating the local culture, although the composition of the Mass Games remained identical to the North Korean games. It started with the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en came Chapter 1 to Chapter 7, and then the Finale. While slogans praising the president constantly appeared in the early 1980s, in contrast, by the 1990s, the Mass Games highlighted Guyana's culture, nature, and people.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e

Guyanese Mass Games was the way in which they became merged with Mashramani—the Guyanese Caribbean festival or carnival with an Amerindian name that translates as "the celebration after hard work." First performed in 1970 for a celebration of the republic day, Mashramani is still performed every year. Performers wear floatsgigantic, boat-sized costumes with radical and exaggerated decorations. While the Mass Games were performed by youths in the morning, Mashramani is performed by adults at night. Unlike the Mass Games, which emphasized discipline and cooperation, Mashramani was to reveal individuals' uniqueness, as it was a competition involving splendid costumes and a talent show. In the late 1980s, some newspaper articles used the name Mashramani, or Mash, to refer to the entire series of events that made up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including the Mass Games and the People's Parade.

The displayed archive in the exhibition demonstrates that Mashramani costumes and props appeared in the Mass Games. For example, Mother Sally, a costumed band of men walking on long poles wearing exaggeratedly maternal dresses and bandanas, was performed in the 1988 Mass Games. That year, performers dressed in unique attire danced to calypso music. (See p. 115 for more details.) Because the participants in Mashramani (mostly artists, dancers, and costume designers) were also instructors of the Mass Games, elements of Mashramani inevitably appeared again in the Mass Games. In

15. Somehow a similar performance was performed in South Korea in the 1970s National Youth Sports Meet (Jeonguk Chejeon).

16. Ian McDonald, "We've Got Our Own Thing Now," Guyana Chronicle, February 21, 1982, 15.

17. Ian McDonald, "On Mass Games and mass views," Guyana Chronicle, December 14, 1988, 4. addition, Stilt Men—a group of boys walking on poles in competition—was performed as part of the Mass Games, showing how the local youth culture was also incorporated into the Mass Games.¹⁵

In 1982, the Guyanese writer Ian McDonald emphasized that Mashramani is Guyana's own culture. In an article titled "We've Got Our Own Thing," published in the Guyana Chronicle, 16 he argued that, for Mashramani, people create their own characters and perform spontaneously, unlike the events organiz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and that Mashramani is the only own tradition of the newborn nation of Guyana. He analyzed the themes of Mashramani as being the history of the land and the people, patriotism, records of the nation's progress, as well as celebration of the arts in the pure and simple form of entertainments. These themes were also repeated in the Mass Games. Later in his article in 1988, McDonald, however, criticized the Mass Games as foreign events forced on Guyanese youths. 17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Mass Games were arising at that time. Regardless, perhaps due to government censorship over the media, such counterpoints to the prevailing perception of the Mass Games rarely appeared in the media. Burnham, who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eventually established a post-colonial regime, became a radical dictator. He was so fascinated by *juche* that he banned the import of flour, which affected the Indo-Guyanese population by reducing the supply of roti bread, which is made with flour. Burnham and his party thus

antagonised the Indo-Guyanese, who make up half of the country's population. Those who criticized Burnham were assassinated—for example, Walter Rodney, a revered and influential young scholar. As the reign of violence continued, people migrated to North America or to other Caribbean nations.

After Burnham's suspicious death during neck surgery, Desmond Hoyte took over the regime, and subsequent Mass Games reflected a change in policies. Acknowledging the antagonism that existed towards Burnham, Hoyte tried to be more flexible than Burnham had been. The Mass Games of his regime (1985-1992) did not explicitly applaud the leader. Instead, they focused on illustrating Guyana's unique culture, nature, and people. Still, the Mass Games finale continued to be dedicated to celebrating the president and the party, and neither could avoid criticism that the party involved youth in government propaganda. Moreover, participation in the games required students to be out of class at a time when they were preparing for high school or university entrance exams, which worried parents. Parents were also concerned for the health of their children, as they had to rehearse in the sizzling heat and humidity. Although the government fed and clothed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ass Games during the rehearsal period, this made the citizens even more resentful, because the regime could not even provide for the basic needs of the rest of the population. The PPP, led by Cheddi Jagan, used this anti-Mass Games sentiment to instigate antagonism against the Socialist

regime.

The Mass Games were eventually discontinued in 1992, when the oppositional PPP, led by Indo-Guyanese, won the election and established a regime that was pro—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PP party members purposely obliterated the legacy of the PNC regime and burnt the archival records of the Mass Games.

The Meaning of the Guyanese Mass Games

As a spectacle to create a national brand for a newborn, unstable, and post-colonial nation, and as a means to reform the bodies and minds of its people, the Guyanese Mass Games ultimately leave us with a question: What is a nation? Cultural anthropologist Chung Byung-ho argues that the North Korean Arirang Games are a ritual that maintains the state system of the DPRK. 18 He borrows Clifford Geertz's concept of "theater state," which defines the means of sustaining a nation as a ritual ceremony, neither a political power nor an economy system. While North Korea uses the Arirang Games to convince its people to believe in the sacred power of its leaders and in th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rowess presented in the spectacle, the Guyanese Mass Games instilled in the Guyanese a utopian belief that they were a peaceful nation built by a multi-ethnic people in a beautiful and auspicious land. The common ground of these two states was that they were both newborn post-colonial nations whose tradition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had been devastated. They both were experiencing

18. Chung Byung-ho, "Symbol and Ritual in the Theater State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Affairs 54, 2 (2010): 1–42.

unstable social, polit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but, seemingly irrationally, spent their national resources on staging these illusionary spectacles. Guyana and North Korea needed a ritual that created and explained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Mass Games provided them with a spectacular ceremony to create such an identity.

Meanwhile, the Guyanese Mass Games have left a significant influence in presentday Guyana's art and visual culture. The students of the Burrowes School of Art who created the card sections became the prominent artists of Guyana. For example, Philbert Gajadhar now teaches painting at the University of Guyana and is a committee member of Castellani House, the National Art Gallery of Guyana. He said that he still uses the technique of drawing on a gigantic scale with perfect geometry and that he teaches this skill to his students. 19 He and others also first experienced using acrylic, instead of the gouache and oil paint that were available in Guyana at the time. Originally trained as a printmaker, George Simon, the artistic director, became a muralist, using the skill of painting to create the gigantic backdrops of the Mass Games. These artists created the Guyanese visual identitiessuch as flowers, wildlife, and multi-ethnic imagery—displayed during the Mass Games.

The mural Palace of the Peacock: Homage to Wilson Harris (2009), painted by George Simon, Philbert Gajadhar, and Anil Roberts at the University of Guyana, embodies a theme of the Mass Games in the late 1980s. The painting is a visual representation

19. Interview with
Philbert Gajadhar by Vicki
Sung-yeon Kwon, March 31,
Georgetown, Guyana.

of the poetic novel with the same title by the Guyanese surrealist writer Wilson Harris. The novel illustrates the story of expeditions exploring the hinterland of Guyana and the auspicious Amazonian animals and fauna that seem to help but also to threaten them. The book represents both Guyana's epic narrative of independence and a warning to the Western invaders who came in search of El Dorado that no one could take the gold from Guyana.

The foreigners' pursuit of the southern interior of the Guiana Shield is rooted in the myth of El Dorado (tr. the golden one, or the golden man). The English explorer Sir Walter Raleigh reached the Orinoco River, in present-day Guyana, as the final destination of his expedition to find "the personal and national El Dorado."²⁰ Raleigh's publication on this expedition stirred the European colonizers' interests in Guyana. For them, El Dorado meant gold: for the Guyanese, it meant the protective power of their native land. A number of European empires tried to conquer the hinterlands of the Guiana Shield: however, none were successful. In fact, the Amazonian weather, flora, and fauna helped to defend the Amerindians from the invaders. France lost interest in developing French Guiana into an extension of its empire: instead, it used the land as a penal colony, where it could send political prisoners to die in the jungle. Runaway African slaves tried to explore the hinterland, but the insects, wild animals, diseases, and weather conditions killed most of them. 21 The Guyanese believed that the hinterland had the power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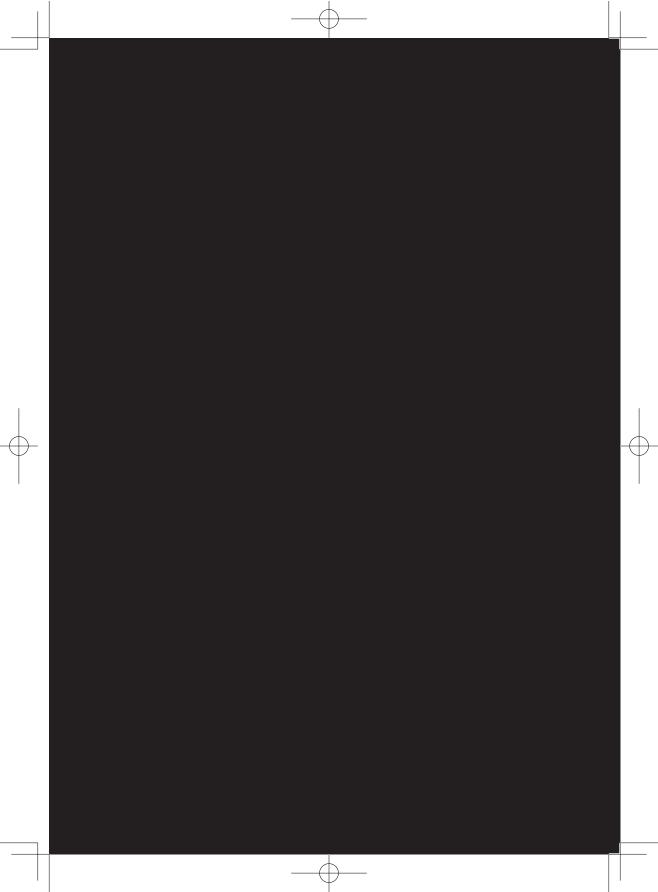
20. After he returned home, Raleigh published a book in which he claimed that he had received a verbal agreement from the Amerindians to occupy the land. This claim was used as justification for the Spanish colonizers to conquer the lands between Guyana and Venezuela. Hyles,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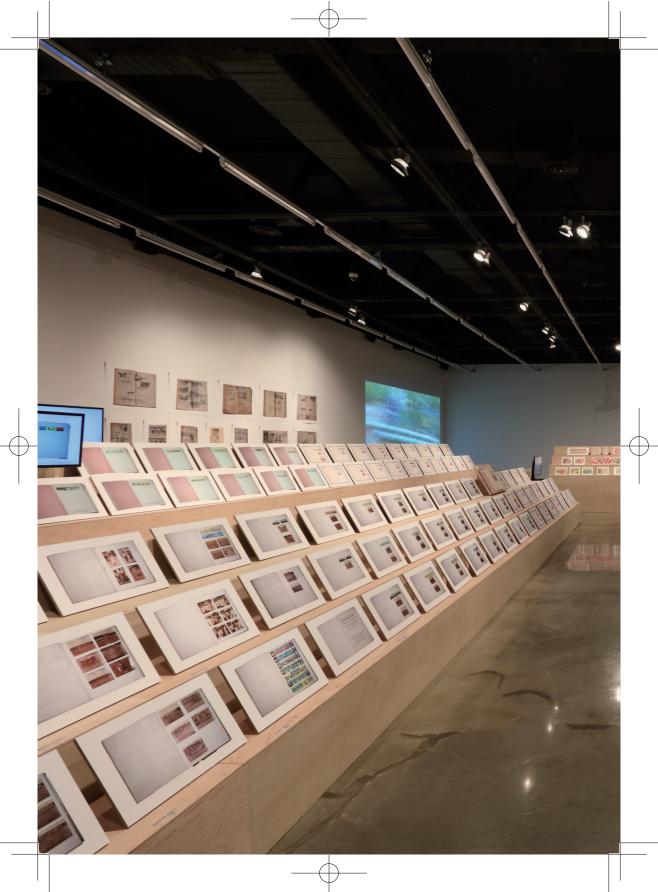
21. Hyles, 4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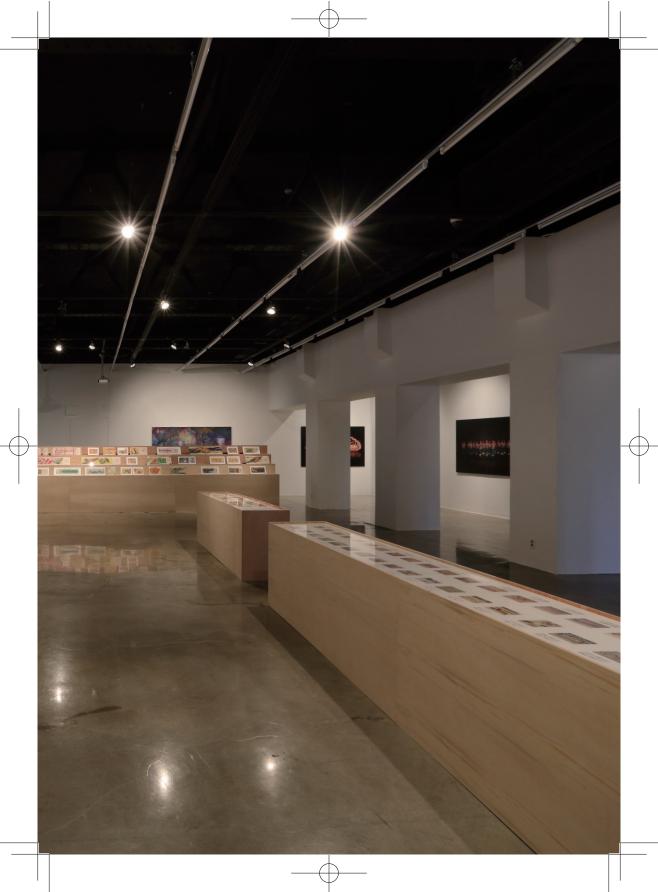
protect them and that its sacred creatures communicate only with the Amerindians. And this belief was materialized in the Mass Games as the visual spectacle of the National Day ceremony, as a sort of national ritual.

The later years of the Guyanese Mass Games presented some of these narratives of the people and the land. The photographs, photo albums, and schematic designs from the 1987 Mass Games displayed in this exhibition demonstrate how such stories were presented. The Guyanese developed the Mass Games into their own cultural event by integrating the games with their local culture and literature. Regretfully, the records of the Mass Games were destroyed due to political and ethnic conflicts, weather conditions, and a lack of infrastructure for archival conservation. The displayed materials are thus rare surviving sources of this history of Guyana.

The Guyanese Mass Games should be understood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Guyanese Mass Games were a historical instance of transnational art and cultural transmission via ideological exchange. They were adopted as a political solution for the state in the transitional stage from a colony to a Socialist regime, which was vulnerable to internal ethnic conflicts and external political intervention by the imperial power. The Mass Games were simultaneously performing arts, a spectacle, and a ritual to create and sustain a state. Those in power attempted to train individual bodies and minds: individuals responded by conforming to, enjoying, or resisting the state's ritual.







가 이 아 나 매 스 게 일 아 카 이 브 하이라이 THE HIG MASS GA



GHLIGHTS OF E GUYANESE AMES CHIVE

1 9 8 7 매 스 게 임 에 사용된 카드섹션 회 화 도 안

카드섹션은 관객의 시각에서 무대 중앙 연출되었다. 책 <u>한 권은 보통 33장의</u> 운동장에서 춤추는 공연자들의 뒷편에서 펼쳐져 마치 매스게임의 배경화면과도 같았다. 다음의 회화들은 매스게임의 배경화면이 되는 카드섹션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도안으로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예술감독 조지 사이먼(George Simon)의 채색되었다. 지도 하에 조지타운의 국립미술대학 버로우 예술대학 (Burrowes School of Art) 학생들이 디자인하고 채색한 그림들이다.

회화가 그려진 종이를 자세히 보면 숫자가 적힌 모눈이 그려져 있다. 이 도안을 바탕으로 버로우 예술대학 학생들은 동물들을 볼 수 있고 이 중 특히 재규어는 각 모눈의 그려진 부분을 더 큰 종이에 옮겨 그리고, 이 종이들을 순서대로 모아 책을 제작하였다. 국립공원 무대에 설치된 계단식 좌석에 자리잡은 천여 명의 학생들이 그 책을 머리 위로 들고 무대 앞의 조지 사이먼이 지휘하는 깃발에 맞추어 한 장 한 장 넘기자, 거대한 벽화 무궁화, 연꽃 등도 나타난다. 그 외의 파노라마 수백장이 한시간 동안 동영상처럼 자료는 대부분 홍수로 유실되었다.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한시간 가량 지속되는 한 해의 매스게임을 위해 버로우 예술대학 학생들은 매년 수천 권의 책을 제작했다. 도안은 과슈와 물감으로, 실제 운동장에서 공연된 카드섹션은 아크릴로

전시를 위해 대여된 원본 자료들은 <u>1987년</u> 매스게임의 챕터 1 <가이아나의 꽃›과 챕터 4 ‹우리의 야생동물›을 위해 제작되었던 도안들이다. 새, 비단구렁이, 올빼미, 아마딜로, 히포 등 아마존의 가이아나 국가 동물이다. 가이아나 원주민들은 아마존의 야생동물들이 외부침입자를 막고 원주민들과 교류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녔다고 믿었다. ∢가이아나의 꽃⇒ 챕터에는 열대지방의 꽃과 선인장은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SCHEMATIC PAINTINGS FOR THE BACKDROP OF THE 1987 MASS GAMES

The gigantic backdrops in Mass Games are created through card sections. The images shown here are schematic designs created to enable the execution of the card sections, at a much bigger scale. They were designed by George Simon, the Guyanese art director of the Mass Games, together with students of the Burrowes School of Art. Each grid in these schematic paintings was copied onto a piece of card. These cards were combined into books and given to the cardsection performers. Held aloft by a thousand performers sitting on the backdrop stage, the cards collectively created gigantic images. The schematic paintings were painted with gouache and watercolour on paper. The books of cards were painted with

acrylic paint on paper.

The exhibition at Arko Art
Center displayed 17 original
and 25 reproduced schematic
paintings created for the 1987
Mass Games, Chapter 1, "Flowers
of Guyana," and Chapter 4, "Our
Wild Life." The other chapters
were lost due to torrential rain.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재규어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8 x 80.5 cm

Jaguar,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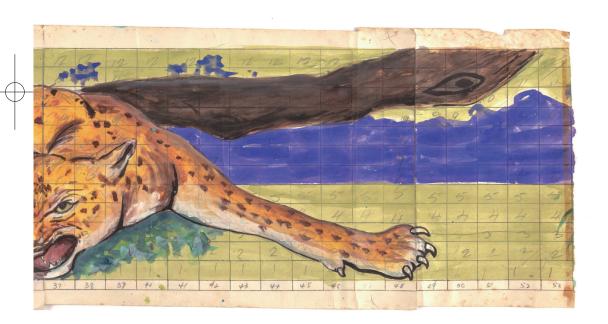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8 x 80.5 cm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카드섹션 회화도안은 제 4장 〈우리의 야생동물〉에 포함된 재규어이다. 가이아나의 대표적인 야생동물인 재규어는 아메린디언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땅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원주민 신화와 가이아나 문학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도안용 회화에서는 날렵한 몸과 생기있는 눈, 생동감있는 입과 꼬리의 묘사가 돋보인다. The jaguar, the national animal of Guyana, is believed to be the guardian of the native land. It appears in Amerindian literature as a symbolic and auspicious creature. The schematic painting of the 1987 Mass Games represents a jaguar with a slender body and lively eyes, mouth, and tail.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앵무새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7 x 75 cm

Parrot,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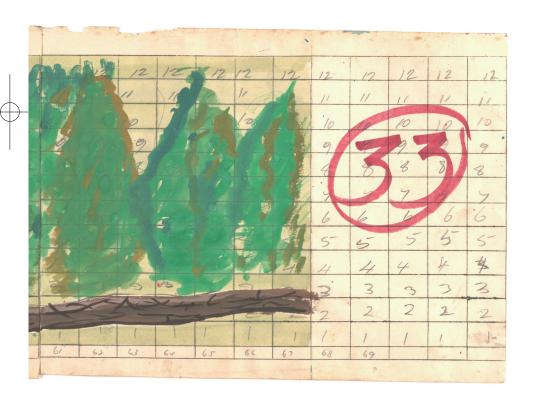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7 x 75 cm



《우리의 야생동물》 장에 포함되어 있으나 앵무새는 가이아나인들이 가정에서 흔하게 기르는 새 중 하나이다. 가이아나에는 새를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문화가 있는데 실제로 길거리와 주택가에 새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앵무새 역시 아메린디언 원주민들에게 상징적, 신화적 의미를 지닌다. 1987년 매스게임 사진앨범에 포함된 실제 매스게임에 쓰여진 카드섹션을 그린 축소본(4 x 24 cm)을 보면 같은 화면에 왼쪽으로 부엉이와 펠리칸이 등장한다. Parrots are commonly found in Guyanese domestic houses in the city of Georgetown, because Guyana has a culture of keeping birds in the home. However, this image is from the chapter "Our Wild Life." In the Mass Games, it was originally displayed in a card section along with an owl and a pelican, according to the miniature version of the schematic painting seen in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비단구렁이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8 x 57 cm

Python,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8 x 57 cm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올빼미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5 x 36 cm

Owl,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5 x 36 cm



다음 회화도안은 1987 매스게임의 1장

〈가이아나의 꽃〉에 등장한다. 가이아나 시내
도로변과 가정집의 정원, 들판에서 흔히
발견되는 꽃들로 여기 소개된 꽃들은 당시 발행된
가이아나의 우표에도 비슷하게 등장한다.

The following schematic paintings were part of Chapter 1, "Flowers of Guyana," in the 1987 Mass Games. These flowers are commonly found in the streets, gardens and yards of present-day Georgetown. They appear, similarly, in postage stamps circulated at the time.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알리만다 꽃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7 x 42.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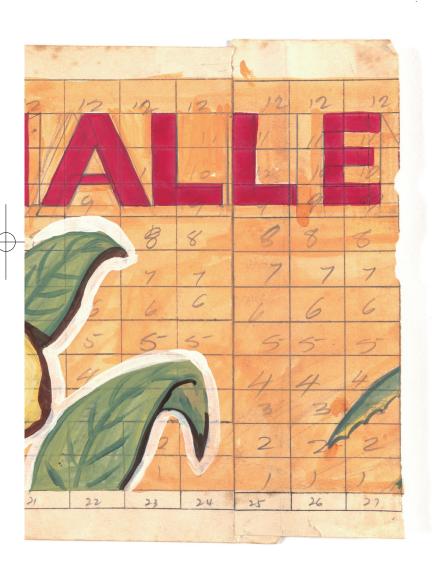
Allamanda,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7 x 42.5 cm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무궁화과의 꽃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7 x 29.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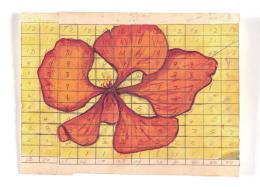
Hibiscus (Mallow),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7 x 29.2 cm



007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수련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4 x 18.5 cm

Water Lily,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4 x 18.5 cm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선인장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8 x 42.8 cm

Cacti,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8 x 42.8 cm



009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회화도안 극락조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7 x 42.5 cm Bird of Paradise,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1.7 x 42.5 cm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도안 바나나꽃과 옥수수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2.2 x 92.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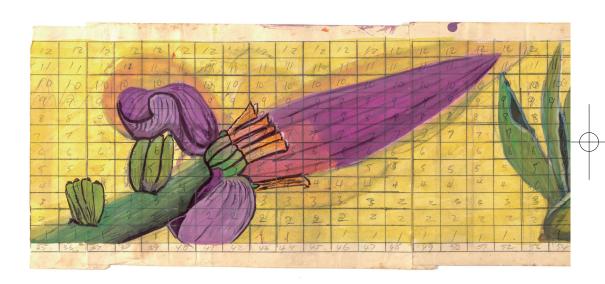
Banana Blossom and Corn,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2.2 x 92.5 cm



바나나꽃은 동인도인들이 샐러드, 수프나 카레에 넣어 먹는 채소로 무더운 가이아나에서도 재배되어 사탕수수, 옥수수와 더불어 가이아나인들이 흔히 먹는 먹거리이다. 1987년 매스게임에는 옥수수와 함께〈가이아나의 꽃〉 장에 등장하였다. Banana blossoms are commonly used in the preparation of soup or curry by East Indians. Because they can be successfully grown in the humid and sizzling-hot Guyana basin, the Indo-Guyanese population cultivated banana blossoms for daily eating. Banana blossoms appeared along with maize in the 1987 Mass Games backdrops.



011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도안 1장 〈가이아나의 꽃〉일부 1986 - 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왼쪽부터) 21.5 x 9.5 cm ,

21.7 x 23.85 cm, 21.8 x 14.2 cm

From Chapter 1. "Flowers of Guyana",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From left) 21.5 x 9.5 cm , 21.7 x 23.85 cm,

21.8 x 14.2 cm





과거 매스게임 사무국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매스게임 사무국이 없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예체능활동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AAU)으로 이전되었다. AAU의 디렉터 데지레 와일즈 오글 (Desirée Wyles 0gle)은 매스게임 시절 유치부 교사로서 안무를 창작하고 어린 공연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서 했었다. 2005년 대홍수 당시 조지타운의 건물 대부분의 1층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대피하였는데, 당시 AAU 사무실 1층도 전체가 침수되어 대부분의 자료들이 유실되었고 2층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자료들도 아마존 특유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벌레들로 인해 상태가 좋지 못하다. 회화도안은 말아서 혹은 접혀서 보관되어 있었다. 젖은 면이 습기 때문에 분리되자 AAU직원들이 테잎으로 보수했는데, 테잎 때문에 산성화된 종이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여건상 자료를 보관하는 재정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해 유실되고 있는 자료가 상당하다.

After the downfall of the socialist regime of Guyana in 1992, the Mass Games Secretariat was shut down and the archival records were moved to the Allied Arts Unit (AAU), a subdivi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that promotes youth arts and sports. The director of the AAU, Desirée Wyles-Ogle, was once a dance instructor for the Mass Games and taught young performers in the 1980s. According to her, the AAU had retained more archival materials, but the majority of them were lost during the 2005 floods. These lasted for 24 hours and inundated the first floors of most buildings in Georgetown. Humidity, insects, and the acidity of the adhesive tape that were used to put the broken pieces together again are causing deterioration of the few remaining resources.



1987년 매스게임 카드섹션 도안 1장 〈가이아나의 꽃〉도입부 1986-1987, 종이에 과슈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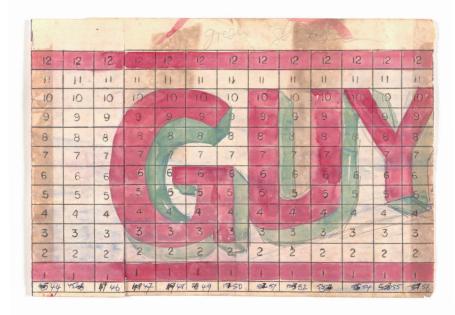
('RS'부터 시계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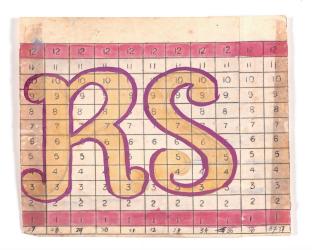
21.5 x 26.1 cm , 21.5 x 14.4 cm, 21.9 x 21.5 cm, 21.9 x 21.5 cm "(FLOWE)RS of Guyana." The first page of Chapter 1., Schematic Painting for the 1987 Mass Games Backdrop 1986-1987, Gouache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Clockwise from "RS") 21.5 x 26.1 cm , 21.5 x 14.4 cm, 21.9 x 21.5 cm, 21.9 x 21.5 cm





Tar Se			4	9:	
		1	4		
12	12	12	12	12	12
11	11	11	117,	11	11
10	10	10	12	10	10
9	9	9	P	9	9
8	8	13/	8	8	8
7/	1	17/	7.	7	7-
6	9	1/6/	.6	6	6
5	5	5	5	5	5
4	4	#	4	4	4
3	3	3	3	3.	3
2	2	2	2	2	2
不	1	1	1	1	1
3938	₩39	40 40	* 41	43 42	42ab

								A ST			ed.			
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1	110	11	11	11	1.1	511	11.		11	11	11	11	11	
0	10	10	10	40	10	10	18/1	10	10	10	10	10	10	
9/	9	9.	9	9	9	9/	9		9	9	9.	9	9	
3	8	8	8	8	8	8/	8		8	8	8	8	8	
7	7	7	7	7	7	11		17	7	RED	7	7	7	
64	16	6	6_	6	6	181	6	187	6	6	6	6	6	
5	5	5.	5	5	5	5	5	5	5	5	5	5	5	
7	4	4	-4	4	4	4	4	4	4	200	4	4	4	
3	3	3	3	3	. 3	3	3	3	3	3	3	3	3	
2	2	2	2	5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1	1	1	9	T	
857	39 58	60=59	6460	6261	63 62	6463	68 64	665	6766	67.			1	

컬 러 필 름 사 진 작 가 미 상 1 9 8 0 - 1 9 9 0 년 제 작

매스게임 사무국은 매년 매스게임 전경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나 사진 작가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진이 홍수로 유실되었고 남아있는 사진들 중 상당수가 고온다습한 아마존 기후 때문에 부식되고 있다. Allied Arts Unit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은 북한에서 방문한 매스게임 전문가들, 카드섹션으로 펼쳐진 배경과 운동장의 공연자들, 공연하는 학생들의 의상과 연령대, 참여한 가이아나 아티스트들과 관계자들, 그들의 준비과정 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PHOTOGRAPHIC FILM PRINT, COLOUR PHOTOGRAPHER UNKNOWN 1980-1990

The Mass Games Secretariat took photographs of Mass Games each year. The photographer's name is unknown, and the majority of the prints and the negatives were lost due to the 2005 floods. These photographs capture various moments of the Guyanese Mass Games, from 1980 to 1992, including performers in rehearsal: spectators: two presidents of Guyana, Forbes Burnham and Desmond Hoyte: and North Korean artists in Guyana.

013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들과 가이아나 매스게임 행정담당자 아돌푸스 수카이(중앙)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1980년 혹은 1983년으로 추정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Korean artists with Adolphus Sukhai, Mass Game Administrator of Guyana Photographic print, colour c. 1980 or 1983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사진의 붉은 채도, 변색도, 뒷면에 파란 펜으로 쓴 손글씨가 보관된 다른 1983년 사진들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어 1983년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매스게임 교사들은 가이아나 국가 상징이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있다. 김일난 예술감독, 통역자, 미술교사, 무용교사를 포함한 일곱명의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 팀은 1979년 7월에 처음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당시 가이아나 수상이었던 번함에 의해 국빈으로 초대된 그들은 두달간에 걸친 가이아나의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바로 매스게임 기술전수에 착수했다. 1980년 가이아나의 첫 매스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돌아간 후. 1983년 북한의 매스게임 전문가 팀은 가이아나를 다시 방문하였다. 가이아나의 매스게임 아트 디렉터 조지 사이먼은 그들과 함께한 작업 중 지금까지 기억나는 말은 '그래그래 갑시다' 라고 하였다. 아티스트 필버트 가자다르와 무용교사 데지레 와일즈 오글은 거대한 스케일의 일을 짧은 시간에 해내는 북한 팀의 효율성과 작업 속도는 당시 가이아나인들에게 상당한 놀라움과 가르침을 선사했다고 했다.

The date of this photo is presumed to be 1983, as it has the same reddish hue and the same handwriting on the reverse as other photographs of the 1983 Mass Games. In the picture, North Korean instructors appear in T-shirts imprinted with the national emblem of Guyana. Seven members of the North Korean team, including the art director, an interpreter, painting instructors, and dance instructors, arrived in Guyana in July 1979. They undertook two months of training to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Guyana and then taught the Guyanese artists and instructors how to stage the same kind of Mass Games already being performed in North Korea. Having successfully staged the inaugural Guyanese Mass Games in 1980. the Korean instructors returned to North Korea. They revisited Guvana in 1983 with new members. In an interview with Vicki S. Kwon, George Simon recalled the Korean phrase "kuri kuri kapsida" (tr. yes, yes, go ahead). He said that the speedy work process and the efficiency of "my Korean friends" were very impressive. Dance instructor Desirée Wyles-Ogle also recalled that their speed and efficiency in creating such a mega-scale work in such a short time was a shocking vet great learning experience.

1980년 매스게임 퍼포먼스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0 Mass Games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카드섹션중인 공연자들 위로 "TOGETHER FUTURE 10 YEARS"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다. 가이아나 협동공화국의 개국 10주년 기념행사로 시작된 매스게임은 1980년부터 12년간 매년 개최되었다.

A banner that reads "TOGETHER FUTURE 10 YEARS" is a clue to the date of this picture. The Guyanese Mass Games were initiated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in 1980, and were continued for 12 years to celebrate Guyana's National Day.

015 1983년 매스게임 리허설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Rehearsal for the 1983 Mass Games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카드섹션을 담당하는 학생들이 착석하여 카드섹션 책을 점검하고 있다. 무대 앞으로는 세레모니에 선보일 차량과 오토바이가 리허설 중이다. Performers are taking their seats and preparing their books for the card section. In front of them, automobiles for the president's march are also in rehearsal.

1984년 매스게임 대통령 입장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5 x 8.8 cm

The President of Guyana appears in the 1984 Mass Games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12.5 x 8.8 cm



017 매스게임 전경 "우리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자" 1983,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3 Mass Games "FEED CLOTHE HOUSE OURSELVES" 1983,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연습중인 매스게임 지도 교사들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1 x 15.1 cm

Mass Games Instructors in Rehearsal Date unknown,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10.1 x 15.1 cm





가이아나 매스게임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공연처럼 보이지만 성인교사들의 숨은 공헌도 컸다. 다음해 국가기념일 2월 23일경에 열릴 매스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각 지역의 예술, 무용 교사들이 수도 조지타운의 사범학교에 모여 안무를 연습했다. 교사들은 다음해 1월부터 학생들과 각 학교에서 집중 훈련을 하고, 2월 중순에 학생들과 함께 조지타운에 와서 다른 학교들과 단체연습을 했다. 가운데에 있는 남성은 퍼포먼스 디렉터로, 안무를 짜고 지역학교 교사들에게 안무를 가르쳤다. Not only young students but also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Mass Games. Each year in October, teachers across Guyana gathered at the teachers college in Georgetown to create and practice the dance performance. Starting in January of the next year, they taught students in local schools. This continued into February, when the teachers and students gathered at the National Park in Georgetown for the collaborative rehearsal.





대통령과 공연자 1985-1992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The President and a Performer c. 1985-1992,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데스몬드 호이트 당시 대통령(가운데)과 퍼포먼스 대표자(오른쪽). 1985년 포브스 번함이 죽은 후 같은 당의 데스몬드 호이트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았다. 번함이 대통령이던 1980-1985년까지 그는 부통령이었다.

각 매스게임마다 마지막장은 대통령과 당을 찬양하는 주제로 막을 내린다. 대통령과 악수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세레모니는 행사 후 항상 개최되었는데, 당시 최고 공연자 중 한 명 욜란다 마샬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해 가장 뛰어난 공연자 한 명 만이 갖는 영광스러운 기회였다고 한다.



The grey-haired man in the middle is Desmond Hoyte, the then-president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When Forbes Burnham died in 1985, Hoyte, who had been vice-president since 1980, took over the post of president. Each year the Mass Games ended with a chapter praising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NC party. Then, the president and a representative of the young performers kissed each other's cheeks. Yolanda Marshall, who was a leading performer of the Mass Games, said that it was an honoured opportunity only allowed to the top performer of the year.



020 매스게임 공연자들 단체사진 1985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Group Photo of Mass Games Performers c. 1985,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021 관람객석 1985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Viewers of the Mass Games c. 1985,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022 연주자석의 악기들1985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Musical Instruments c. 1985,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023 지휘자들

1985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Conductors

c. 1985,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024 매스게임 전경 1987,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7 Mass Games 1987,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025 매스게임 전경 1987,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7 Mass Games 1987,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매스게임 전경 1987,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7 Mass Games 1987,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1987년 매스게임 〈우리의 아름다운 휴양지〉중 한 장면으로 추정된다. 카드섹션 에는 리조트 해변가 모래사장과 바다가 펼쳐져있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위대한 희생을 치뤘다. 우리는 자주의 덕목을 실천했다"고 쓰여 있다.

This photo is presumed to be from the 1987 Mass Games, from a chapter titled "Our Beautiful Resorts." The card section beautifully renders a scenic landscape of sandy beach and blue sea. Above the backdrop stage, an unfurled banner reads: "WE HAVE **WORKED HARD. WE HAVE** MADE GREAT SACRIFICES. WE HAVE PRACTISED THE VIRTUES OF SELF-**RELIANCE.**"

027 매스게임 전경 1987,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7 Mass Games 1987,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028 매스게임 공연자들 1989,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Performers of the 1989 Mass Games 1989,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029 매스게임 전경 1989,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89 Mass Games 1989,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매스게임 전경 1990,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A View of the 1990 Mass Games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1990년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주제는 '무지개(The Rainbow)'였다. 그 해의 신문기사는 지난 10년간의 매스게임 중 가장 색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전한다.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카드섹션에는 레미콘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해변에 방둑을 공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매스게임은 종종 댐 건설, 교량, 병원 등 국가가 주도한 치수사업과 여러 공사를 자랑스러운 나라의 발전과정으로 보여주곤 한다. 그 앞에 운동장에서는 색색의 천과 깃발이 등장하는 공연이 한창이다. 바닥의 흰색 표시는 공연자들의 대열 유지를 위해 그려졌다. 카드섹션과 운동장 사이의 배너에는 "가이아나 협동공화국의 20주년 기념"이라는 글귀가 길게 펼쳐져있다.

The theme of the 1990 Mass Games was "The Rainbow." Newspaper articles reported that the 1990 event was the most colourful, splendid, and beautiful. In the picture, the backdrop represents the construction of a dam. Such hydraulic construction sites often appeared in the Guyanese Mass Games as a representation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White lines and dots were painted onto the stadium grounds to help the performers stay in line. The card section backdrop and the banner present the phras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031 매스게임 공연자들과 지도교사들 1990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Performers and Instructors of the Mass Games

c. 1990,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032 매스게임 공연자들 1990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Performers of the Mass Games c. 1990,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033 매스게임 공연자들 1990,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Performers of the 1990 Mass Games 1990,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같은 디자인의 부채와 유니폼이 1990년 매스게임 안무도식에도 나타난다. The same design of the props (fans) and the uniforms appear in the 1990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034 세 명의 여학생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1 x 15.1 cm

Three Female Students Date unknown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10.1 x 15.1 cm





035 교복차림의 학생들과 교사들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1 x 15.1 cm

Students in School Uniforms and Teachers Date unknown,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10.1 x 15.1 cm



036 다섯명의 가이아나 매스게임 지도교사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Five Guyanese Mass Games Instructors Date Unknown,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037 어린이 매스게임 공연자들 단체사진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Mass Games Performers Photographic print, colour Date unknown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8.8 x 12.5 cm



가이아나 매스게임에는 유치부부터 대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 사진을 통해 어린이 공연자들이 다양한 유니폼을 선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의상은 공연자들 뒤에 그려진 가이아나 국기처럼 노란색, 붉은색, 청록색이 주를 이룬다. From nursery school age to university age, Guyanese youth participated in the Mass Games. This photo demonstrates various costumes worn by the performers. The colours of the uniforms are yellow, gold, and green, like the colours of the national flag of Guyana.

038 세 명의 아이들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Three Children Date Unknown,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대통령 데스몬드 호이트와 악수하는 조지 사이먼 연도미상,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8 x 12.5 cm

President Desmond Hoyte and George Simon Date Unknown,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040 바구니 퍼포먼스 공연자 1990 추정, 필름 사진 컬러 프린트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5 x 8.8 cm

Performer Holding a Basket c. 1990, Photographic print, colou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12.5 x 8.8 cm



1990년 2월 25일 가이아나 크로니클에 개제된 기사에 따르면 제2장 〈푸른 들판〉은 이 해의 매스게임에서 가장 대규모의 장으로 440명의 공연자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무명의 기자는 "눈을 사로잡는 금빛과 녹색의 원주민 두건과 앞치마를 입은 가이아나 소녀들이 가이아나 포크송과 중미 전역에서 연주되는 칼립소 음악에 따라 몸을 위아래로 튕기고 바구니를 돌렸다"라고 전했다. 사진의 소녀는 카드섹션 무대 앞에 서 있는 그 해의 〈푸른 들판〉 공연자로 보인다.

An article published in the Guyana Chronicle on February 25, 1990, reports that Chapter 2, "Greenfields," of the 1990 Mass Games was the biggest chapter, involving 440 performers. It says that 220 boys performing gymnastics symbolized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achieve economic prosperity for the nation. Another article describes how performers were swinging baskets and bouncing their bodies to calypso music—Caribbean music that is played in Guyana and neighbouring countries.

흑 백 사 진 1 9 8 3 -1 9 8 9

가이아나 크로니클에는 12점의 흑백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르코미술관 전시에서는 가이아나 크로니클에 보관중이던 인화된 필름사진을 고화질로 스캔한 후 인화한 출력본을 전시하였다. 가이아나 크로니클의 디렉터와 에디터의 허가하에 스캔 및 출력되었다. 원본의 다수는 니콜라스 노빌이 촬영했는데, 그는 공연자들을 클로즈업한 사진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 카메라를 바라본 순간을 포착했다. 한편 이 흑백사진들은 표준 규격의 사이즈가 아닌 제각각 다른 사이즈로 인화되어있다.

PHOTOGRAPHIC PRINTS

(BLACK-AND-WHITE)

1 9 8 <u>3 –</u>

1989

The original copies of these photos were stored in the office of a senior editor of the Guyana Chronicle newspaper. The exhibition displayed replicas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Guyana Chronicle.

Nicholas Norville, a photographer with the Guyana Chronicle, captured the moments in which at least one performer is looking at the camera. These black-and-white photographs were originally printed in a nonstandard size.

041 1987 매스게임 전경 제 1장 ⟨가이아나의 꽃⟩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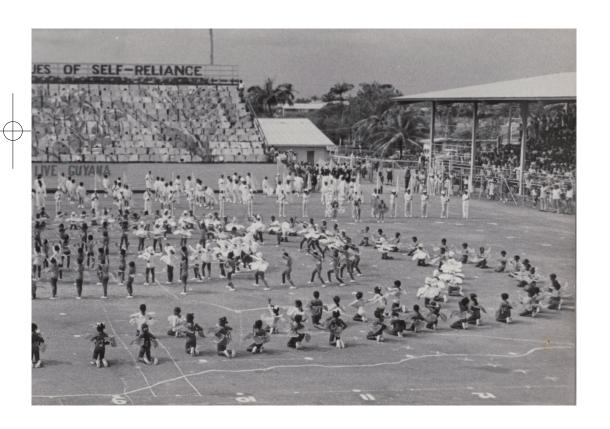
원본 사이즈 10.41 x 25.4 cm

A Panoramic View of the 1987 Mass Games Chapter 1. "The Flowers of Guyana"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0.41 x 25.4 cm



제1장 '가이아나의 꽃'의 한 장면이다. 카드섹션으로 헬리코니아를 비롯한 열대화가 펼쳐져있고, 운동장에는 공연자들이 등에 나비모양 장식을 달고 원형의 꽃 모양으로 대열을 형성하고 있다. 공연자들이 만든 꽃 형상 근처에 꽃을 향해 다가오는 나비처럼 나비의 날개를 등에 단 공연자들이 서 있다. 1987년 매스게임의 주제는 '오, 아름다운 가이아나!' 였고 꽃과 동물, 아름다운 아마존 밀림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The theme of the 1987 Mass Games was "Oh Beautiful Guyana!" and they featured Amazonian animals and flowers. This photograph is from Chapter 1, "Flowers of Guyana." Standing or sitting, the performers are forming a huge flowery shape. Performers with butterfly wings on their backs are approaching the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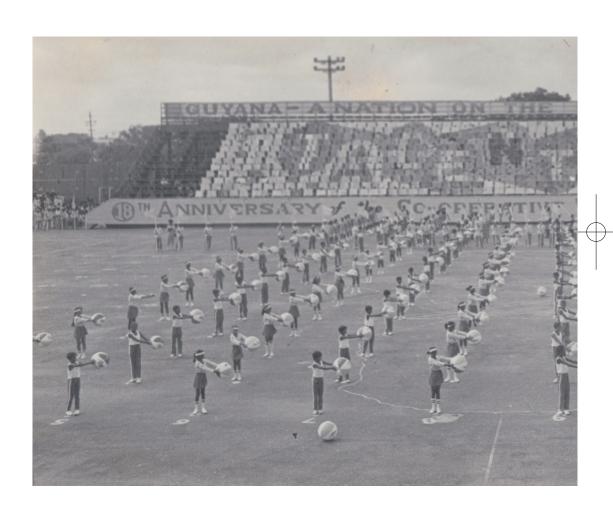
공 안무, 1987 매스게임 전경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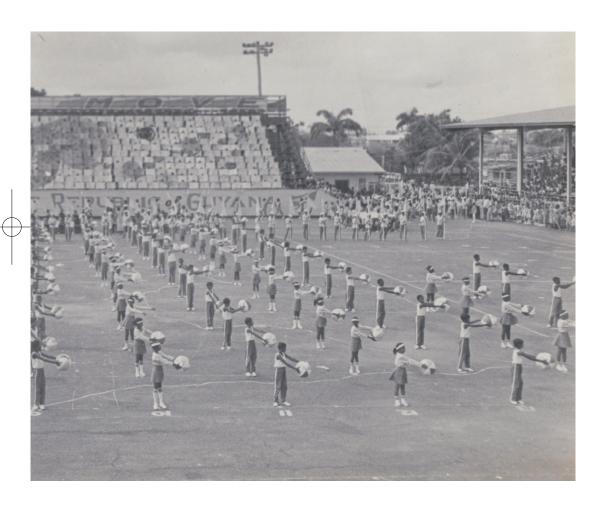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원본 사이즈 10.67 x 24.13 cm



A Panoramic View of the 1987 Mass Games, Ball Performance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0.67 x 24.13 cm



043 1988 매스게임 전경 "시민불복종"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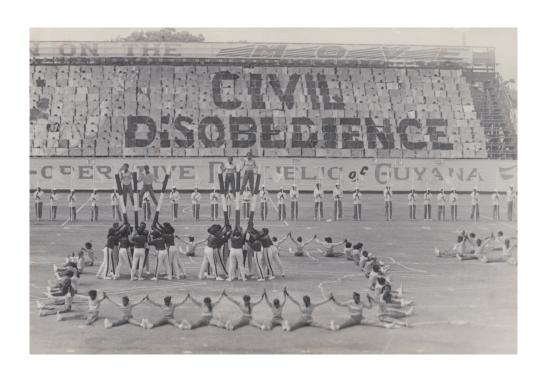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권성연

원본 사이즈 22.4 x 15.24 cm

"Civil Disobedience" A View of the 1988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22.4 x 15.24 cm



가이아나 매스게임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가이아나의 역사, 문화를 교육하는 의미가 컸다. 사진 속 매스게임은 1953년에 벌어진 시민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을 가르치는 장면이다. 1953년은 영국령 가이아나에서 성인투표권이 실시된 첫 해이다. 이해 총선에서 가이아나인들이 설립한 사회주의적인 친독립파 국민진보당(People's Progress Party)이 승리하자 영국계 엘리트 정치인으로 구성된 친영정부를 세우려던 영국은 국민진보당의 정권확립을 방해하기 위해 친영 임시정부를 세웠다. 당시 가장 명망있던 인도계 가이아나인 지도자 체디 자간(Cheddi Jagan)은 이에 항거하여 '시민불복종운동'을 주도하다 6개월간 수감된다. 자간과 함께 국민진보당을 이끌어가던 포브스 번함(Linden Forbes Sampson Burnham)은 아프로-가이아나인들 위주로 분파한 국민회의당(People's National Congress)을 창당한다. 이 시기 번함은 한 연설에서 "군중은 어떠한 방식의 저항이든 우리를 지지하게 되어있다"라고 했다. 이 시기부터 인도-가이아나와 아프로-가이아나 인종간 갈등이 정치 당파간 대립으로 고착화되었다.

사진 속 공연자들은 다리에 연결된 장대에 올라가 있는데, 이는 '장대 인간(Stilt Man)'이라 불리는 장대걷기로 가이아나의 학생들이 즐겨 경연하던 스포츠이다. 비슷한 장면이 70년대 서울전국체전에서 선보인 '사람 층 쌓기'로 연출되기도 하였다.

The Guyanese Mass Games were meant to be educational for students, so they could learn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Guyana. The particular backdrop in this photograph of the 1988 Mass Games, with the phrase "Civil Disobedience," teaches young performers and viewers about the Civil Disobedience, an event of Guyana's independence movement. In 1953, the People's Progressive Party (PPP), the first Guyanese political party, formed by Cheddi Jagan and Forbes Burnham, won the first general election held under universal adult suffrage, taking over power from the British elites. Then the British government suspended the constitution and established an interim government. As a resistance to this interim government, Jagan, who was the most influential politician of Indian origin, launched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resulting in his imprisonment for 6 months in 1954. During this time, Burnham launched a new party, the People's National Congress (PNC), with his Afro-Guyanese fraction. At this time, Burnham made his famous speech: "The masses are prepared to support us whatever line of resistance we propose to take." From this point onward, the ethnic separation of the Indo-Guyanese and the Afro-Guyanese populations came to be equated with the political separation of the Indo-Guyanese-dominant PPP and the Afro-Guyanese-dominant P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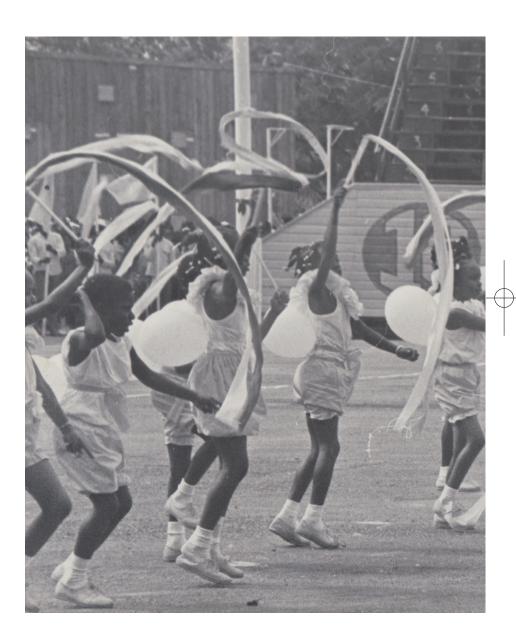
In this photograph, performers are standing upright on long poles that are supported by other performers. This is a youth sport called stilt man, which Guyanese youth play in competition. A similar performance was executed in the 1970s National Youth Sports Meets in South Korea.

044 1988 매스게임 공연사진 리본안무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원본 사이즈 12.19 x 20.32 cm



Ribbon Performance, 1988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2.19 x 20.32 cm



045 버로우 예술학교, 1988년 매스게임 전경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원본 사이즈 10.4 x 25.4 cm



Burrowes School of Art, A Panoramic View of the 1988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0.4 x 25.4 cm



1988년 매스게임 중 마더 샐리(Mother Sally)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권성연

원본 사이즈 19.05 x 25.4 cm

Mother Sally Performance in the 1998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9.05 x 25.4 cm



이 사진은 가이아나 기존의 가면극 페스티벌 마슈라마니가 매스게임에도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마슈라마니로 불리는 가면극은 가이아나 공화국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1970년 처음 행해진 일종의 카니발 축제로서, 원주민 언어로 "열심히 일한 후의 축제"라는 뜻이다. 매스게임의 코스튬 유니폼을 만드는데 마슈라마니 코스튬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와 공연자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88년 매스게임에서는 마더 샐리가 단체로 등장한다. 마더 샐리(Mother Sally 혹은 Muddah Sally)는 보통 남성 공연자가 과장된 여성분장을 하고 나타나 다리에 연결된 장대 위를 걸으며 다산을 기원하는 코스튬 밴드의 하나다.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요루바족의 젤레드(Gelede) 전통 주술의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나귀인(The Donkey Man), 덥수룩한 곰(The Shaggy Bear), 장대걷기(The Stilt Man)와 더불어 마슈라마니에서 가장 흔하게 공연되곤 한다. 이들은 바바도스 음악 축제에도 나타난다. The photo demonstrates how the Guyanese Mass Games incorporated local culture, especially Mashramani-Guyana's own Caribbean-style carnival, whose Amerindian name translates as "the celebration after hard work." Mashramani is often considered traditional; however, it is a relatively modern creation initiated only in 1970, for a celebration of the republic day. The performers and designers of Mashramani were the artists and instructors of the Guyanese Mass Games. Mashramani costumes and performances therefore appeared in the later years of the Mass Games.

This photo shows Mother Sally, also known as Sally's Mother or Muddah Sally—a costumed band of performers featured as part of Mashramani-during the 1988 Mass Games. The origin of Mother Sally is unclear, but it is presumed to relate to a fertility ritual of the Yoruba, in either Nigeria or Ghana. In the performance, male performers walk around on long poles tied to their legs, wearing an elongated and exaggeratedly maternal dress that covers both their legs and the poles. They also wear a bandana. Mother Sally is one of the common themes of Mashramani, along with Donkey Man, Shaggy Bear, and Stilt Man. These costumed characters also appear in Barbadian music ensembles.

어린이 공연자, 1989 매스게임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원본 사이즈 18.28 x 12.7 cm

Young Girl Performing in the 1989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8.28 x 12.7 cm



가이아나 크로니클은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89년의 매스게임은 대통령과 어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들에게 강요된 가짜 미소가 아닌,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표현과 동료애를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라고 평했다. 매스게임에 대해 강요된 공연과 훈련이었고 모두가 싫어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참여했던 공연자들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즐겼으며 스스로 자랑스러운 기억었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This picture of a little girl dancing with a joyful expression on her face accompanied an article in the Guyana Chronicle. The journalist, Dennis Nichols, states in the article, "[i]t must have been something of a shock for the people who expected to see 'little automations' vainly forcing plastic smiles for the benefit of the President and other officials." The article praises "the spontaneity of expression and camaraderie that could not be manufactured, regardless of threats or browbeating." As noted in the article, some Guyanese remember the Mass Games as an event forced onto them, whereas some remember it as an exciting event and were proud to be part of the national celebration.

소품 도구를 들고 있는 공연자들, 1989 매스게임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원본 사이즈 17.7 x 26 cm Boys Holding a Prop, 1989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7.7 x 26 cm



049 수술을 든 공연자들, 1989 매스게임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권성연

원본 사이즈 17.7 x 25.4 cm

Performers holding cheerleading poms, 1989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7.7 x 25.4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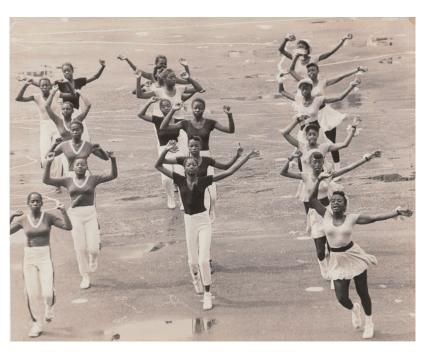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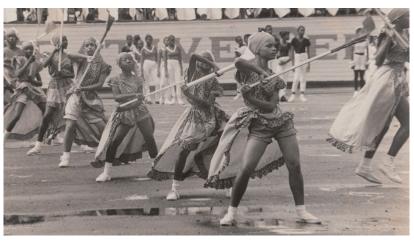
여성공연자들, 1989 매스게임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원본 사이즈 18 x 22.4 cm

Female Performers, 1989 Mass Games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8 x 22.4 cm





깃발 무용을 펼치는 공연자들, 1989 매스게임 (왼쪽 아래)

니콜라스 노빌, 흑백필름사진

원본 소장처 :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권성연 원본 사이즈 14.1 x 24.5 cm Performers holding a long stick with a flag, 1989 Mass Games (Left Below) Nicholas Norville Photographic print, B&W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Original Dimension 14.1 x 24.5 cm

깃발이 달린 긴 장대를 들고 공연하는 여성 공연자들의 모습으로 도트무늬의 상의와 뒷면만 치마로 이어지는 독특한 유니폼과 머리의 두건이 인상적이다. 1989년 매스게임 기사는 소나기가 와서 여러차례 공연이 멈추었지만 물웅덩이에 굴하지 않고 공연을 마친 공연자들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사진속의 빗물이 아직 고여있는 운동장에서 흰 운동화와 양말을 신고 공연하는 공연자들의 표정은 여유로워보이기까지 하다.

가이아나 매스게임의 공연자들은 북한의 매스게임 같은 기계적인 군무까지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몸의 움직임과 도구의 각도는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이를 크게 문제삼지도 않는다. 이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을 더 중시하는 가이아나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다. 마슈라마니 페스티벌에서도 공연은 참여자들이 단체로 걷고 춤추는 행진의 형태로 좀 더 여유롭게 이루어진다. In this picture, female performers are holding a long stick and wearing polkadot skirts and bandanas. Newspaper articles reporting on the 1989 Mass Games complimented the performers for completing the event despite the showers that interrupted the performance and left behind puddles. The performers in the picture do not seem to be annoyed by the puddles.

The young performers of the Guyanese Mass Games did not exhibit perfectly synchronized movements, in contrast to the mechanistic and sophisticated movements of the North Korean Arirang Games performers. Regardless, they were thrilled and excited to be participating in the event. Perfection was probably not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for the Guyanese. Sometimes students turned the wrong page, creating a flaw in the card section. Some did it by mistake: others, however, did it on purpose to resist the Mass Games forced onto them.

"1983 매스게임 전경" 1983, 사진 스크랩(사진 앨범에 붙여진 컬러 필름 사진) 아티스트 필버트 가자다르 개인소장

필버트 가자다르 소장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진 8.8 x 12.5 cm 종이 18.2 x 27.5 cm "1983 Mass Games Display"
A Panoramic View of the 1983 Mass Games
Photographic print in a photo album
Personal Collection of Artist
Philbert Gajadhar

Repository: Philbert Gajadhar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Photographic print 8.8 x 12.5 cm Album paper 18.2 x 27.5 cm

전시된 사진은 아티스트 필버트 가자다르의 개인소장품이다. (가자다르 소개는 도록 180쪽 참조) 본인이 소장한 사진 스크랩 앨범 중 매스게임 전경 사진을 칼로 잘라 전시를 위해 빌려주었다. 사진 아래 글, "Mass Games Display"와 아래 페이지 수 "24"는 그의 친필이다.

사진을 살펴 보면 공연중인 국립공원 위로 하늘에 구름이 껴있다. 거의 매년 매스게임 보도자료에는 소나기가 와서 잠시 매스게임이 중단되었다거나, 카드섹션 책이 젖어서 학생들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데 곤혹을 치르었다거나. 물웅덩이가 고였어도 어린이 퍼포머들이 굴하지 않고 멋진 공연을 하였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아마존 내륙 기후상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곤 하는 가이아나의 야외공원에서 날씨는 가장 큰 도전이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늘 하나 없이 폭염 속에서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자녀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컸다. 가자다르의 사진 속 국립공원 운동장의 바닥이 젖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한차례 소나기가 온 후 걷힌 하늘 아래서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 듯 하다.

The displayed photograph is a page from the artist Philbert Gajadhar's personal photo album. He cut the page from his album and lent it for the exhibition. In the picture, Mass Games are being performed under a cloudy sky. Almost every year, newspaper articles reported that heavy rains interrupted the performance. Water soaked the books for the card-section backdrops and hampered the performers as they tried to turn the pages. Weather was a big challenge for the Guyanese Mass Games. Parents we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health, as they had to practice in very humid conditions, under the sizzling sun. The picture seems to capture a moment when the Mass Games resumed after a rainfall, as puddles remain on the ground.



매 스 게 임 사 진 앨 범

가이아나 매스게임 사무국은 각 해의 매스게임을 기록하기 위해 공연 전경 사진과 카드섹션 도안 축소본을 담은 앨범을 매년 제작하였다. 현재 앨범들은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에 보관되어 있다. 현존하는 네 권의 앨범 가운데 가장 내용 구성이 좋은 1986년도 앨범을 대여하여 원본을 전시하였고, 나머지는 현지 사진촬영 후 인화하였다. 환영장에서 시작해 1장부터 7장을 지나 피날레에 이르는 구성, 가이아나 대통령에 대한 헌정은 북한의 아리랑 게임과 비슷하지만, 각 장의 주제는 가이아나에 토착화되었다. 1980년 초반에는 특정한 주제 없이 공연되다가 1985년 부터는 매해 다른 주제로 매스게임이 개최된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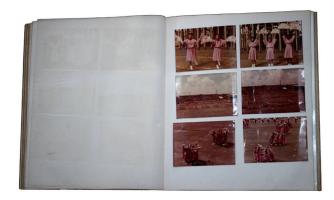
MASS GAMES PHOTO ALBUM

Each year, the Mass Games Secretariat produced a commemorative photo album. The album shown here contains gluedin miniatures of the backdrop designs and photos of the games as they are being performed. It is organized sequentially: starting with an introduction, then presenting visuals of chapters 1 to 7 and, eventually, the finale. These photo albums are the only remaining visual resources that allow us to trace the storyline of each year's Guyanese Mass Games. The displayed original is a photo album of the 1986 games, which highlighted the identity and culture of Guyana.

1984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부채춤을 추는 공연자들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권성연 38 x 31.5 cm Performers holding fans, From the 1984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1984년 매스게임 사진앨범

부채춤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창작무용이다.
한국에서는 김백봉이 창작하여 스승 최승희에게
시범을 보인것으로 알려져있고, 북한에서는
최승희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부채를 도구로 사용하는 무용이 있다. 1984년도
가이아나의 매스게임에서는 북한 무용수들이 전수해준 것으로 보이는 부채를 이용한 단체안무가 돋보인다. 당시 안무 지도교사였던 데지레 오글에 의하면 북한 예술가들은 1980년과 1983년도 가이아나를 방문한 후 다시 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전수한 안무를 가이아나 안무가와 교사들이 응용하여 그 이후의 공연에 활용하였다고 한다.

The 1984 Mass Games Photo Album

The Guyanese Mass Games imported the Korean fan dance. Performing artist Kim Baek-Bong claims that she created the dance and demonstrated it to her teacher, Choi Seung-hee, in Pyongyang in the 1950s, before Kim moved to the South. In North Korea, Choi is known as the creator of the fan dance. Meanwhile, dances using a fan as a prop are also performed in China, Japan, and elsewhere in East Asia. Archive resources from the 1984 Mass Games reveal that the Guyanese Mass Games featured a fan dance taught by North Korean dancers. Desirée Wyles-Ogle, who was the dance instructor of the Guyanese Mass Games at the time, said that North Korean instructors came twice, in 1980 and 1983, and that Guyanese artists continued to use the North Korean choreography while also creating their own.

054 1984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군중의 투쟁으로부터"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처: Guyana Chronicle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Out of People's Struggle," From the 1984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55

1984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권성연 38 x 31.5 cm

From the 1984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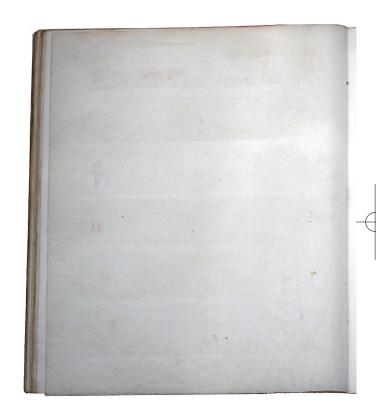
38 x 31.5 cm



056 1984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우리가 국가의 틀을 만든다"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매스게임 사무국은 카드섹션의 축소본과 그 장면이 연출된 공연 전경 사진을 사진앨범 한 장에 붙여서 매해 공연을 기록하였으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장면은 이렇게 카드섹션 도안의 축소본만 남겨두었다. 오랫동안 서구의 지배를 겪은 가이아나에게 매스게임은 일종의 국가 브랜드를 건설하기 위한 스펙터클이었다. 다민족과 분열, 영국식 문화 합병으로 인해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던 가이아나에게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과 문화적 이미지, 그리고 슬로건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스게임이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가 국가의 틀을 만든다"는 슬로건은 번함의 연설문 모음집의 제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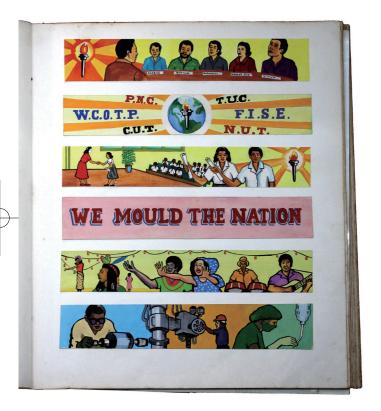


"We Mould the Nation," From the 1984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The Mass Games Secretariat recorded each year's Mass Games in a photo album: however, some pages of the photo albums are missing either photographs or the miniatures of the backdrop designs. This page has six miniatures of the backdrop designs, but it is lacking the photograph of them displayed during the Mass Games. These miniatures of the backdrops show the slogans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Guyana at the time was experiencing a lack of national symbol or identity as an independent nation. Three hundred years of European colonization and the British cultural assimilation policy had left Guyana an unstable country, with ethnic and territorial divisions. The Mass Games contributed to creating a national brand and a national visual identity, through symbolic images and slogans. One of the slogans, "We mould a nation," was also the title of the Forbes Burnham's book containing his collected speeches.

057 1985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오픈카를 타고 등장하는 대통령 포브스 번함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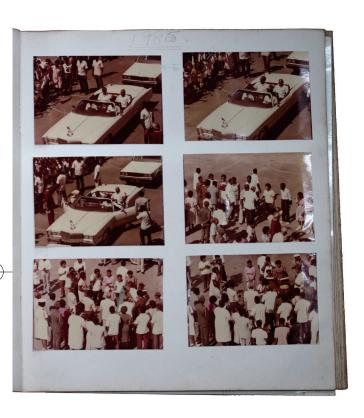
1985 매스게임 사진 앨범

1985 매스게임은 가이아나의 노예해방과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하고,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실천을 위해 젊은이들의 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노예해방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순교자를 기리는 조형물과, 1953년 성인 참정권 운동, 1976년 여러 가이아나인들이 희생된 쿠바의 비행기 참사 등 굵직한 근현대사의 이벤트를 카드섹션으로 보여준다. 후반부에는 '우리의 스포츠,' '우리의 시각예술, 공연예술'이라는 섹션도 등장하고, 한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어 교육에 힘썼던 당시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Forbes Burnham, the President of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appears in the Mass Games,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The 1985 Mass Games featured the history of the Guyanese slave revolts and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y emphasized the role of youths in establishing anti-imperialism and anticolonialism movements. That year's card sections showed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Guyana, such as the statue of the martyr (Coffy, the

Guyanese hero of the 1763 slave revolt): the implementation of adult suffrage in 1953: and the Cuban aircraft crash in 1976 (which killed many delegates from North Korea and Guyana). The later part of the 1985 games featured chapters titled "Our Sports" and "Our Visual and Performing Arts" and also displayed career options for youth.

058 1985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1763 혁명" (노예해방 운동)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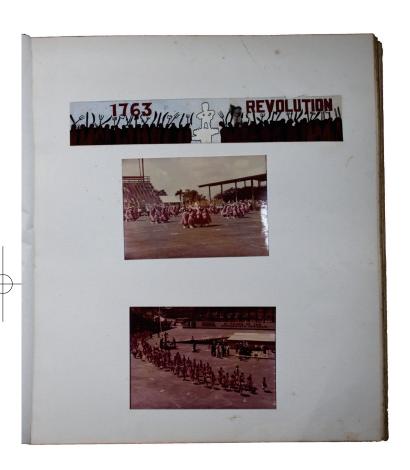
서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 코피 (Coffy 또는 Kofi 또는 Koffi)는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현 가이아나 영토 플랜테이션 농장에 팔려왔다. 1763년 그는 2,500명의 노예들을 규합해 반식민 폭동을 일으켰고 가이아나의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가이아나의 노예제도는 1834년에 철폐되었다. 가이아나 공화국 기념일은 코피의 노예반란 기념일이기도 하다. 카드섹션에 나타난 동상은 수도 조지타운의 혁명광장에 세워진 코피 동상으로 노예해방 기념비이다.

"1763 Revoulution" (Slave Rebellions),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Guyana's national hero Coffy (also spelled as Kofi or Koffi), who was born in West Africa, was taken from his homeland and sold into slavery in the Dutch colony of Berbice, which lay within the territory of present-day Guyana. He led the 1763 revolt of 2,500 slaves who sought emancipation. The card section is a representation of the Coffy statue in Revolution Park in Georgetown, a memorial to the slave uprising.

1985년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1823 1834" (노예해방 운동)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권성연 38 x 31.5 cm "1823 1834" Slavory Abolition
Movement,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1823년 데마라라 반란은 만 여 명의 노예들이 현재 가이아나 영토 데마라라-에세퀴보를 점령한 사건이다. 열악한 처우 개선, 자유, 해방을 외친 노예들의 반란은 나흘만에 진압되었다. 영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노예해방 운동의 하나로 수많은 사상자들을 냈고 교수형된 27명의 시신이 거리에 본보기로 진열되었다. 1834년 8월 1일, 대영제국의 노예제도가 철폐되기까지 가이아나의 노예해방 운동은 계속되었다. The 1823 Demerara slave revolt involved more than 10,000 slaves who occupied Demerara-Essequibo, a territory that lay within the boundaries of present-day Guyana. It was the biggest slave revolt in the British colonies: however, it was suppressed in four days. Among the many killed slaves, 27 had been executed, and their bodies were displayed in public to deter people. Guyana's emancipation movements continued until 1834, when the Emancipation Act was passed.

060 1985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1953 성인참정권"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Adult Suffrage 1953,"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61 1985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제국주의에 투쟁하는 젊은이들"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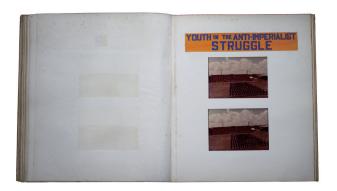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Youth in The Anti-Imperialist Struggle,"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Digital photo: vicki 5.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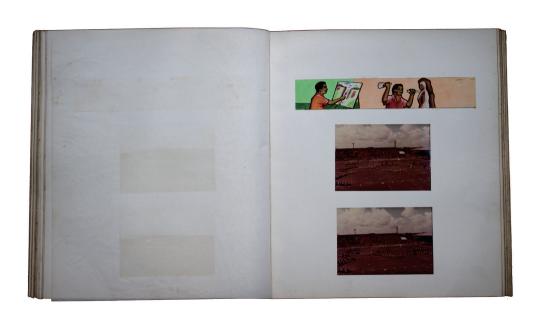
38 x 31.5 cm



1985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시각 공연예술 섹션의 아티스트 작업 장면을 그린 회화도안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권성연 38 x 31.5 cm A Schematic Drawing of Artists in Practice and Two Photos of the View,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1985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자원 수탈"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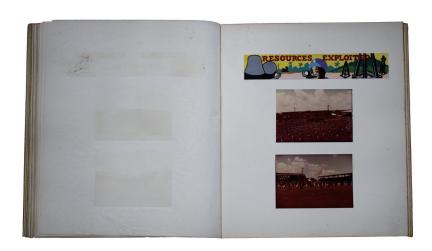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Resources Exploited," from the 1985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1985년도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한 장으로 자원 수탈 장면을 보여준다. 카드섹션에는 식민지 시절 금광 채굴과 목재 수출로 인해 황폐화된 아마존 숲을 배경으로 "RESOURCES EXPLOITED (자원 수탈)"이라는 글귀가 나타난다. 오른편에 있는 구조물은 석유채굴을 위해 건설된 석유시추탑이다. One chapter in the 1985 Mass Games showed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Starting in the 17th century, European colonizers invaded Guyana to mine gold. Later on, timber became the most exploited natural resource, but also the most exported good, generating revenue for the independent Guyana. In the photo album, the phrase "RESOURCES EXPLOITED" appears in an image showing the Amazon rainforest and cut timber. Oil shafts also appear in the right-hand corner.

1986년도 매스게임 사진앨범

북한식 매스게임의 구성과 컨텐츠를 빌려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파간다 메세지를 구현하는 80년대 초기 매스게임과 달리, 80년대 후기 매스게임은 가이아나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1986년도 공연은 영국으로부터의 해방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만큼 평화를 위한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 다민족·다문화성, 군사경쟁 반대 등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 이해의 매스게임에는 처음으로 다민족, 다양성을 강조하는 장이 등장하였다. 가이아나만의 스포츠, 체전, 인종차별 금지 메세지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제6장의 각종 무기와 폭탄 등의 이미지가 북한과 중국의 군사퍼레이드를 연상시키나, 이와 반대로 가이아나 매스게임은 군비확장경쟁을 멈추고 군수비 대신 식량배급비를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편 공업, 화학, 의학, 조류연구, 댐 발전소 등의 산업발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60-70년대 북한 및 한국의 매스게임과 비슷하게 부국강병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Unlike the early 1980s Guyanese
Mass Games, which directly imported
the North Korean Mass Games' theme
and techniques and represented the
Socialist regime's propaganda, the
late 1980s Guyanese Mass Games focused
on presenting Guyanese identity and
culture.

The year 1986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Guyana's independence from the British Empire. The 1986 Mass Games presented messages about the importance of youth education,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demilitarization.

064 1986년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우리의 문화유산〉중 첫 장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8 x 31.5 cm

Chapter 4. "Our Culture Our Heritage," from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8 x 31.5 cm



065 1986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우리의 문화유산〉중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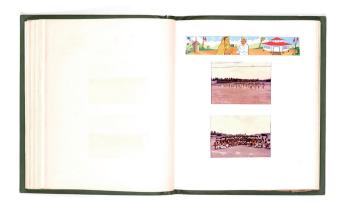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8 x 31.5 cm

From Chapter 4. "Our Culture
Our Heritage," From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8 x 31.5 cm



066 1986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우리의 문화유산〉중 사원에 절하는 이슬람교도들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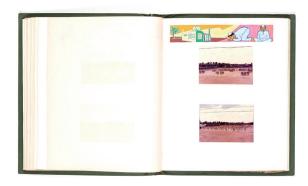
>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8 x 31.5 cm

Muslim practitioners and a mosque, From Chapter 4. "Our Culture Our Heritage," From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8 x 31.5 cm



067 1986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우리의 문화유산〉중 아프로 가이아나인들의 제의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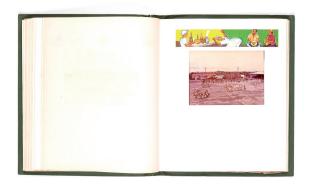
38 x 31.5 cm

A Ritual of Afro-Guyanese, From Chapter 4. "Our Culture Our Heritage," From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8 x 31.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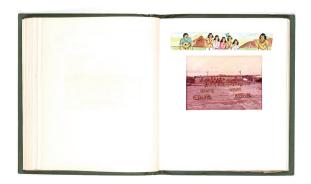
068 1986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 ⟨우리의 문화유산⟩ 중 아메린디언 원주민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8 x 31.5 cm

Amerindians, From Chapter 4. "Our Culture Our Heritage," From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photographic prints and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8 x 31.5 cm



069 1986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 〈우리의 문화유산〉 중 "평화를 통한 문화의 자유" 사진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8 x 31.5 cm

"Cultural Freedom Through Peace," From Chapter 4. "Our Culture Our Heritage," from the 1986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and photographic prints on paper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8 x 31.5 cm



1987년도 매스게임 사진앨범

1987년도 매스게임은 '가이아나, 오 아름다운 가이아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가이아나의 근현대사와 국가건설 메세지가 드러난 전 해 공연들과 달리 1987년 매스게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열대 동식물, 리조트와 카이터 폭포를 포함한 관광지를 그리는데 집중하였다.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The theme of the 1987 Mass Games was "Guyana, Oh Beautiful Guyana!"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year's card sections, which portrayed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Guyana, the card sections of the 1987 Mass Games emphasized Guyana's tropical flowers and fauna, scenic resorts, and tourist attractions, including Kaieteur Falls.

070 1987년 매스게임 사진앨범, 첫 장 "가이아나, 오 아름다운 가이아나!"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Guyana, Oh Beautiful Guyana!" From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71 1987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1장 ‹가이아나의 꽃›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권성연 38 x 31.5 cm

"Chapter 1. Flowers of Guyana," From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72 1987 매스게임 사진앨범, 제4장 〈우리의 야생동물〉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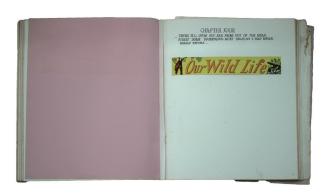
원본 소장: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권성연

38 x 31.5 cm

"Chapter 4, Our Wild Life," From the Photo Album of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73 1987 매스게임 사진앨범, 재규어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Jaguar, From the Photo Album of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74 1987 매스게임 사진앨범, "수경재배 (양식산업)"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Aqua-Culture," From the Photo Album of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075 1987 매스게임 사진앨범 중 회화도안 축소본이 부착된 앨범

원본 소장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8 x 31.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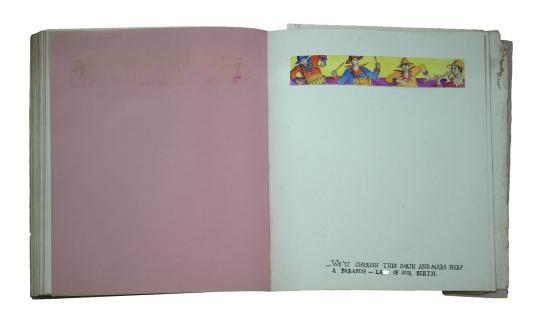
From the 1987 Mass Games Photo Album Photo Album with schematic paintings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8 x 31.5 cm



안 무 도 식 스 케 치 북

안무도식 스케치북은 안무를 담당한 무용교사들에 의해 제작된 책으로 군무, 대열 형태, 유니폼, 도구 등이 도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83년도의 안무도식 스케치북은 네 권(제2장, 3장, 4장, 7장)이 남아있고, 90년의 안무도식 스케치북은 '환영장(Welcome)'과 '축하장(Congratulations)'이 남아있다.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S

Performing arts instructors in Guyana produced these instruction books to illustrate the choreography, group formations, uniforms, and props of the Mass Games. The instruction books that survive are four chapters from 1983 (chapters 2, 3, 4, and 7) and two chapters, of "Welcome" and Congratulations," from 1990. In 1983, Korean instructors left the Korean letters for "Chapter 3" and "Chapter 4" on the first page of each of the respective books.

1983년 매스게임 안무도식 제2장 중 '군중의 투쟁' 부분

스케치북에 펜 제작자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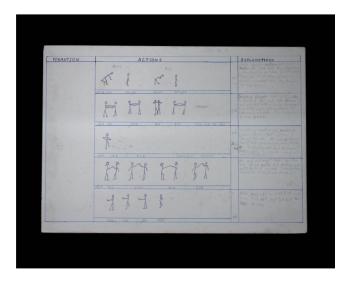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0.5 x 43.5 cm Choreography of "Out of People's Struggle," from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Chapter 2 Pen and pencil on Sketchbook Artist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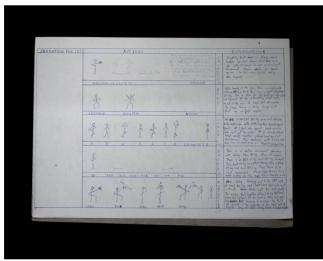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0.5 x 4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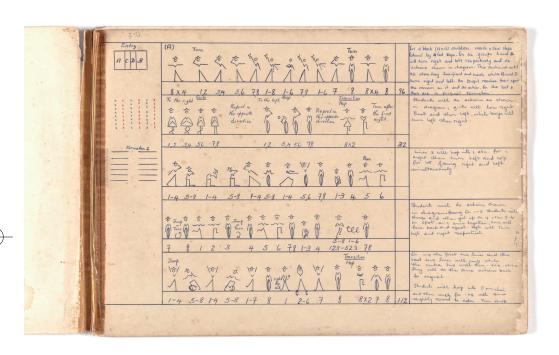




077 1983년 매스게임 안무도식 제3장 중 스케치북에 펜과 연필 제작자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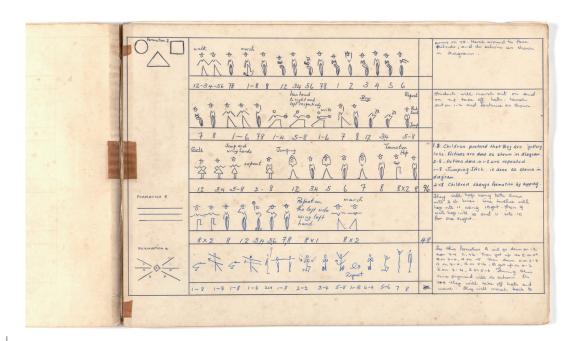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0.5 x 43.5 cm From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Chapter 3 Pen and pencil on Sketchbook Artist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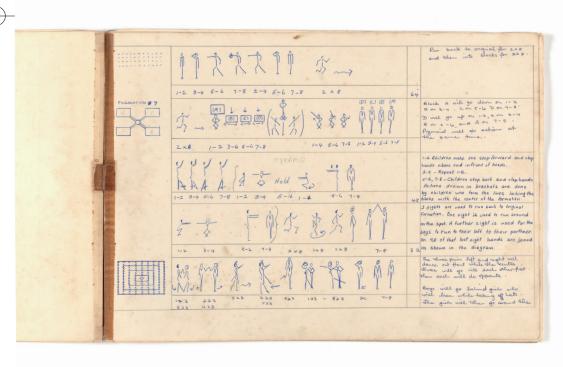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30.5 x 4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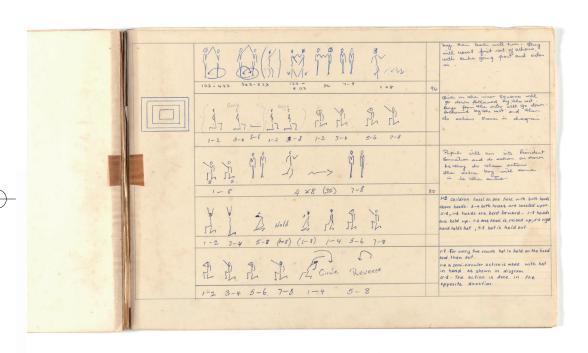


1983년 가이아나를 재방문한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들은 같은 해 매스게임의 안무와 카드섹션 이미지 제작 등에 또 다시 큰 기여를 하였다. 83년 안무도식 제3장 첫 페이지 왼쪽 상단에는 그들 중 누군가가 쓴 듯한 한글 손글씨 "3장"이 보인다. 당시 유치부 안무교사였던 데지레 와일즈-오글(현 Allied Ars Unit 디렉터)은 북한의 안무가였던 두 명의 미세스 김과 함께 작업했다고 회고하였다. 한글로 쓴 메모는 그 두 명의 미세스 김 중 한 명의 글씨로 추정된다.

In 1983, North Korean artists revisited Guyana and contributed to the Mass Games. This image is the first page of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for Chapter 3. Handwritten in the topleft corner is the Korean letter for "Chapter 3." The annotation seems to have been made by a Mrs. Kim, who taught dance and worked with Mrs. Wyles-Ogle.







1983년 매스게임 안무도식 제4장 스케치북에 펜과 연필 제작자 미상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0.5 x 43.5 cm

From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Chapter 4 Pen and pencil on Sketchbook Artist unknown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0.5 x 43.5 cm



제4장 안무도식 스케치북에도 "제4장"이라고 쓰인 한글 손글씨가 보인다.

A similar annotation meaning "Chapter 4" is found on the first page of Chapter 4 of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K 28	ACTIONS	Ex	PLANA TIONS
FORMATION	HC110AS	Pupils	run for four counts, then on the spot for four counts ay get into positions
5 6 7 5 9 10 10 12 15 19	t \$ \$ \$ 5.6.6.6.6.	To entaction will on up for knees	rance formation, queils do simple kelt arm is on him, right arm one down for it clusts that arm four whiler arm goes down are going into a demiplie, arm comes up knoes are comes in publicaries and the conditions to the condition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1 2 3 4 6 6 7 8	when der Correct the same research. A transfer and the locate city of a transfer and the locate city of a transfer and the locate city of a transfer and transfe	
	1224 5678 1 1 1 1	Repils The fire stationa	exists the end of the count, they can are now in ordinary formation, you want of each
	1,2 34 56 78 tun	Arms fo	repeat to left on 7,2, turn right
	1,2 3,4 5,6 7,8 2-6 7-8	arms an	2. arms go at front to reach up. At 3 go aver, arms are at maint, at 36 are according to the control of the con

1983년 매스게임 안무도식 제6장 중 스케치북에 펜과 연필 제작자 미상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30.5 x 43.5 cm

From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Chapter 6 Pen and pencil on Sketchbook Artist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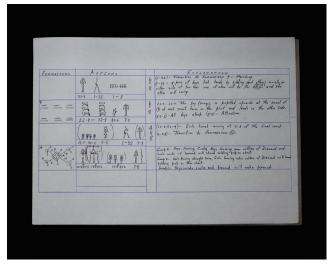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Vicki S. Kwon

30.5 x 43.5 cm





1990 매스게임 안무도식 축하장 스케치북에, 펜, 과슈, 수채물감, 제작자 미상

원본 소장처: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털 사진 : 권성연 21.1 x 36 cm From The 1990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Welcome" Pen, pencil, and gouache on Sketchbook Artist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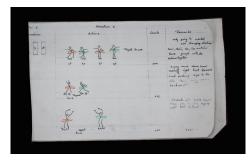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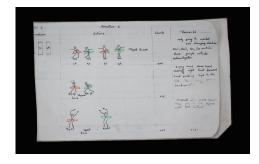
Education of Guy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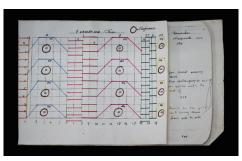
Digital photo: Vicki S. Kwon

21.1 x 36 cm









90년 매스게임의 주제는 '무지개(The Rainbow)'였다. 당시 신문기사는 "여지껏 매스게임에서 본적 없는 화려한 색상"을 많이 언급하였다. 매해 매스게임은 환영장으로 시작한다. 안무도식만 보아도 형형색색의 공연자들이 다양한 대열을 이루어가며 공연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하다.

The theme of the 1990 Mass Games was "The Rainbow." Newspapers praised the 1990 event for displaying the most splendid colours ever. The 1990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illustrates various group formations by performers in colourful uniforms.

1990 매스게임 안무도식 축하장 스케치북에 펜, 과슈, 수채물감, 제작자 미상

원본 소장처 : 가이아나 교육부 산하기관

Allied Arts Unit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1 x 36 cm

From The 1990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Congratulations" Pen, pencil, and gouache on Sketchbook Artist unknown

Repository: Allied Arts Unit, Ministry of

Education of Guyana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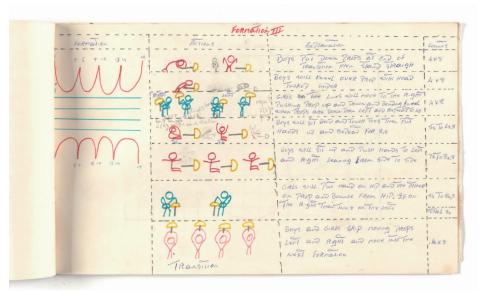
21.1 x 36 cm





90년도 안무도식 〈축하〉장에는 무지개색 부채모양의 도구로 단체 부채춤을 추는 어린이들의 안무도식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부채춤은 북한무용단이 전수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83년도 매스게임의 안무도식이 체조중심이라면, 90년대 안무도식은 도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군무의 대열을 재빠르게 바꿔가며 시각적 즐거움을 배가시킨 듯 보인다. The choreography instructions for the chapter "Congratulations" describe a fan dance, which seems to be an influence from Korean fan dance. While the 1983 Mass Games choreography instruction book depicts a gymnastic performance by black-and-white stick figures engaged in monotonous movements, the choreography of the 1990 Mass Games demonstrates a variety of group formations using colourful props to enhance the visual pleasure of the event.





신 문

가이아나와 북한 교류의 역사는 80년대 신문을 모아둔 가이아나 국립 아카이브의 상자들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1992년 정권 교체 이후, 매스게임을 구시대의 산물이자 독재자의 인권탄압이라 여긴 집권 여당은 정부 건물과 방송국에 있던 관련 자료 일체를 전부 소각했다. 남은 텍스트 자료는 국립 아카이브 실행령에 의해 살아남은 몇몇 신문들과 가이아나 크로니클 신문사 도서관에 남은 신문들이 유일하다.

가이아나 크로니클에 사진을 제공한 사진작가는 윈스턴 우드커크로, 매스게임 사진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번함시절 신문기사 사진을 그가 촬영했다. 전시된 신문들은 가이아나 국립 아카이브와 가이아나 크로니클의 허가를 받고 촬영되었고, 전시를 위해 두 기관의 승인 하에 재출력되었다.

NEWSPAPERS

Newspapers reporting the history of the Guyanese and North Korean cultural exchange were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 of Guyana. After the regime change in 1992, the new government, led by the PPP, regarded the Mass Games as the former dictators' propaganda and therefore burnt most of the records. A few records survive in the National Archive of Guyana and in the library of the Guyana Chronicle. Winston Oudkerk, chief photographer of the Guyana Chronicle, took photos of the Mass Games. The exhibited newspapers are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tional Archive and the Guyana Chronicle.

082 "매스게임", 가이아나 크로니클, 1980년 2월 29일, 14-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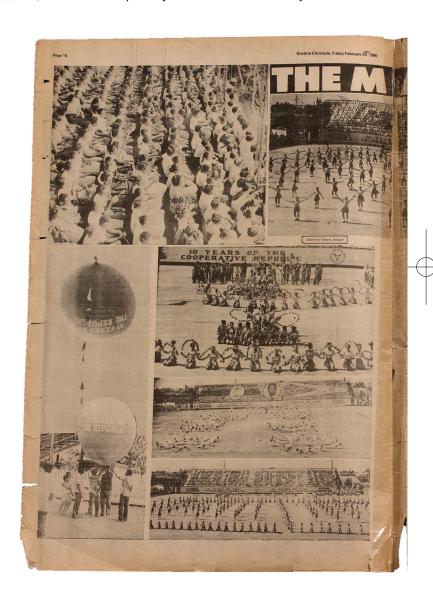
사진촬영 후 디지털 컬러 재출력

신문 원본 © 가이아나 크로니클 디지털 사진: 권성연 가이아나 국립 아카이브 소장 "Mass Games," Guyana Chronicles, February 29, 1980, 14-15. Reproduction of a newspaper, digital c-print

Original newspaper ©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Repository: The National Archive of Guyana



1980년 가이아나에서 선보인 첫 매스게임의 전경과 관람석, 공연자들. 북한에서 선물받은 애드벌룬이 이 날 하늘을 장식하였다. The Guyana Chronicle reported on various scenes of the inaugural Guyanese Mass Games in 1980. The pictures show performers, viewers, and advertising balloons gifted by North Korea.



"매스게임의 성공을 위해 함께 작업하는 한국인과 가이아나 국민들," 뉴 네이션, 1980년 1월 27일. 사진촬영 후 디지털 컬러 재출력

신문 원본 © 뉴 네이션 디지털 사진 : 권성연 가이아나 국립 아카이브 "Koreans, Guyanese work together to make Mass Games a Success," New Nation. January 27, 1980, (page unknown). Reproduction of a newspaper, digital c-print

Original newspaper © New Nation
Digital photo: Vicki S. Kwon
Repository: The National Archive of Guyana



기사는 다가오는 매스게임이 천여 명의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규율, 훈련과 조직력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가이아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설명하고, 버로우 예술학교의 교사 조지사이먼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카드섹션의 뒷배경의 감독을 맡았음을 전했다. 주요 참여자들의 인터뷰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 · 데지레 암스트롱 (미대생) : 나는 매스게임이 어린 학생들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 · 칼 안드레 (미대생) : 매스게임에 참여하게되어 영광이다. 나는 카드섹션 으로 무대 뒤의 배경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조직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동지들은 데드라인에 맞춰 일을 강행하는데 그들의 일은 훈육과 조직력을 보여준다.
- · 콜린 바커스 (교사): 매스게임은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훈련으로 도움이 된다.
- · 바스마티 부클란 (학생): 매스게임은 곧 가이아나의 군중이 일상에서 하나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훈련과 규율, 신체단련과 협동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
- · 비 싱 (교사) : 매스게임은 학생들의 협동력, 신체발전을 위한 좋은 경험이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군중이 되는 것이다.

기사는 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스게임이 학교 체육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미 매스게임의 이로움이 증명되었고 모두에게 장려되어야 한다며 끝맺는다. The Guyana Chronicle reports that "the forthcoming Mass Games in which thousands of school children will be participating, will entail detailed organization and a high degree of discipline: it will therefore present a great challenge to Guyanese." The article includes interviews with George Simon and other participants:

- ·Cde. Desiree Armstrong, second year art student: The Mass Games will be quite an exposure for Guyanese, because it brings theme together in a spirit of togetherness. [...] Being involved in this expertise, I have found it exciting and a great help in my studies. It is a most worthy exercise.
- ·Cde. Carl Anderson, art student: I think it's a wonderful exercise to be involved in preparation for the Mass Games. I have been involved in preparing the books for the background drops. This exercise has entailed a great deal of organizational experience for those involved for it required a high degree of discipline and dedication if it is to be a successful venture.
- ·Cde. Colin Bacchus, teacher: It will help children to become more mentally alert and to build their concentration. As a result all the children who have participated will become better citizens of Guyana.
- ·Cde. B. Singh, teacher: I have been taking students to rehearsals for the Mass Games for about six weeks now, and during this time, I have seen a great change in them.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Mass Games are good for school children and should become a sort of supplement to the physical education programme in schools so that students do not need to miss school for prolonged periods of time.

084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뉴 네이션, 1983년 10월 9일, 2면.

신문 사진촬영 후 디지털 컬러 재출력

신문 원본 © 뉴 네이션 디지털 사진 : 권성연 가이아나 국립 아카이브 소장 North Korean Performers in Georgetown, Guyana. New Nation, October 9, 1983, 2. Reproduction of a newspaper, digital c-print

Original newspaper © New Nation Digital photo: Vicki S. Kwon

Repository: The National Archive of Guyana

1983년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들이 다시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당시 북한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했던 가이아나 미술, 무용교사들에 의하면, 두 명의 여성을 포함해 80년에는 오지 않았던 다른 인물들도 왔다고 한다. 이 때는 북한 무용단이 와서 조지타운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닷새의 야간 공연으로 가이아나인들을 전율시켰던 북한의 평양 아트 그룹이 어제 가이아나를 출국하였다."라고 말했다. 신문 상단의 사진은 여덟명의 여성 공연자가 한복과 소고로 보이는 소품을 들고 공연하는 장면이다. 중앙에는 "친선 단결"의 배너를 펼친 한복 차림의 두 여성과 사회자가 서 있고 무대 앞에는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우산 두 개가 펼쳐져 있다. 신문 중반에는 가이아나의 주체사상 연구를 위해 국가 위원회의 대규모 회의가 조지타운 광역시 맥둠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들은 한반도 혁명 발전에서의 노동당의 역할과 주체연구를 바탕으로 한 북한 연구를 가이아나의 모델로 삼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In 1983, North Korean Mass Games experts revisited Guyana. These art and dance instructors included two female members. In 1983, another group of North Koreans, this time performers, also visited Georgetown, the capital of Guyana, and staged Korean performing art in the traditional Korean attire known as hanbok. A Guvana Chronicle article states, "The Pyongyang Art Group of the DPRK that thrilled thousands of Guyanese with their performance over five nights left our shores yesterday. Here are just two scenes from the performances."

In the middle of the newspaper, another article states that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idea of juche in Guyana held a meeting in Georgetown. Juche (often loosely translated as self-reliance) is the name of the official state ideology of North Korea.



085 "매스게임 지도자들 작별을 고하다: 성공을 이룬 7인 떠나다," 가이아나 크로니클, 1980년 6월 15일, 1. 신문 사진촬영 후 디지털 컬러 재출력

> 신문 원본 © 가이아나 크로니클 디지털 사진: 권성연 가이아나 국립 아카이브 소장

"Mass Games Instructors Bid Farewell: 7 Leave After Success," Guyana Chronicle, June 15, 1980, 1.

Reproduction of a newspaper, digital c-print

Original newspaper ©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Repository: The National Archive of Guyana



- · (사진 위) 스포츠 강사 박선용이 수상차관 프톨레미 레이드의 작별키스와 선물을 받으며 웃고있다.
- · (사진 아래) 화가 고둔만(Ko Dun Man)이 선물한 당시 가이아나 수상 포브스 번함 (같은 해 대통령 선출)의 대형 초상화를 사이에 두고 고둔만(초상화 왼쪽), 번함(초상화 오른쪽), 김일난(오른쪽 끝)이 서 있다.

북한의 매스게임 아티스트들이 떠나면서 고둔만이 그린 번함의 대형 초상화를 선물로 증정하자 대통령이 자신을 젊어보이게 그렸다고 응답했다. 구 소비에트 연합의 조세프 스탈린의 지시로 생겨난 사회주의 사실주의 화폭에서는 활기찬 젊은 국가의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리더를 항상 젊게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북한에서도 같은 이유로 마오쩌둥과 김일성 초상화를 젊게 그리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기사는 가이아나의 레이드 동지가 정부와 가이아나 대중을 대신하여 북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주 가이아나 북한외교관 이준옥은 가이아나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유익하고 기쁘게 가이아나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날 소년체육부 장관 로버트 코빈은 북한인들이 높은 수준의 국제 프롤레타리아니즘을 가이아나에 전수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교육부장관 제프리 토마스는 매스게임이 영구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음을 밝혔다.

- · (Photo top) "Korean sports instructor Pak Sun Young smiles broadly as she receives a farewell kiss from Deputy Prime Minister Ptolemy Reid and accepts a gift."
- · (Photo middle) "This gift portrait was presented to Prime Minister Forbes Burnham yesterday morning at the Vlissengen Road Residency by the seven-man Korean Mass Games team. The work was painted by artist Ko Dun Man (third from left). Leader of the team, which is about to leave for the DPRK, is Kim Il Nan (next to the PM)."

The article says that Burnham commented on his portrait, saying that he looks younger in it. In Socialist Realist art, created during the regime of Joseph Stalin in the former Soviet Union, leaders had to be portrayed as younger looking in order to visualize the brighter and youthful future of the nation. For the same reason, portraits of Mao Zedong and Kim Il-sung depict them as younger looking.

The article also commented that the Minister of Youth and Sport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monstrated a high standard of international proletarianism in sending the instructors to Guyana" and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declared that the Mass Games had become "a permanent fixture on the Schools curriculum."

"수천명이 전율한 매스게임, " 가이아나 크로니클, 1986년 2월 24일, 1면. 신문 사진촬영 후 디지털 컬러 재출력

신문 원본 © 가이아나 크로니클 디지털 사진: 권성연 가이아나 크로니클 소장 "Thousands Thrilled by Mass Games,"
Guyana Chronicle, February 24, 1986, 1.
Reproduction of a newspaper,
digital c-print

Original newspaper © Guyana Chronicle Digital photo: Vicki S. Kwon Repository: Guyana Chron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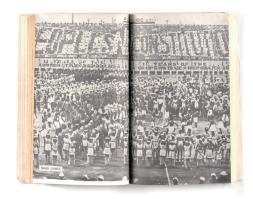
087 「카이: 1981 카리페스타 태양의 생생한 이미지들 조지타운』 가이아나: 교육, 사회문화발전부 편찬, 1981년 7월. 가이아나대학교 도서관 대여.

> 가이아나대학교 도서관 대여. (좌) 표지 (우) 진 펄시코가 쓴 챕터 "매스게임" 에 실린 1981년 매스게임 전경 88-89쪽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2.8 x 15.4 cm

Kaie: Living Images of the Sun 1981. CARIFESTA No. 17. Georgetown, Guyana: Ministry of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and Culture. 1981

Repository: University of Guyana Library Digital Photo: Asia Culture Center 22.8 x 15.4cm





매해 2월에 중남미의 한 국가에서 열리는 캐리비언 문화예술체전 캐리페스타(CARIFESTA)를 기록하고 관련자들의 글과 사진을 담은 책으로, 신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스게임에 관한 출판물이다. 81년 2월 24일 가이아나 국경일에 열렸던 매스게임도 카리페스타 행사 중 하나로 간주되어 이 책에 기록되었다. 매스게임 코디네이터 진 퍼시코(Jean Persico)가 쓴 매스게임 전문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80년 첫 매스게임 이후 매스게임이 체육교과과정으로 편성되고 매스게임이 스포츠이자 체육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매스게임이 어린이 체육대회처럼 캐리비언 체전에 포함되었다면, 다른 해의 매스게임 카드섹션에는 카리페스타 문구와 프로 운동선수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였다.

The book Kaie was published to commemorate the CARIFESTA-Caribbean Festival of Arts-held in Guvana in 1983. As an international multicultural event organized by the Caribbean nations, CARIFESTA brings artists, musicians, and authors together in a folkloric and artistic manifestation of Caribbean and Latin American culture. Since the Mass Games were included in this book as a chapter, the 1983 Mass Games seem to have been considered as an event of CARIFESTA in Guyana. The book dedicates a chapter to the 1983 Mass Games by including a text written by Jean Persico, Mass Games coordinator, and a photograph of the 1983 Mass Games. This book is the only remaining publication about the Mass Games in Guyana.

매스게임과 마슈라마니 영상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1992년 PPP 당원들이 국영 방송국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NCN)에 정리되어 있던 매스게임 아카이브를 모두 끄집어내 건물 앞마당에서 소각시킨 후, 아무도 NCN에 매스게임 관련 영상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매스게임 아카이브를 NCN에 구축해놓은 번함의 오른팔 정치인 크리스토퍼 키트 나시맨토 역시 NCN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장담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2016년 6월 가이아나를 방문한 전시기획자이자 미술사학자 권성연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약 한시간 반 가량의 《Guyana Celebrates Mash '88(가이아나가 마쉬를 기념하다 '88)》 영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 영상은 1999년 디지털화된 영상으로 28분 가량의 매스게임 도입부분과 40분 가량의 마슈라마니 영상을 보여준다. 마슈라마니는 원래 가이아나 공화국 기념일 중 밤에 이루어지는 가면극, 코스튬 파티일뿐 아니라 매스게임, 군중행렬 또한 마슈라마니의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Film Footages of Mass Games and Mashramani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When the PPP party members removed all of the archival materials relating to the Mass Games from the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NCN) and burnt them immediately after the 1992 election, no on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ny footage of the Mass Games remaining. Even Christopher Kit Nascimento, the politician who built the Mass Games archive at the NCN, confirmed that there was none remaining.

However, when art historian Vicki S. Kwon visited Guyana a second time, in spring 2016, she found some film footage titled "Guyana Celebrates Mash '88" which includes the Mass Games and Mashramani of 1988. Digitized in 1999, the film features 28 minutes of Mass Games and 40 minutes of Mashramani footage. Held the night before National Day, Mashramani consists of a masquerade and competitions involving costumes, dancing, and singing. In some years, newspapers used the term Mashramani to refer to all events held during the weekend of National Day, including the Mass Games (which were held on the morning of National Day) and the People's Parade.

088 가이아나가 마쉬 88을 기념하다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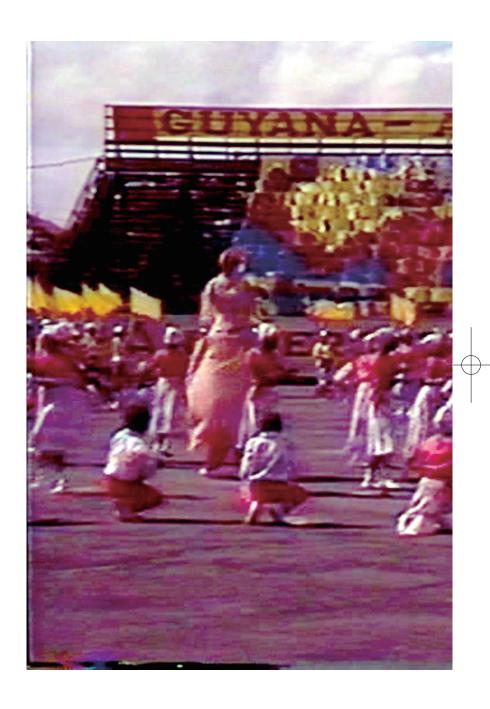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방송국 제작, 1988 2월 23일 ©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Guyana Celebrates Mash '88 Film Foot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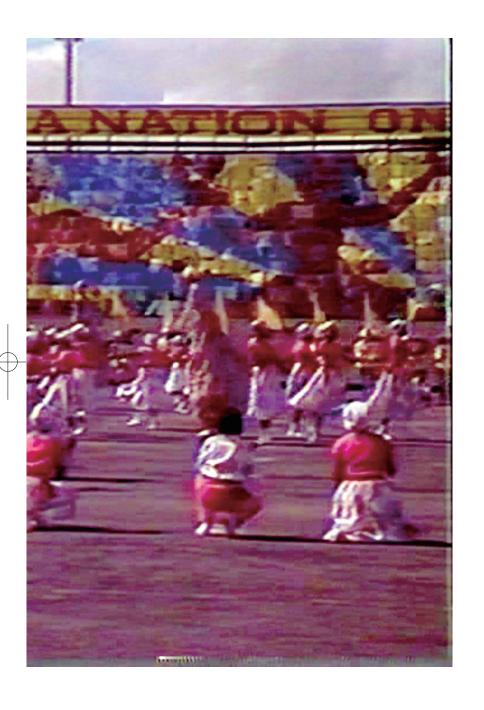
Production: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February 23, 1988

© National Communications Network







089 천국의 공작새 : 윌슨 해리스를 향한 오마주

조지 사이먼, 필버트 가자다르,

아닐 로버츠 (가이아나 대학 인문학부가 전체 주제와 구성에 참여)

2009, 아크릴 벽화

원 소재지: 가이아나 인문대학 건물 입구

원본 사이즈: 200 x 500 cm

원본 저작권 © University of Guyana Division of Creative Arts

디지털 사진 : 권성연, 헤더 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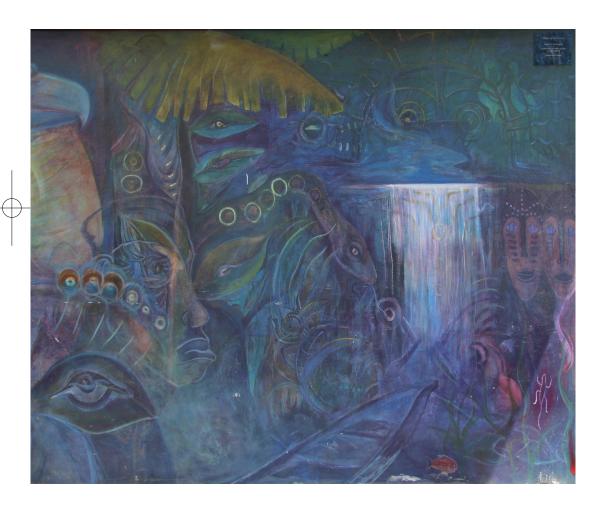
Palace of the Peacock: Homage to Wilson Harris
George Simon, Philbert Gajadhar, Anil Roberts (The University of Guyana Faculty of
Humanities participated in the theme and composition)
2009, Acryl on wall

Location of the original: Entrance of the Humanities, University of Guyana

Original dimension: 200 x 500 cm

Copyright of the original © University of Guyana Division of Creative Arts

Digital photo: Vicki S. Kwon, Heather Le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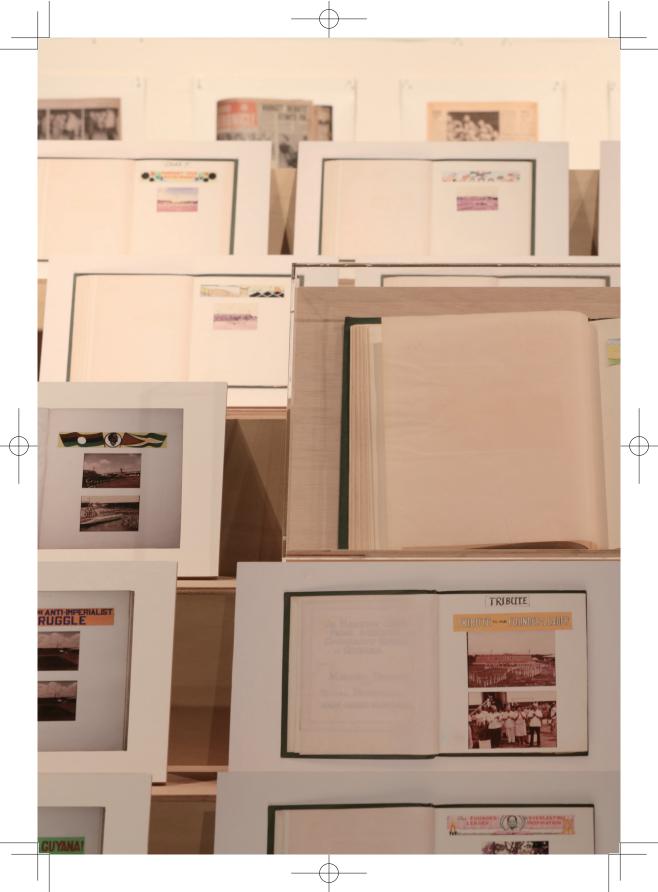
조지 사이먼과 필버트 가자다르, 아닐 로버츠가 그린 가이아나 대학 벽화 〈천국의 공작새 : 윌슨해리스를 향한 오마주〉는 가이아나의 문호이자 초현실주의 작가 윌슨 해리스의 소설 〈천국의 공작새〉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이 소설에서는 엘도라도에 가고자 하는 개척자들과 이를 돕는 듯하나 방해하는 아마존의 신비한 동식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그들의 여정에는 독사와 재규어, 벌레, 야생동물이 가득하고 정령들을 비롯하여 탐험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 신성한 동물 재규어와 공작새는 이들을 지켜주는 듯, 혹은 위협하는 듯 한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표에 도달하는 듯 하지만 결국 탐험자들은 카이터 폭포 근처에서 죽음을 맞는다.

세 화가의 벽화는 공작을 비롯하여 재규어, 독수리 등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인 가이아나 내륙의 힘을 초현실주의적 양식을 통해 보여준다. 고대 아메린디언 원주민들이 그렸다는 암석화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형상도 정령처럼 등장한다. 화면 왼쪽에서는 신비로운 정글을 왼손으로 열어젖히고 땋은 머리를 한 아메린디언 원주민이 등장한다. 촛불을 든 그의 오른손은 비현실적으로 화폭 가운데 마치 재규어나 독수리의 손처럼 나타나, 아마존 야생의 존재와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윌슨 해리스가 소설에서 침략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듯, 벽화는 오로지 원주민들에게만 허용된 가이아나의 땅을 신비롭게 표현한다. 대학 안에 여러 벽화가 있지만 이 벽화에서는 조지 사이먼 특유의 중첩되는 이미지들과 깊이 있는 구조, 화면을 가득 매운 다양한 상징들과 신비로운 색채가 돋보인다. 조지 사이먼은 캐리비안-유럽을 오가며 활동했던 사회주의-초현실주의자(Socialist-Surrealists)들과 영국 유학중 교류하였으며 가이아나 추상화의 선구자인 어브리 윌리암스(Aubrey Williams)의 추상화 화폭에서 영향을 받았다. 매스게임이 중지된 후 런던에서 고고학자가 되어 가이아나에 돌아온 사이먼은 고고학 발굴도중 발견한 아메린디언 원주민들의 기하학적 문양을 회화에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유럽식 아카데미 교육에 의한 초현실주의, 가이아나의 신화적 요소들과 자연, 그리고 아메린디언의 기하학적 추상을 결합해 가이아나 아티스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신비로운 색채와 형상을 그려낸다.

George Simon painted Palace of the Peacock: Homage to Wilson Harris, a mural painting at the University of Guyana, in collaboration with Philbert Gajadhar and Anil Roberts, in 2009. The mural represents Guvanese surrealist writer Wilson Harris's poetic novel Palace of the Peacock, which illustrates a story of expeditions exploring the hinterland of the Guiana Shield. In the novel, the foreigners encounter auspicious animals, such as a jaguar, owls, and pythons. These animals seem to help but also to threaten them. The expedition members end up dying before reaching Kaieteur Falls, the spiritual spring of the Amerindians and other Guyanese. Harris's poem gives a strong warning to any wouldbe invaders of the hinterland-land that is only accessible to the Amerindians, because of their ability to spiritually communicate with nature.

In the mural, wild creatures—such as the jaguar, the peacock, and the eagle-are shown in a jungle environment, but in surrealistic, overlapping juxtaposition. Surrounding the Kaieteur Falls are geometric motifs from Timehri rock paintings that Simon found during his archaeological survey of Amerindian sites in Berbice. Countless eyes float on the mural, looking toward the left, where a man with long, braided hair and two red stripes of camouflage face paint enters the forest by pushing aside palm tree leaves with his left hand. His right hand, holding a candle, surrealistically appears in the middle of the painting, as if the hand is that of the jaguar or the eagle. Just like Harris warned invaders of the mortal danger in his novel, Simon and his collaborators state that only Amerindians can reach the hinterland, because they are connected to and protected by these wild creatures.

The Amazonian wildlife and fauna that appear in the mural had similarly appeared in the 1987 Mass Games backdrops. And before the Mass Games, these wild creatures had appeared in Guyanese painter Aubrey Williams's painting Guyanese Myth No. 4. (c. 1976).





매스게임 참여 가이아나 작가

조지 사이먼

조지 사이먼(1947년생, 로코노-아라왁, 가이아나)은 가이아나 아메린디언 문화와 정신을 탐구하는 작품을 하는 아티스트이자 고고학자이다. 로코노-아라왁 부족의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인 목사에게 입양된 후, 영국에서 정통 아카데미 스타일 예술교육을 받았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가이아나에 돌아온 이름해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매스게임 감독으로 선출되어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매스게임의 카드섹션을 디자인하고 감독하였다.

매스게임이 중지된 후 런던에서 고고학자가 되어 가이아나에 돌아온 사이먼은 고고학적 발굴 도중 발견한 아메린디언 원주민들의 기하학적 문양을 회화에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와 가이아나의 신화적 요소들과 자연, 그리고 아메린디언의 기하학적 추상을 결합해 가이아나 아티스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신비로운 색채와 형상을 그려낸다.

그의 작품은 국제적 탈식민운동, 사회주의 미술운동, 그리고 캐리비안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문학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의 회화와 벽화들은 깊이있는 개인의 미시사와 가이아나 원주민의 전통과 그가 방문한 여러도시들의 성스러운 혹은 정신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중첩시킨다.

필버트 가자다르

필버트 가자다르(1960년생, 조지타운, 가이아나)는 매스게임의 카드섹션 회화도안 작업과 배경이미지 디자인, 채색에 참여한 작가로 가이아나를 대표하는 동인도계 아티스트이다. 그는 당시 동원된 버로우 예술학교 미대생 중 거의 유일하게 보수를 받고 참여한 작가이다. 뛰어난 회화실력을 인정받아서 카드섹션에 대통령 데스몬드 호이트를 비롯한 여러 주요인물들의 초상을 도맡아 그렸다.

매스게임 이후에는 주로 동인도에서 가이아나까지 선박을 통해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수난사를 인도의 신화적 모티프와 결합하여 큐비즘과 추상으로 표현하는 회화를 그려왔다. 현재 가이아나 국립대학교 미술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국립미술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Artists of the Guyanese Mass Games

George Simon

George Simon (b. 1947) is an artist and archaeologist who explores the Guyanese Amerindian culture and spirit. Born to a Lokono-Arawak family, he was adopted by a British priest and moved to the United Kingdom, where he received training at Portsmouth College as a printmaker. Upon his return to Guyana in 1979, he was soon commissioned to direct the Guyanese Mass Games. He won the selection competition for artistic director over more senior candidates. He designed and coordinated the production of the Mass Games backdrop images from 1980 to 1992.

After the Mass Games were discontinued in 1992, he studied archaeology in London, UK, and undertook archaeological surveys of the Amerindian lands. He incorporated the geometric shapes that he found in Timehri rock paintings into his canvases. His works explore Guyanese myth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rrealism he studied during his European academy-style art education.

Simon's art was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decolonization and socialist art movement, as well as by the surrealism of Caribbean artists and writers, all of which were crucial for him to develop his Amerindian identity in his later mural and easel paintings. Throughout his career, Simon's paintings and murals have been the sites of an intense personal dialogue with the diverse sacred and spiritual traditions of his native Guyana, as well as other countries in which he has lived over the years.

Philbert Gajadhar

Philbert Gajadhar (b. 1960) is an Indo-Guyanese artist who now teaches painting at the University of Guyana. While he was a student of the Burrowes School of Art, he created and painted card section books for the Mass Games. As one of the top students of the art school, Gajadhar painted portraits of important political figures, such as Forbes Burnham and Desmond Hoyte. He was one of the few students who were paid by the government to paint for the Mass Games. His later paintings explore questions of identity, spirituality, and belonging, in abstract compositions.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실에는 가이아나의 매스게임, 마슈라마니, 가이아나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의 영상 4점이 전시되었다.

조지 사이먼(매스게임 아트디렉터), 필버트 가자다르(아티스트), 로리 탈봇(공연자) 인터뷰 인터뷰와 영상제작 모 테일러 (캐리비언 냉전 역사 연구가) 2012-2015년 9'06"

가이아나 50주년 기념 단결 퍼레이드 마슈라마니 (뉴욕) 촬영 박하니 2016년 6월 12일 촬영 뉴욕 브루클린 4'00" 가이아나 50주년 기념 단결 퍼레이드 마슈라마니 (뉴욕) 촬영 권성연 39점의 사진 슬라이드 2016년 6월 12일 촬영 뉴욕 브루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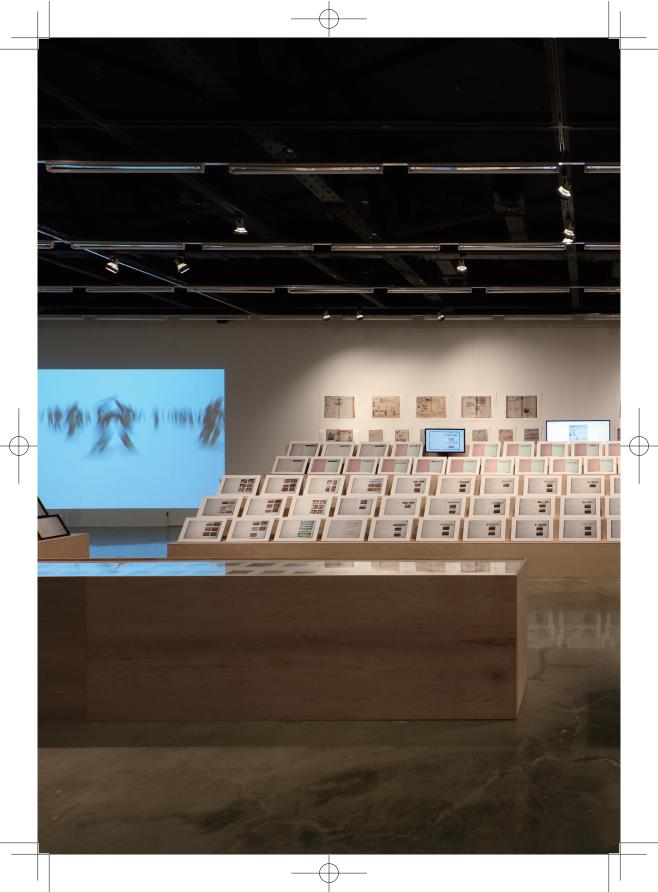
발견되지 않은 남미 가이아나
: 하나의 가이아나
가이아나 여행공사
2015년
가이아나 조지타운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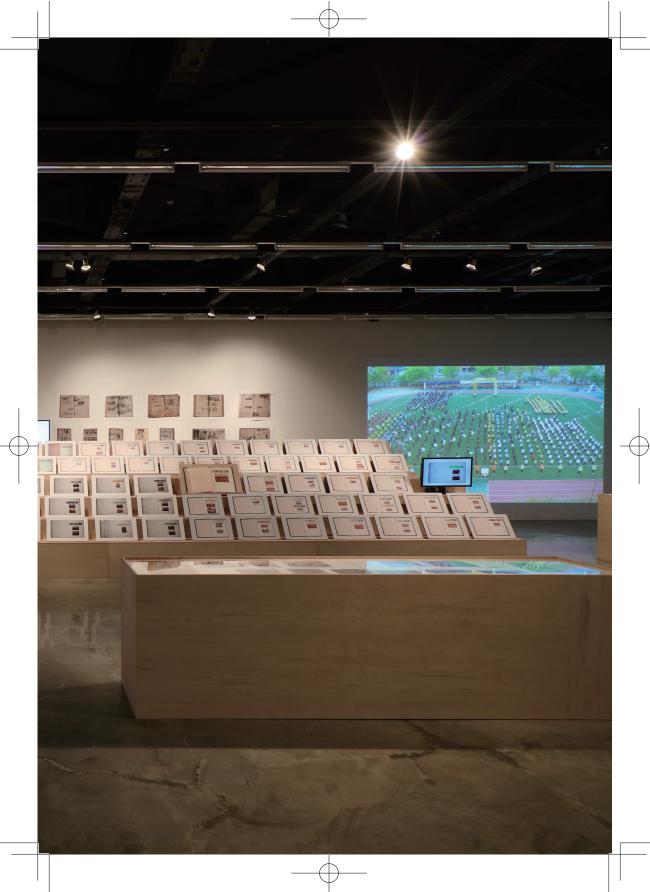
On the second floor, in the Arko Art Center Archive Room, four films were displayed to help viewers understand the Guyanese Mass Games, Mashramani, and the nature and culture of Guyana in general.

Clips of George Simon, Philbert Gajadhar, and Laurie Talbot. interviewed and filmed by Moe Taylor 2012–2015 9'06"

Unity Parade Mashramani in New York, celebrating Guyana's 50th anniversary filmed by Hanee Park June 12, 2016 4'00" Slide show of the Unity Parade Mashramani in New York, celebrating Guyana's 50th anniversary photographed by Vicki S. Kwon June 12, 2016

Guyana-South America Undiscovered: One Guyana Guyana Tourism Authority 2015 4'14"





현 대 미술 작 품

CON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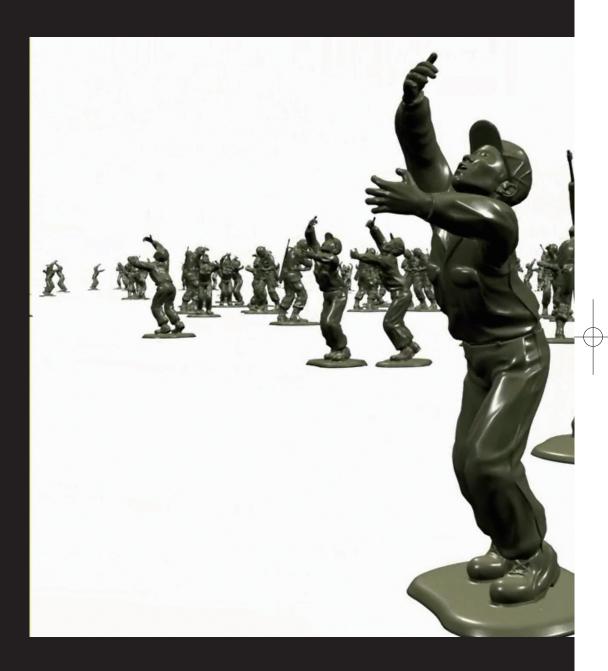
가 와

TEMPO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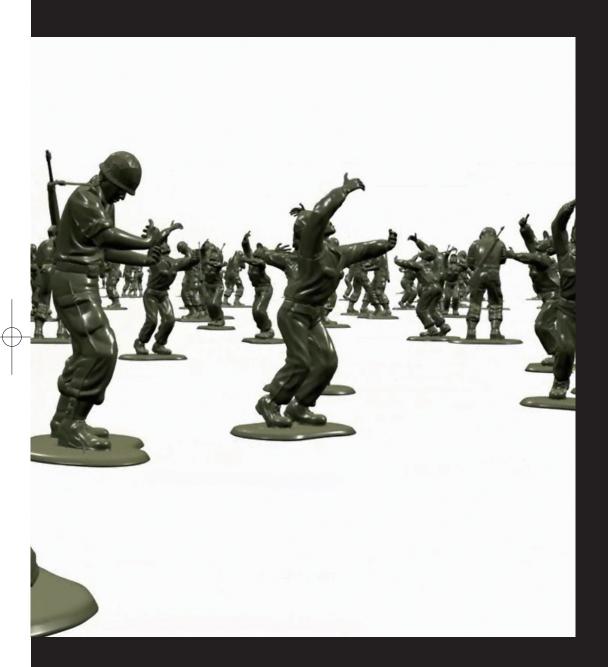
ARTISTS

WORKS

전준호, 형제의 상, 2007. 디지털 애니메이션, 53 sec. Photo © 전준호.



Joonho Jeon, *The Statue of Brothers*, 2007. Digital animation, 53 sec. Photo © Joonho Jeon.



전준호, 형제의 상, 2007. 디지털 애니메이션, 53 sec. Photo © 전준호.



Joonho Jeon, *The Statue of Brothers*, 2007. Digital animation, 53 sec. Photo © Joonho Jeon.







전준호 (부산, 서울)

전준호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의대 미술학과와 영국 첼시 미술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15), 스위스 미그로스 현대 미술관,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2013), 동경 스카이 더 바스하우스 (2009), 파리 테디우스 로팩 갤러리 (2008), 뉴욕 페리 루벤스타인 갤러리 (2007) 등에서 2인전과 개인전을 가졌고, 몬트리올 비엔날레 (2016),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2014), 싱가폴 비엔날레 (2013), 광주비엔날레 (2012)와 독일 카셀 도큐멘타 13,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11),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립미술관과 휴스턴 미술관 (2009), 파리 에스파세 루이비통(2008), 동경 모리 미술관 (2007) 등에서 전시를 가졌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
'비엔날레 상'과 2007년 루불라냐
그래픽 비엔날레 '대상', 2012년
광주비엔날레 대상인 '눈 예술상',
2012년 국립 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올해의
작가상', 2013년 멀티튜드
파운데이션에서 수여하는
'멀티튜드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하였다.

전준호, 형제의 상, 2007. 디지털 애니메이션. 53 sec.

이 작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남북분단의 아픔의 상징으로, 서울 전쟁 기념관내 설치되어 있는 '형제의 상'이란 조각 작품을 차용한 것이다.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이 작품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야 할 국군장교와 인민군 병사가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의 조각상이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이 조형물은 국군장교로 참전한 형과 인민군 병사인 아우가 전장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전후 세대들에게 남북문제는 더 이상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아닌 통일 후 불러오게 될 막대한 경제 손실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구조로 파악되고 있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또한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이나 TV특집 방송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새해마다 휴전선 근처에서 북녘을 향해 통곡하며 절을 올리는 실향민의 모습들은 고속도로 정체 상황보도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이미 남북통일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당면과제가 아니라 여전히 주변 강국의 눈치 아래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음으로 미룰 이유를 찾기에 급급한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사선을 뚫고 남한으로 넘어왔던 탈북자들에 대한 영웅대접도 더이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골칫거리로 취급당하며 남한 사회의 부유물이되어버렸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또다른 오시스와 베시스의 이질감이 관통한다. 우린 이제 포화 속에서 뜨겁게 부둥켜안았던 그 형제애를 어디서 다시 찾아 볼 수 있을까?

작업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는 '형제의 상'을 똑같이 재현했지만,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형태를 따로 떼어 내어 플라스틱 장난감 모습의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무수히 많은 이 형제의 모델들은 흰색의 무한공간에서 마치 부둥켜안고 감격해야 할 상대를 잃어버려 허공을 안고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서로 껴안지 못한 채, 부딪히며 헤매고 있다.(전준호)

Joonho Jeon (Busan, Seoul)

Joonho Jeon was born in Busan and studied at Dongeui University and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UK.

Jeon had solo and two person shows in multiple venues including the Korean Pavilion for 2015 Venice Biennale, Migros Museum in Switzerland,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2013). He also exhibited in Fukuoka Triennale (2014), Singapore Biennale (2013), Gwangju Biennale (2012), Kassel Documenta 13 (2012), Yokohama Triennale (2011), LACMA 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2009), and Mori Art Museum (2007).

Jeon has been recipients of major prizes such as the 'Noon Art Prize' from Gwangju Biennale (2012), 'The Korea Artist Prize' from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2), 'Grand Prix' of the 27th Biennial of Graphic Art in Ljubljana (2007), and 'Prize' at the Gwangju Biennale (2004).

Joonho Jeon, *The Statue of Brothers*, 2007. Digital animation, 53 sec.

This work has been taken from the sculpture The Statue of Brothers, installed in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Seoul. The Statue of Brothers symbolizes the pain and sufferings of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culpture, which is also a subject of an animation, is a figure of a South Korean army officer and a North Korean soldier, embracing each other instead of pointing guns at each other. While this sculpture seems strange to the people living in the age of division, it was produced on the basis of a true story in which the older brother, a South Korean army officer, and the younger brother, a North Korean soldier, reunite on the battle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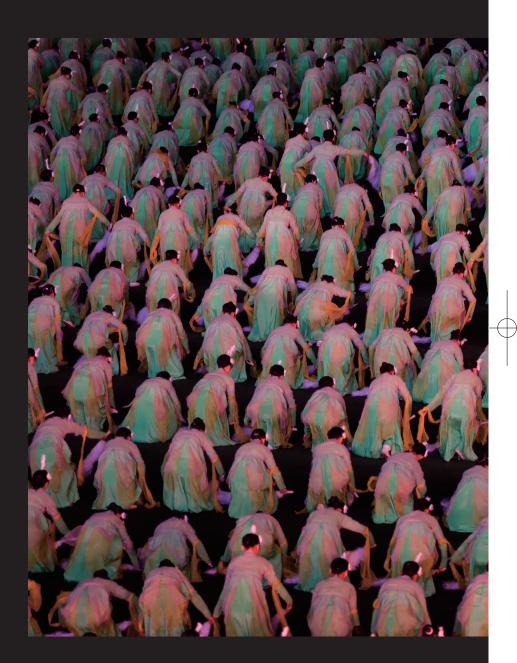
To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the problem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no longer involves ideological or political conflict: rather, people are either indifferent towards it all, or are more concerned about economic loss and social instability upon reunification above anything els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f North and South Korea no longer make the headlines

or special TV broadcast. It has been long since the traffic news has replaced the broadcast of displaced people bowing and wailing towards the North Korean side of the DMZ on New Year's Day. The issue of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 longer a passionate issue for people, but a topic that is tossed around like a hot potato quietly behind the super nations.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risk their lives to escape to South Korea are no longer treated as heroes. They are but as unwelcomed nuisance, becoming an airborne dus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perpetuating the sense of difference and otherness. Where can we find the brotherly love that blossomed in the middle of the battlefield?

The brother figures in the statue in The War Memorial of Korea are reproduced in this work, but the embracing brothers are taken away from each other, rendered into plastic toys, and made into 3D animation. The countless number of brothers in the white infinite space reflects people today who embrace emptiness having lost the other to embrace. (Joonho 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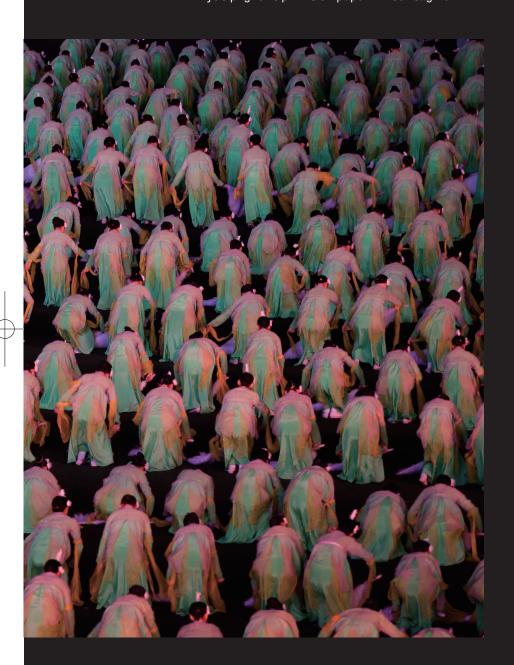
노순택, 붉은 틀 재편집, 2000-2016. 75 x 50 cm 6장과 50 x 35 cm 48장의 조합. 종이 위에 잉크젯 안료 프린트. © 노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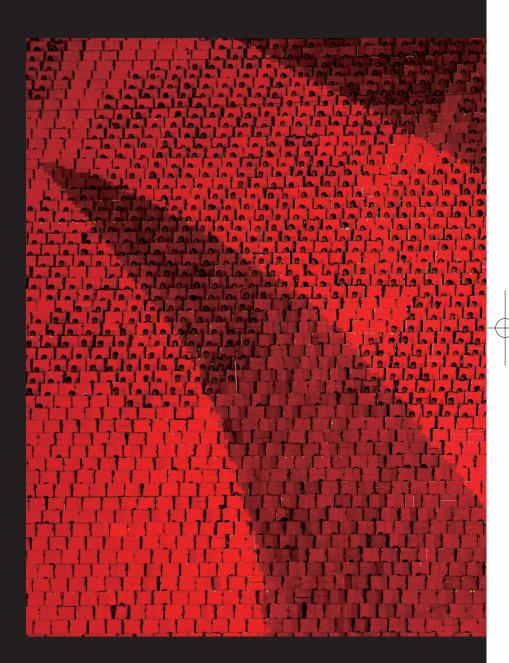
Suntag Noh, *Red House re-editing*, 2000-2016.

An arrangement of 54 photos (6 of 75 x 50 cm and 48 of 50 x 35 cm),

Inkjet pigment print on paper. © Suntag N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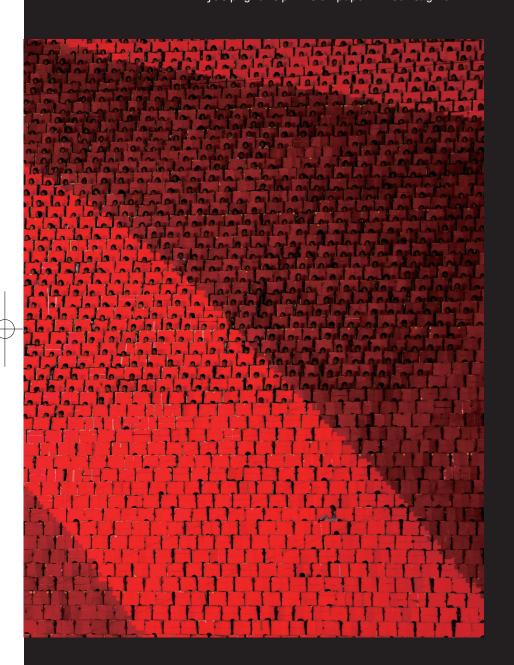
노순택, 붉은 틀 재편집, 2000-2016. 75 x 50 cm 6장과 50 x 35 cm 48장의 조합. 종이 위에 잉크젯 안료 프린트. © 노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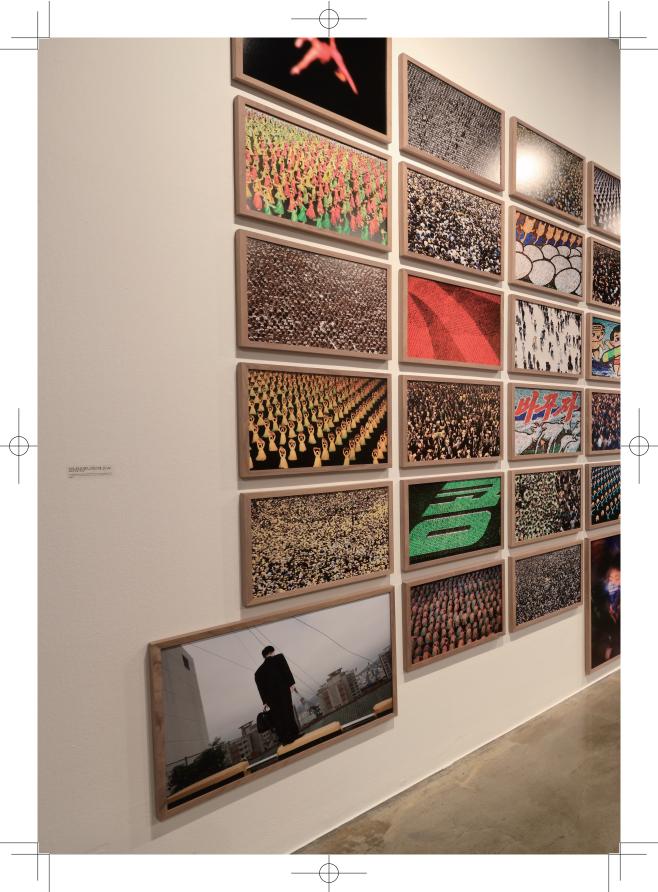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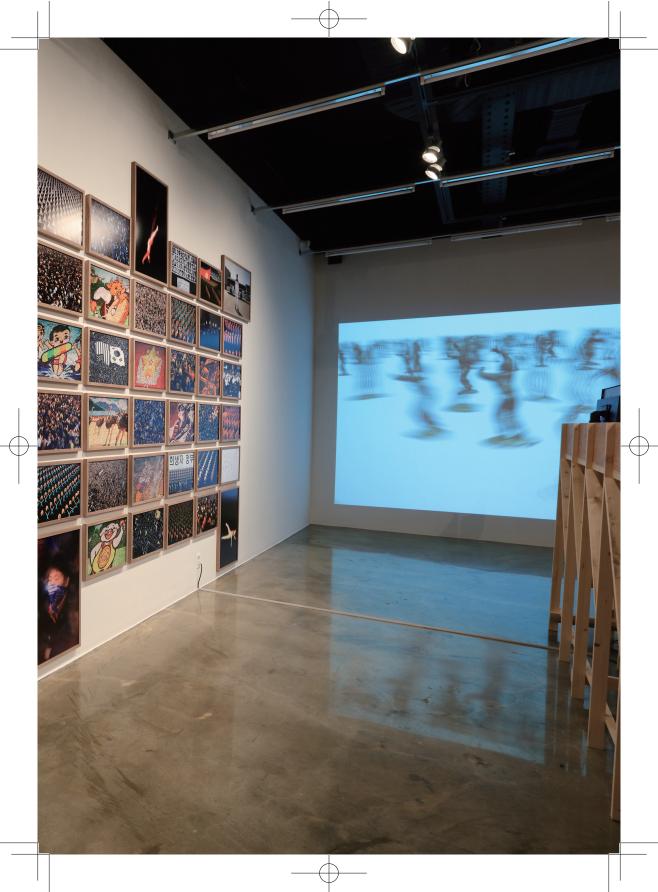
Suntag Noh, Red House re-editing, 2000-2016.

An arrangement of 54 photos (6 of 75 x 50 cm and 48 of 50 x 35 cm),

Inkjet pigment print on paper. © Suntag Noh.







노순택 (서울)

www.suntag.net

길바닥에서 사진을 배웠다. 배우긴 했는데, 허투루 배운 탓에 아는 게 없다.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몰라 헤맨다. 학동시절부터 북한괴뢰집단에 대한 얘기를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터라 그들이 대체 누구인지 호기심을 품어왔다. 나이를 먹고 보니, 틈만 나면 북한괴뢰집단을 잡아먹으려드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지 호기심을 하나 더 품게 됐다. 분단체제가 파생시킨 작동과 오작동의 풍경을 수집하고 있다. 사진기로도 줍고 손으로도 주워왔는데, 내가 주워 온 것이 무엇인지 몰라 한참을 생각한다. ‹분단의 향기› ‹얄읏한 공› ‹붉은 틀› ‹좋은 살인› <비상국가> <망각기계> 등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이름의 사진집을 펴냈다.

노순택, 붉은 틀 재편집, 2000-2016. 75 x 50 cm 6장과 50 x 35 cm 48장의 조합. 종이 위에 잉크젯 안료 프린트.

∢붉은 틀→ 연작은 북한에 관한 세 개의 시선을 담고 있다. 총 3개의 장 중 제1장 〈펼쳐들다 : 질서의 이면 > 은 북한사회가 보여주고 싶은 북한의 모습을 곧이곧대로 담으려 했다. 강인함과 일치단결,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용맹한 모습은 북한사회가 오랜시간 외부에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였다. 북한이 세계에 자랑하는 매스게임 ‹아리랑›은 그러한 갈망의 정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중과 지도자, 그들이 함께 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인민공화국 건설의 경험,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아리랑›은 반세기 북한사회의 대서사를 잔뜩 "펼쳐든다". 그러나 그저 보이는 그대로일까. 빈틈없어 보이는 질서의 이면은 무엇일까.

이번 전시의 작품은 북한의 군중과 개인이 담긴 〈붉은 틀〉의 1장과 남한의 군중과 개인을 담은 다른 카테고리 속의 이미지를 뒤섞어 재편집한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같고, 어디서 달라지는 것일까. 우리는 분명다르다. 안타깝게도 닮아가고 있다.(노순택)

Suntag Noh (Seoul) www.suntag.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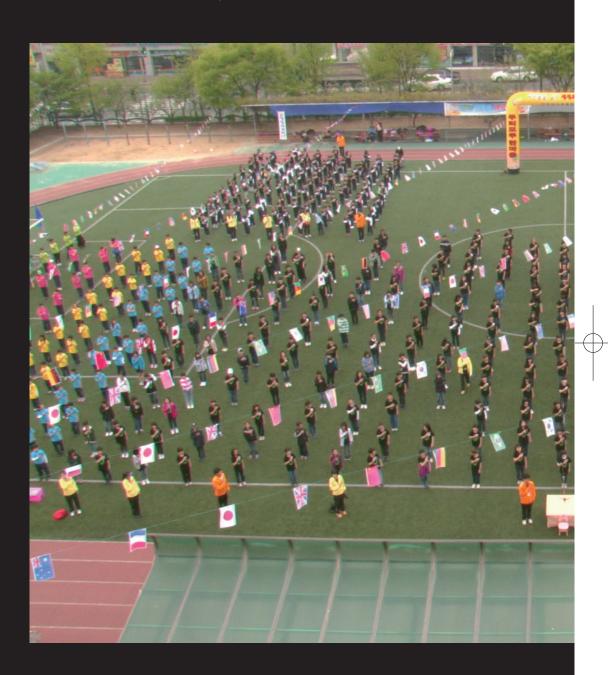
I learned photography on the streets. I may have learnt it, but I don't know much about it since it wasn't anything formal. I decided to study, but I felt lost again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studv. Having heard about the North Korean communist group tirelessly in my student days, I have always been curious as to who they are. Once I got older, I became even more interested in who we are, so eager to devour the North Korean communists. I collect scenes of operations and malfunctions of the divided system. Although I collected them through my camera and with my hands, I didn't know about what I had collected and thus have to think about them. My solo exhibitions, as well as photograph collections in the same titles, include: Smells lik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range Ball, Red House, Really Good Murder, State of Emergency, and Forgetting Machine.

Suntag Noh, Red House re-editing, 2000-2016. An arrangement of 54 photos (6 of 75 x 50 cm and 48 of 50 x 35 cm), Inkjet pigment print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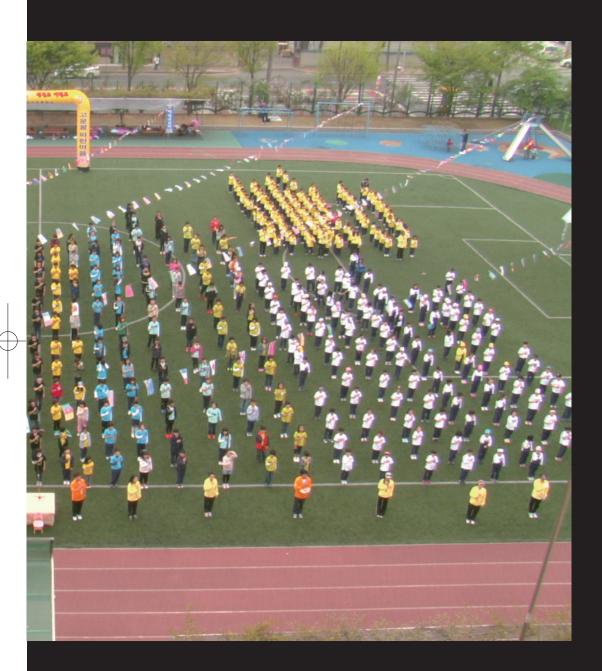
The Red House series reflects the three points of view on the North Korea. Chapter 1 'Open up: Other Side of Order' attempted to capture how North Korea sees itself. The look of power, solidarity and untouchable bravery are images which North Korea has wanted to show the outside world for a long time. The mass game Arirang which North Korea boasts to the world is the quintessence of such desires. Arirang 'opens up' the half a century grand epic of North Korea, from the mass and the leader, the history of armed struggle against Japan, the founding North Korea, and hopes for the future. But is it really how it seems? What exactly lies on the other side of the unbreakable order?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reorganizes images of North Korean crowds and individual people in Chapter 1 of Red House, and images of South Korean crowds and individual people in other categories. How are we the same and different? We are definitely different: unfortunately, however, we are becoming alike. (Suntag N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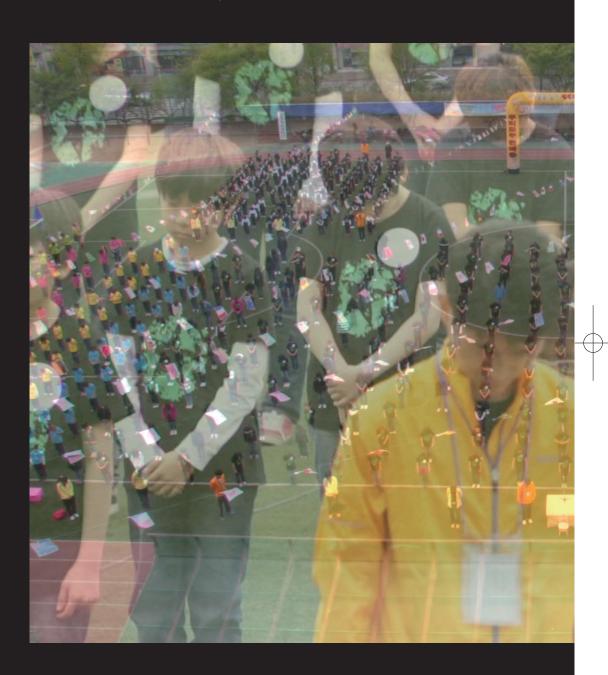
안정주, 내셔널 세레모니, 2012. 단채널 비디오, 3 min 50 sec. Photo © 안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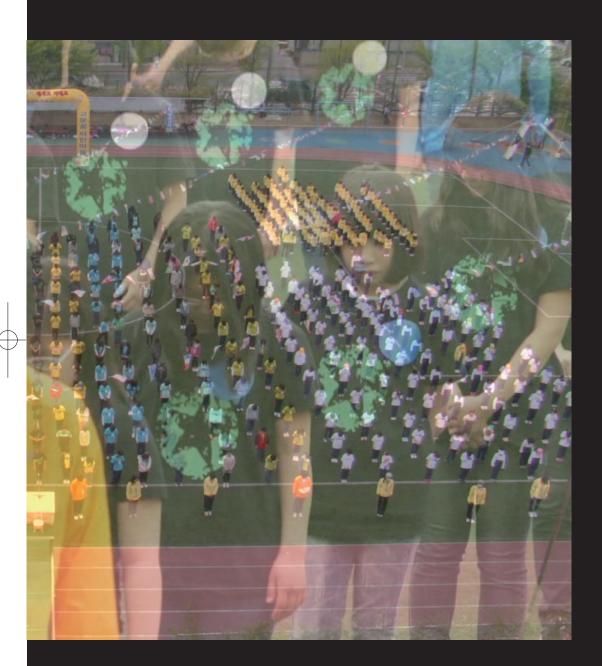
Jungju An, *National Ceremony*, 2012. Single-channel video, 3 min 50 sec. Photo © Jungju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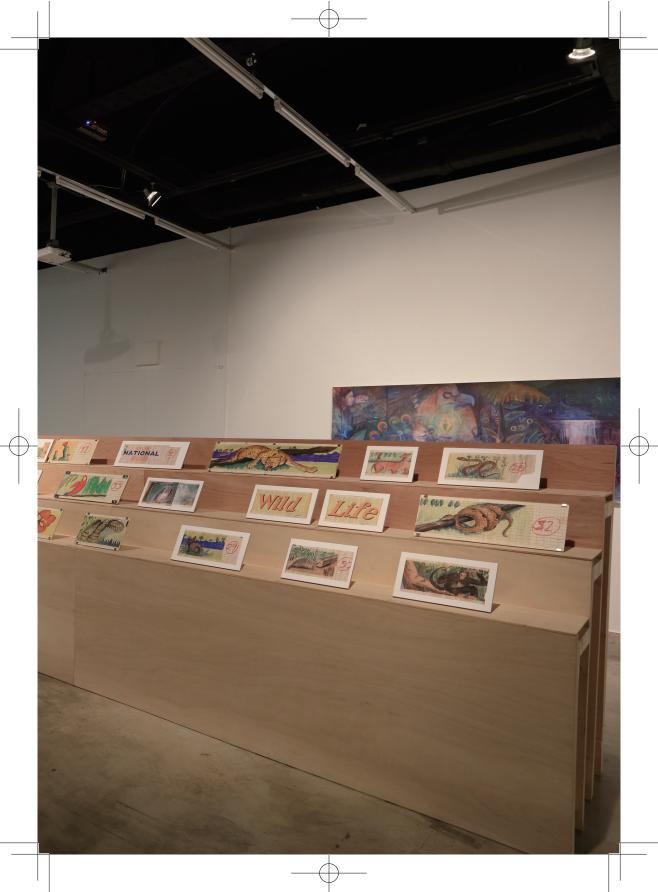
안정주, 내셔널 세레모니, 2012. 단채널 비디오, 3 min 50 sec. Photo © 안정주.



Jungju An, *National Ceremony*, 2012. Single-channel video, 3 min 50 sec. Photo © Jungju An.







안정주 (서울)

www.anjungju.com

안정주는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과를 졸업했다. 개인을 통제하는 규범, 체제와 같은 획일화된 구조를 뒤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운의 편지'(두산갤러리, 서울, 2015), '열번의 총성'(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4), '정직한 사람'(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12)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후쿠오카 아시아 트리엔날레(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2009)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안정주, 내셔널 세레모니, 2012. 단채널 비디오, 3 min 50 sec.

안정주는 우리가 관습적인 교육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박혀있는 명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회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지식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켜질 수 없는 현실과는 유리된 이상적인 숭고한 명제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이러한 말들을 쉽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들은 모두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일상 속에 친근하면서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우리들도 무심하게 지나치며 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집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집해 보여준다.

안정주의 작업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 작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차분하고 조용한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강한 논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그는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에 가깝다. 따라서 안정주의 작업은 그 주제적인 무거움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편안함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이는 이야기꾼이 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듯이 자신만의리들을 가지고 영상과 사운드를편집하는 안정주의 작업 전반에서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덕에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은원활해지고,관객들은 그의이야기에 귀기울이며 공감하게된다.(신승오,페리지 갤러리디렉터)

Jungju An (Seoul) www.anjungju.com

Jungju An majored in East Asia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Media Art at the School of Communications at Yonsei University. An's work subverts regimented structures like standards and systems that control the individual. An's solo exhibitions include Chain Letter (Doosan Gallery, Seoul, 2015), Ten single shots (Gallery Zandari, Seoul, 2014), and Honest Person (Project Space Sarubia, Seoul, 2012), and has participated in many group exhibitions including Fukuoka Asia Triennale (Fukuoka Asian Art Museum, Fukuoka,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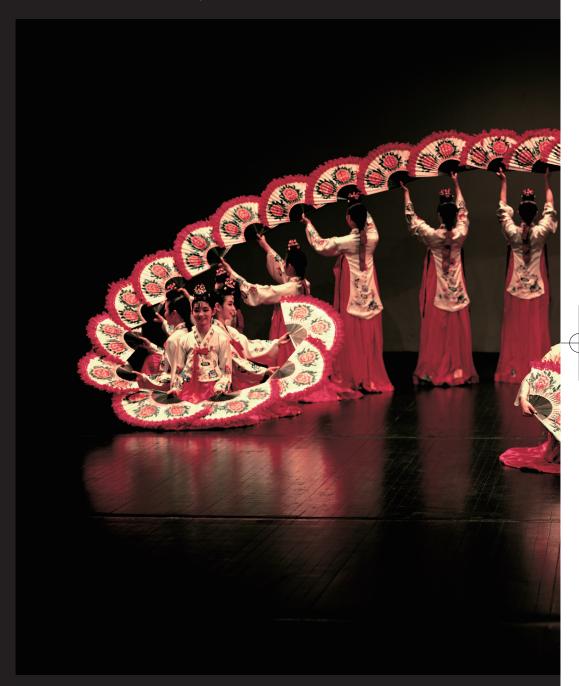
Jungju An, National Ceremony, 2012. Single-channel video, 3 min 50 sec.

An's work questions the social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s blindly follow fixed ideas and thoughts taught unconsciously through conventional education. The basic moral knowledge evervone knows are ideal and lofty propositions that are removed from reality and cannot be kept in the actual society. However, even though we proclaim such infeasible ideas to others with ease, the inability to abide by them is treated with insignificance under a collective silent agreement. And such incidences take root in our life in such a familiar but structured way that they often go unnoticed. An collects such incidences from our lives, and represents them through his own way of editing.

An's work does not have a biased opinion or tendency. As an individual living in this society, he looks around him through a calm and quiet demeanor. Therefore, his work is not provocative nor is it charged with a strong tone of argument. Rather, his work is like a storyteller who chatters stories, leaving the viewer with a comforting smile rather than a burdening subjec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narratives in his work are by any means insubstantial. An creates video and sound edited to his own rhythm, like a storyteller who draws in people with words. And such characteristic of his work invites the audience to listen, communicate and connect. (Seung-oh Shin, Director of Perige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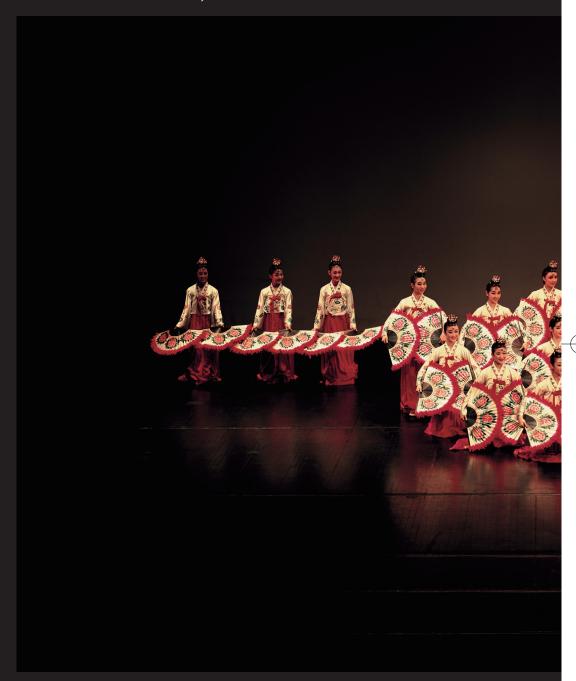
곽윤주, 의지의 승리_1, 2006. 람다 프린트, 123 x 200 cm. Photo © 곽윤주.



Yunjoo Kwak, *Triumph of the Will_1*, 2006. Lambda print, 123 x 200 cm. Photo © Yunjoo Kw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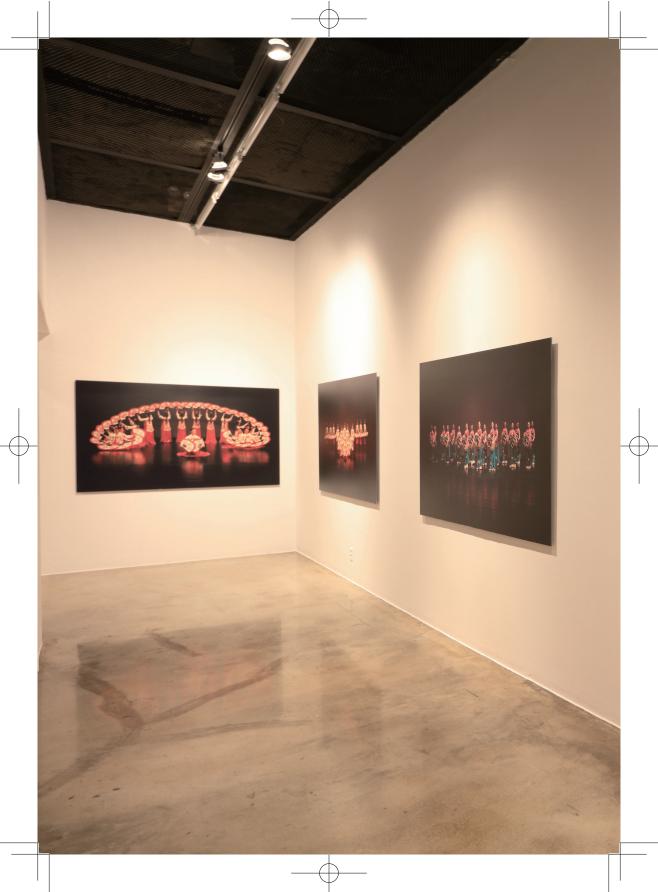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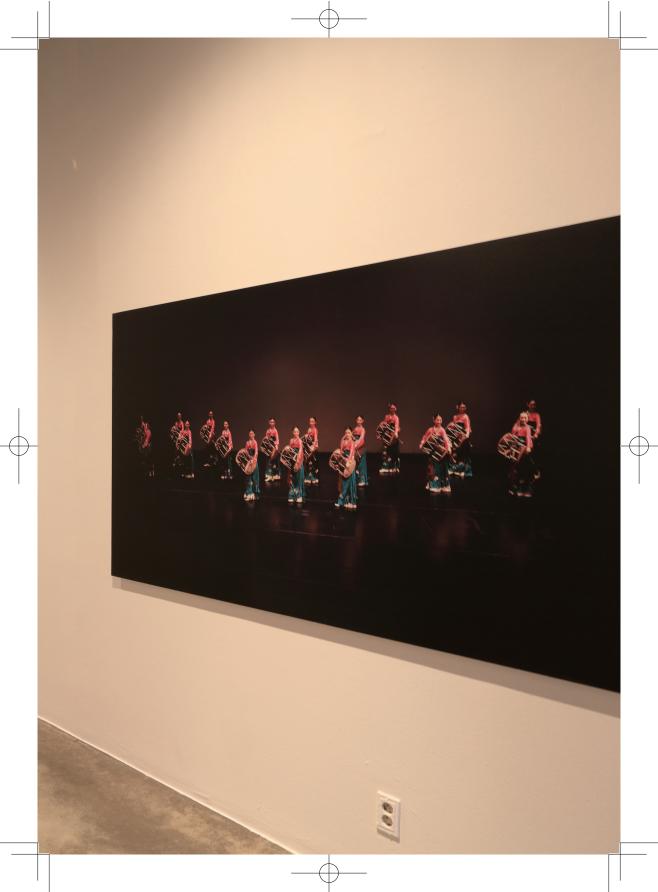
곽윤주, 의지의 승리_2, 2006. 람다 프린트, 123 x 200 cm. Photo © 곽윤주.



Yunjoo Kwak, *Triumph of the Will_*2, 2006. Lambda print, 123 x 200 cm. Photo © Yunjoo Kwak.







곽윤주 (암스테르담) yunjookwak.

wordpress.com

곽윤주는 근대성의 트라우마, 누락된 역사들, 타자성, 기구함 등을 주제로 다루어왔으며, 갤러리 175, 브레인팩토리, 서울시립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영은미술관, 프랑스 문화원 등에서 사진과 사진 설치를 위주로 한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2009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면서 장기 리서치 프로젝트에 기반한 비디오 에세이, 렉처 퍼포먼스, 아카이브, 출판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국 런던의 오톨리스 그룹 (The Otolith Collective)의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스티뒴 헤네랄레 암스테르담(Studium Generale Amsterdam), 리트펠트 아카데미(Rietveld Academy), 퓐트 WG (Punt WG), 레이캬비크

사진미술관(Reykjavik <u>Museum</u> of Photography),

주영국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UK) 등의

기관에서 열린 전시와 스크리닝에

<다우니 카페 > (2013), <플랜 반 훌 연대기 > (2014) 등이 있다.

참여했다. 주요 영상작업으로

곽윤주, 의지의 승리(연작), 2006. 람다 프린트, 123 x 200 cm.

부채춤은 북한에서는 최승희(1911 - 1969)가 창작한 것으로, 남한에서는 그의 제자 김백봉(1927 -)이 처음 창작해 최승희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1954년 서울 시공관 (현 국립극장)에서 김백봉에 의해 독무로서 처음 시연되었으며, 1968년 박정희 정권 시절 멕시코 올림픽 출전을 계기로 군무로 변형되면서 지금까지 '전통춤'으로 인식되어왔다. 국가성을 대변하는 다양한 국제적 행사에 빠지지 않으면서, 예술학교의 기초 교육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까지, 한국 전쟁 후 국가의 성공적 재건 신화를 계승하는 이 근대성의 그로테스크함을 어린 무용수들의 인상에서 보았다. (곽윤주)

《의지의 승리》에서 '의지'의 주체는 중의적이다. 완벽을 향한 수련으로 결국 찬란한 무대 위에 올라선 어린 무용수의 설익은 의지일수도 있지만, 십수명의 한복 차림 무용수를 장기판 위에 말을 놓듯 지휘 통제하는 연출자(혹은 촬영자)의 의지일 수도 있겠다. (…중략…) 《의지의 승리》라는 제목과 그것의 원작인 1935년 기록영화 《의지의 승리》는 가까스로 교차점을 공유한다.

전운이 감돌던 당시 유럽에서 특정 정치집단과 정치지도자의 의지를 관철시킨 이 영화는 오와 열을 무섭게 통일시킨 사열 장면을 반복 등장시킨다. 비이성적 국가주의의 최면으로 개체이길 포기하고 군중으로 수렴하는 인류의 모습을 담는다. 따라서 사열 스펙터클은 조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인도주의적으로는 불완전하다. 아니 그보다 그로테스크하다. 마찬가지로 곽윤주의 ⟨의지의 승리⟩가 재현하는 십여 명의 무용수는 팔의 각도와 시선 처리를 통일시키면서 단체사진 고유의 경직성을 유지한다. (반이정. 번역: 이정연)

Yunjoo Kwak (Amsterdam) yunjookwak. wordpress.com

Kwak's work mainly focuses on modern traumas, unrecognized histories, otherness, and misfortunes. She has shown her work in numerous photography and photographic installation exhibitions including Gallery 175, Brain Factory, Seoul Museum of Art,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French Cultural Center, Seoul, Korea.

Since moving to Amsterdam in 2009, Kwak has engaged in video essays, lecture performances, archiving and publications based on her longterm research project. She was an artist-inresidence at The Otolith Collective, London, UK, and has participated in various exhibitions and screenings at Studium Generale Amsterdam, Rietveld Academy (curated by Ruth Noack), Punt WG (curated by Clare Butcher), Reykjavik Museum of Photography, and the Korean Cultural Center, UK. Her major video works include Café Downey's (2013) and A Chronicle of Plan van Gool (2014).

Yunjoo Kwak, *Triumph*of the Will Series, 2006. Lambda print, 123 x 200 cm.

The Korean fan dance is known to be created by North Korean dancer Choi Seung-hee (1911-1969) in Pyongyang; whereas, Choi's student Kim Baekbong (1927-) claims that she had created the dance first and demonstrated it to her teacher before she left Pyongyang during the Korean War. Kim premiered the fan dance at the presentday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1954 as a solo dance. It was transformed into a group dance at the 1968 Summer Olympics in Mexico City during the times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Since then, it is widely conceived as a 'traditional dance' of Korea.

From proclaiming statehood in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and being institutionalized as a foundation course in art schools in Korea, the grotesqueness of modernity which passes down the myth of successful reconstruction of Korea after Korean War is reflected in the expressions of the young dancers. (Yunjoo Kw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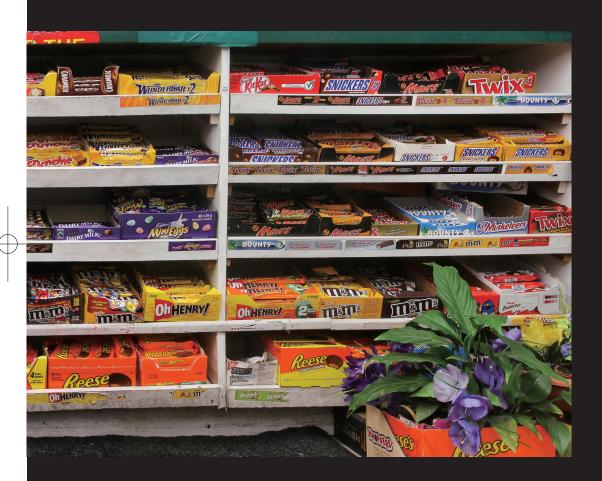
In Triumph of the Will, there is no specific subject of the 'will.' It can be a young girl who stands on stage as a training to be a perfect dancer. Or, it also can be the director (or photographer) who controls and directs dancers in traditional costume as he moves checkers on the chessboard.

Here, we can find the crossing point between the title of the work and the original documentary film, Triumph des Willens (1935). (...omitted...) At the time when the war clouds hung heavy over Europe, the film carries the will of political leaders and their party. Repeatedly showing the troops lined up in perfect four rows, the film shows the mankind who become the part of general public giving up one's own individuality, hypnotized by the irrational nationalism. Therefore, the four rows are perfect in forms, but imperfect or even grotesque from humanistic point of view. Like this, the angles of arm positioning and the direction of gaze of dancers in Yunjoo Kwak's *Triumph* of the Will are unified. The work has the stiffness of the group photo. (E Jung Ban. Translation: J. yeo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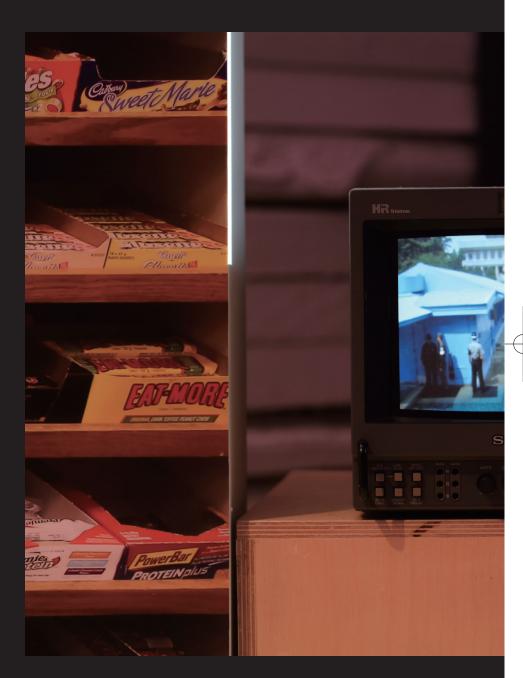
다이아나 유,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대(연작) 중 Hi Ya, 2016. 디지털 프린트, 149.84 x 60.96 cm. © 다이아나 유.



Diana Yoo, Convenience Store Counters Series - Hi Ya, 2016. Digital colour print on matte vinyl, 149.84 x 60.96 cm. © Diana 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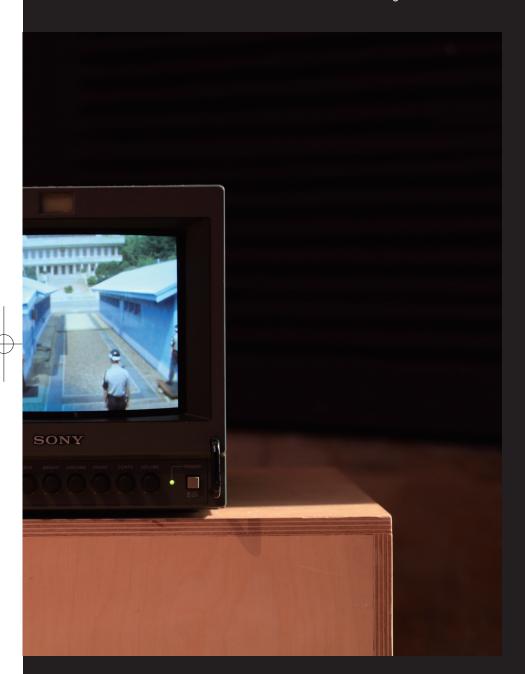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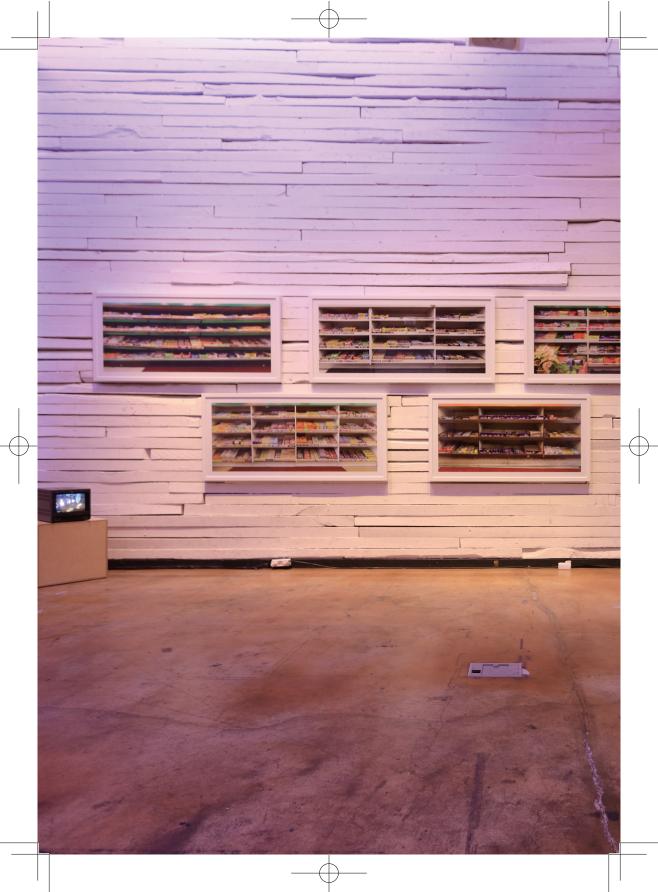
다이아나 유, 컨비니언스 스토어 (부분), 2014-2016. 멀티미디어 설치. © 양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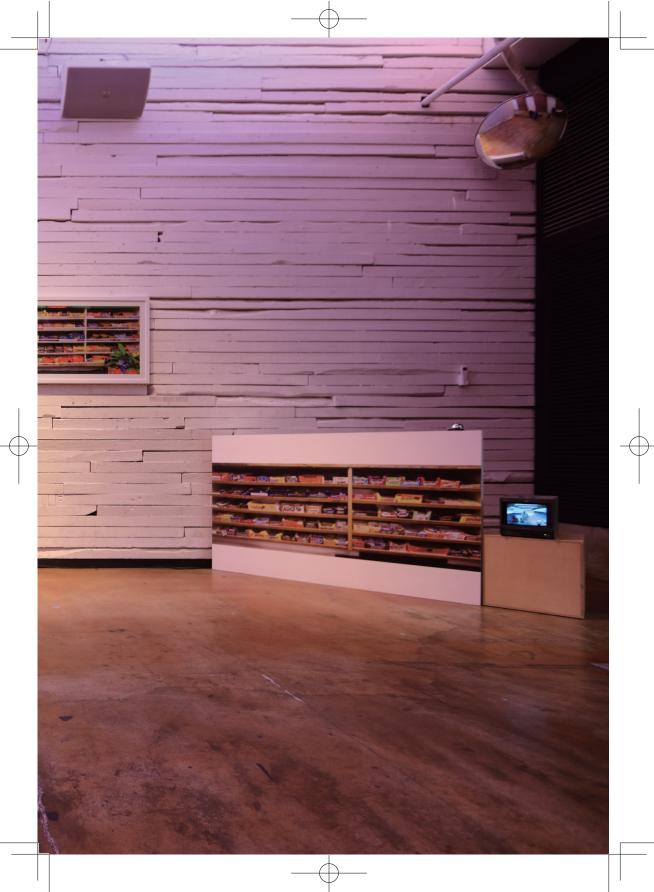


Diana Yoo, From a Convenience Store (Detail), 2014-2016.

Multimedia Installation. © Yang Chulmo.







다이아나 유 (런던, 캐나다) 다이아나 유는 사진, 설치, 뉴미디어, 퍼포먼스 작가이다. 캐나다의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 대학원과 요크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한 작가는 1, 2세대 한국계 캐나다 이민자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이 화두를 통해 이민 2세대인 본인의 자전적인 기억,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재, 그리고 장소의 이중성 등에 대해 고민한다. 다이아나 유는 코플러 갤러리(토론토), 존 B. 에어드 갤러리(토론토), 아트 랩 갤러리(런던), 피터버러 아트 갤러리(피터버러), 컨택 사진 페스티벌(토론트) 등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전시에 참여했다.

다이아나 유, 컨비니언스 스토어, 2014-2016. 멀티미디어 설치 다이아나 유,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대(연작), 2016. 디지털 컬러 프린트 다이아나 유, 경계선 여행객, 2014. 단채널 비디오, 3 min 54 sec.

한국계 캐나다 이민 2세인 다이아나 유는 설치 작품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사진 연작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많은 한국계 북미 이주자들이 그러하듯 작가의 가족은 캐나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친척이 있던 작가에게 있어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자신이 성장한 캐나다의 편의점에서 DMZ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작가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재현하고, 그 공간에 DMZ 영상을 함께 보여준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대→는 한국계 이민자들의 편의점에서 찍은 판매대 사진 연작이다. 북미에서 개성없이 대량생산된 값싼 초콜렛들만 가득한 판매대 사진들은, 물질적 풍요로 대변되는 북미 사회에 동화되려 애쓰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준다. 본 전시에 선보이는 작가의 작업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한국계 캐네디언이 전쟁에 대해, 그리고 이주민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기억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독백이 흐른다. 작가는 개인과 집단의 기억이 교차하고 한반도와 캐나다의 장소가 중첩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권성연)

Diana Yoo (London, Canada)

Diana Yoo is a photography, installation, new media, and performance artist. She received her Masters of Fine Art from Western University and her Bachelors of Fine Art (Honours) from York University. Yoo's art practice investigates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Canadian diaspora identity to contemplate autobiographical memory, the nostalgic present and the duality of place. Her work has been exhibited throughout Ontario at Koffler Gallery (Toronto), John B. Aird Gallery (Toronto), Art Lab Gallery (London), The Art Gallery of Peterborough (Peterborough), and **CONTACT Photography** Festival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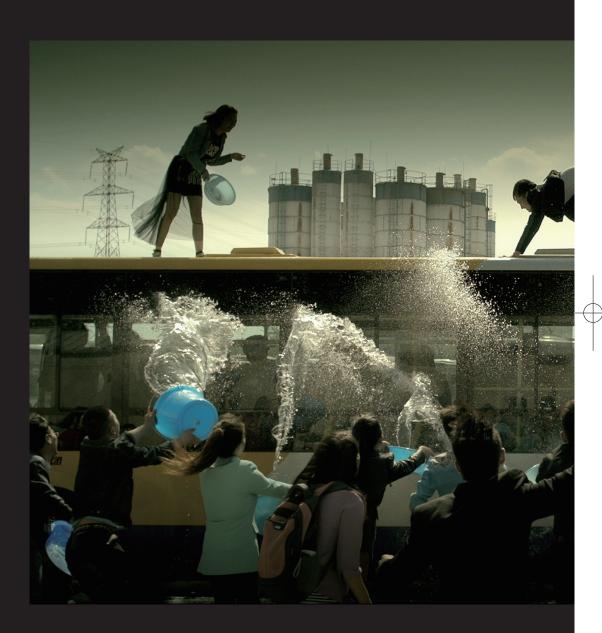
Diana Yoo, From a
Convenience Store,
2014-2016. Multimedia
Installation
Diana Yoo, Convenience
Store Counters Series,
2016. Digital c-print.
Diana Yoo, Tourists in
the Division, 2014.
Single-channel video,
3 min 54 sec.

Diana Yoo explores her identity as a Korean-Canadian through installation From a Convenience Store and photographic series Convenience Store Counters. Like many other Korean immigrants in North America, Yoo's parents owned and worked at convenience stores. As she has relatives in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er search for the root starts at the Demilitarized Zone, although her physical presence is at a Canadian convenience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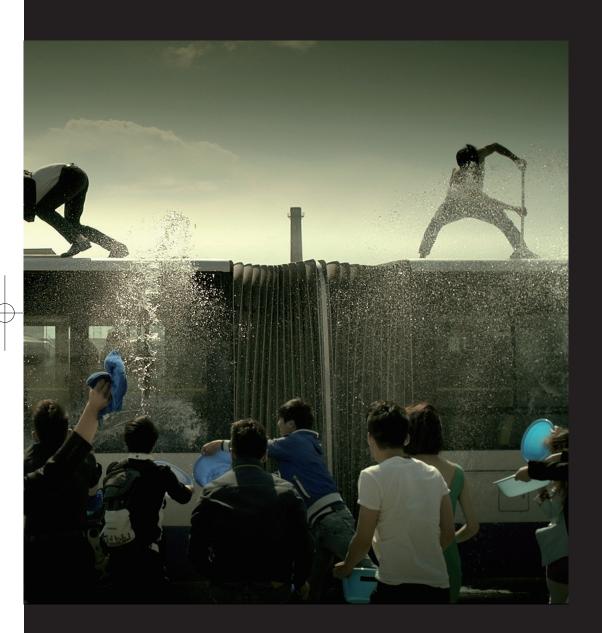
In the installation, she juxtaposes props and a photograph of a convenience counter run by a Korean-Canadian and two films of the DMZ together. The photographic series Convenience Stores Counters represent the life of Korean-Canadians, who struggle to settle in Canada by assimilating themselves to the socalled North American character-that is. the abundance of (inexpensive) mass-produced goods.

In her works, no single individual person is visible. Only a sedate voice of a veteran of the Korean War speaks about his memories of the War and life of running a convenience store in Canada. She attempts to bring the spaces of Korean and Canadian together and merge the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ies, and in doing so, creates a hybrid space and time. (Vicki Sung-yeon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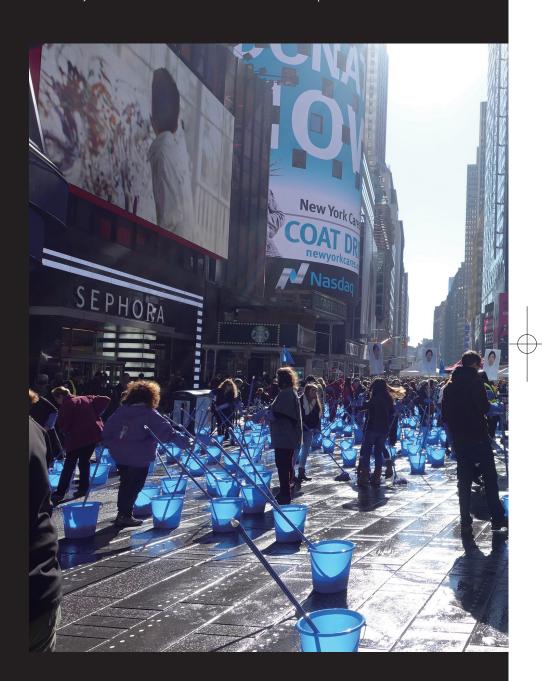
폴릿쉬어폼, 같은 좋은 행동을 하라 (베이징), 2014. 단채널 비디오, 8 min. © the artists and BANK | MAP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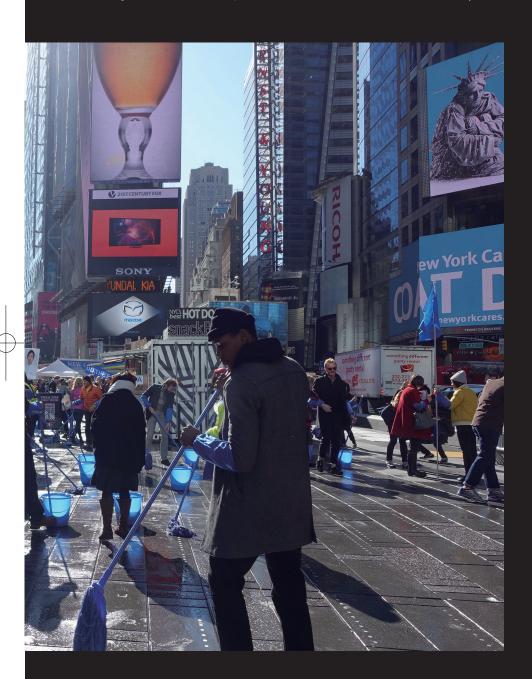
Polit-Sheer-Form, Do the Same Good Deed (Beijing), 2014. Single-channel video, 8 min. \circ the artists and BANK | MAP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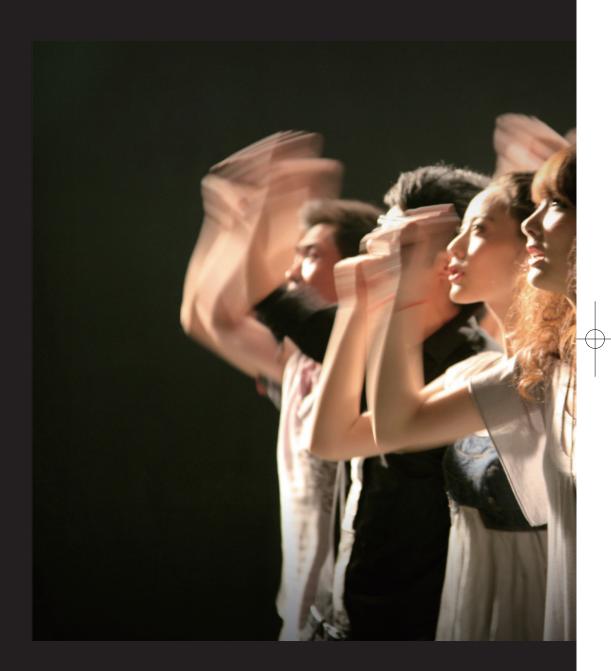
폴릿쉬어폼, 같은 좋은 행동을 하라 (타임 스퀘어, 뉴욕), 2014. 단채널 비디오, 4 min 41 sec. © the artists and BANK | MAP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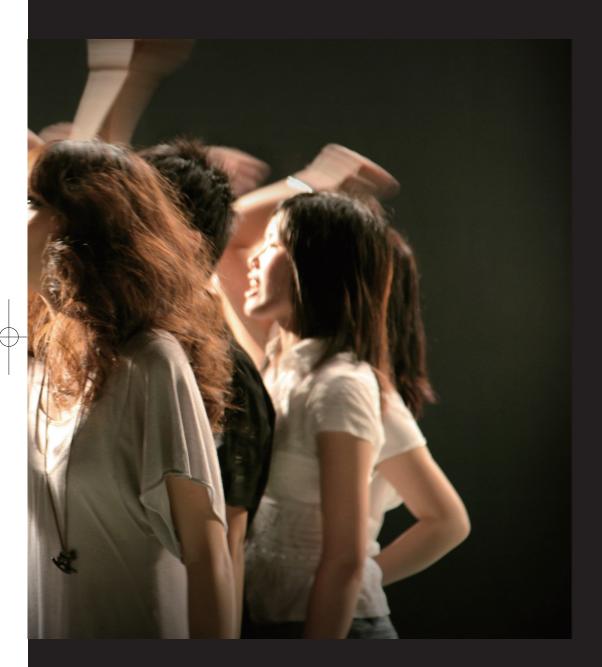
Polit-Sheer-Form, *Do the Same Good Deed (Time Square, New York)*, 2014. Single-channel video, 4 min 41 sec. © the artists and BANK | MAP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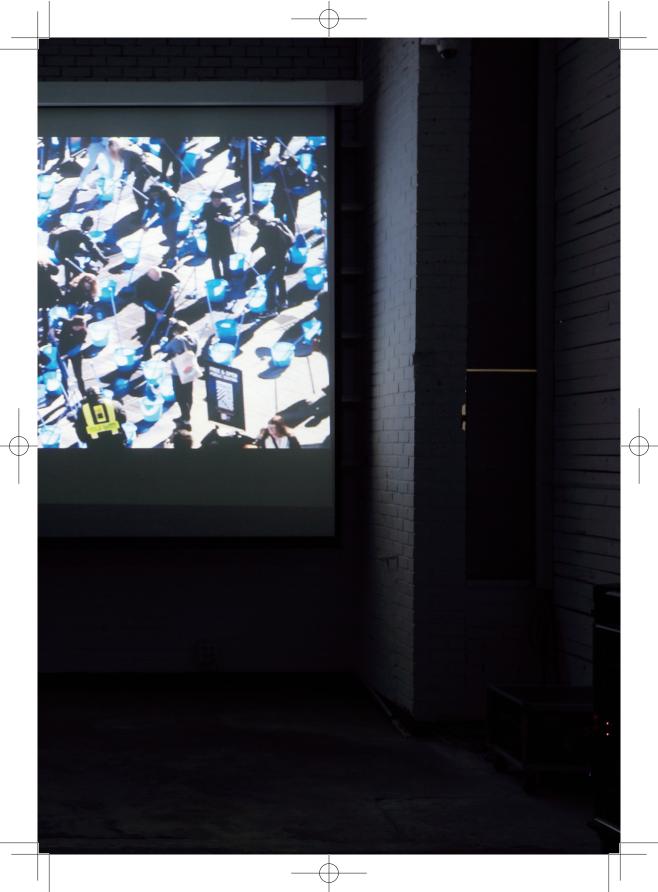
폴릿쉬어폼, 두부, 쿵후, 2009. 단채널 비디오, 3 min 5 sec. © the artists and BANK | MAPSOCIETY.



Polit-Sheer-Form, Tofu, Kungfu, 2014. Single-channel video, 3 min 5 sec. © the artists and BANK | MAPSOCIETY.







폴릿쉬어폼 (베이징)

폴릿쉬어폼은 1960년대생 아티스트 홍하오 (Hong Hao), 시아오위(Xiao Yu), 송동(Song Dong), 리우지안화(Liu Jianhua)와 큐레이터/비평가 렁린(Leng Lin)이 2005년 베이징에서 설립한 아티스트-큐레이터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유년기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겪은 세대로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마오쩌둥 시절 이후의 세대에 남긴 잔재에 대해 사유한다. 유년시절 집단주의를 강조했던 공산주의를 겪으며 성장한 작가들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구시대 이데올로기와 현재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소비주의와 개인주의가 중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한다.

하라 (베이징), 2014. 단채널 비디오, 8 min. 폴릿쉬어폼, 같은 좋은 행동을 하라 (타임 스퀘어, 뉴욕), 2014. 단채널 비디오, 4 min 41 sec. 폴릿쉬어폼, 두부, 쿵후, 2009. 단채널 비디오, 3 min 5 sec.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밀집한 베이징의 베이징 코뮨(Beijing Commune)에서 작품활동을 해온 폴릿쉬어폼의 최근 작품들은 현대의 이상적인 집단에 대해 고찰한다. ∢같은 좋은 행동을 하라(베이징) , (2014)는 베이징의 공동체적 생활의 상징인 전차를 신나는 표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물청소하는 패셔너블한 차림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슬로모션으로 담았다. ∢같은 좋은 행동을 하라(타임 스퀘어, 뉴욕) > (2014)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심장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푸른색 청소도구를 나눠주며 시민참여를 유도한 퍼포먼스를 감각적으로 담은 영상이다.

폴릿쉬어폼, 같은 좋은 행동을

〈두부, 쿵후〉(2009)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모여 마치 데모하듯 "Tofu! Kungfu! Polit-Sheer-Form!"을 외친다.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 개인들이 전통 식생활과 스포츠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음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었다. (권성연)

Polit-Sheer-Form (Bei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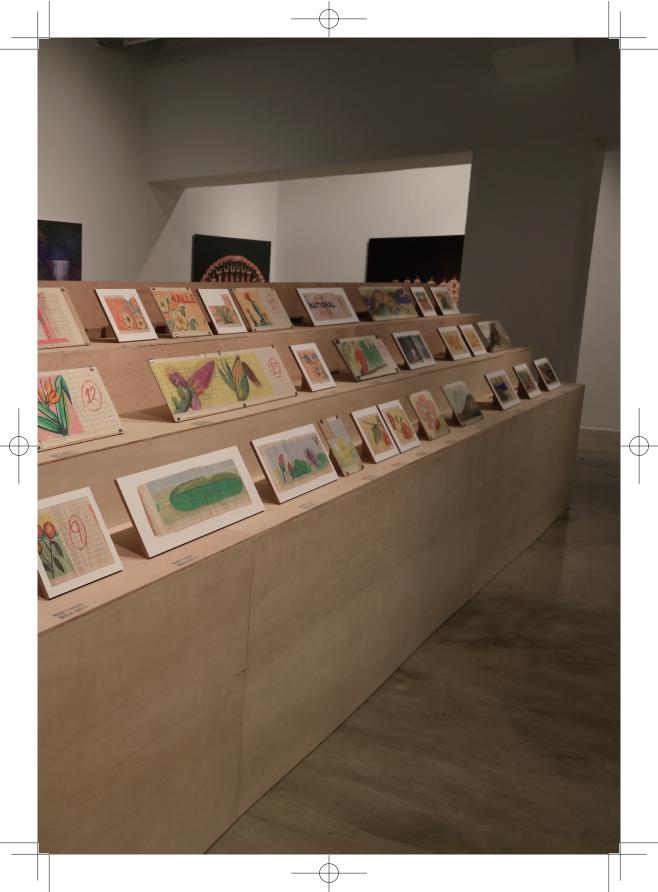
Polit-Sheer-Form (PSF) is a China based art collective founded in 2005 by artists Hong Hao, Xiao Yu, Song Dong, Liu Jianhua, and curator/critic Leng Lin. For a society that has moved far away from communal ideals, PSF imagines a new Socialism based on the expansive possibilities of shared experiences. The group's multi-disciplinary projects address the idea of 'we' in a 'me' world: and their activities of talking, traveling, eating, reading, and playing together form the basis of their attempt to transform political, cultural and spiritual life for 21st century mankind. Through their work they articulate politics as pure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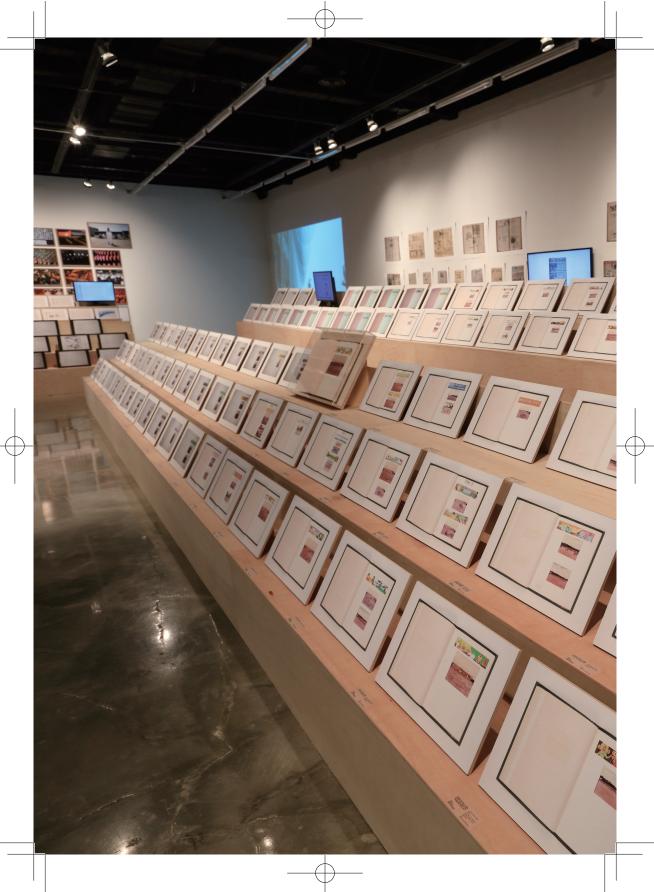
Polit-Sheer-Form,
Do the Same Good Deed
(Beijing), 2014.
Single-channel video,
8 min.
Polit-Sheer-Form, Do
the Same Good Deed (Time
Square, New York),
2014. Single-channel
video, 4 min 41 sec.
Polit-Sheer-Form, Tofu,
Kungfu, 2014. Singlechannel video,
3 min 5 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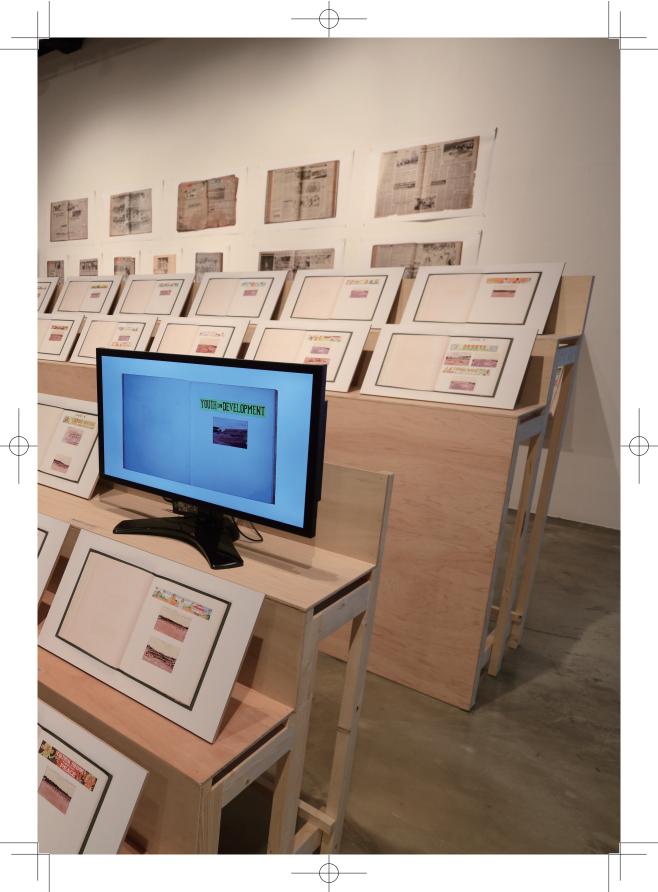
The video installation, Do the Same Good Deed (Beijing), features fashionably-clad youth with bright blue buckets of water against the backdrop of a bus, a symbol of a collective society, on the streets of Beijing. The slowmotion, high-definition post-production video serves to accentuate the joyful play of people and the elegance of splashing water, accompanied by a rap rendition of the PSF slogan. Similarly in Do the Same Good Deed (Times Square, New York), they provided the citizens of the New York City with a platform for a collective participatory work, which is cleaning the street of the heart of the capitalism and individualism facilitated by the artists from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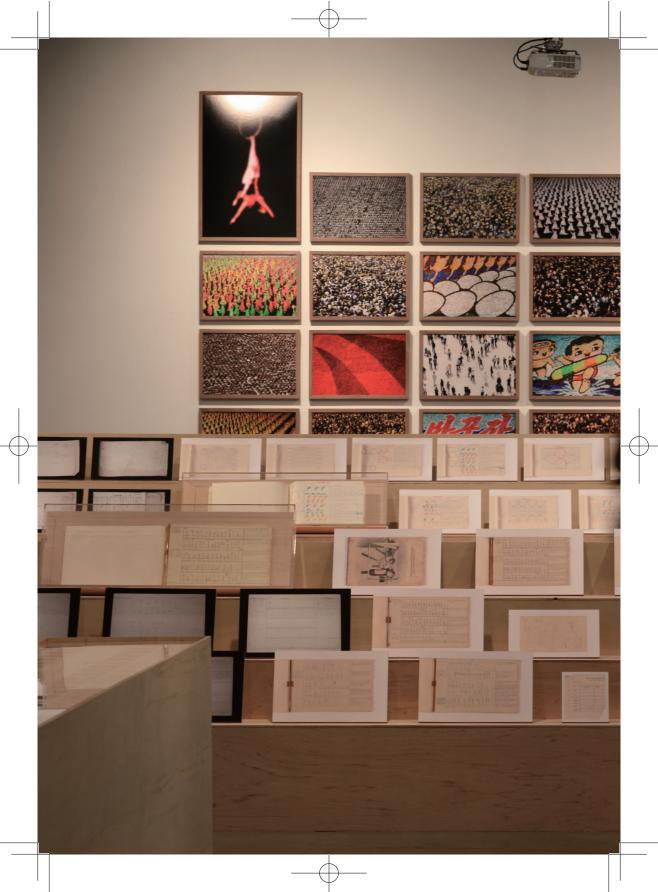
Tofu, Kungfu (2014)
is a humorous work that
explores the Chinese
identity by food and
culture.(Vicki Sung-yeon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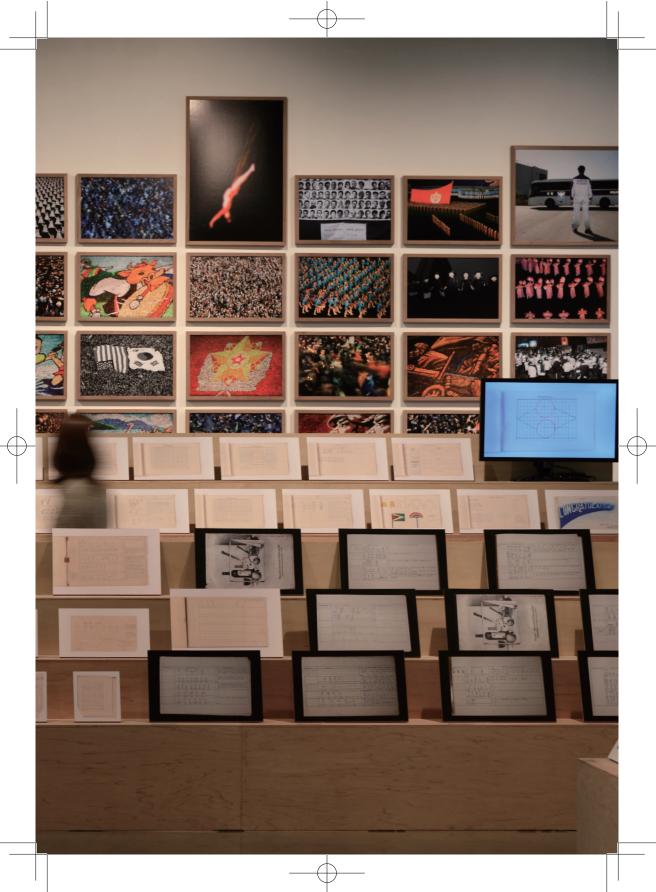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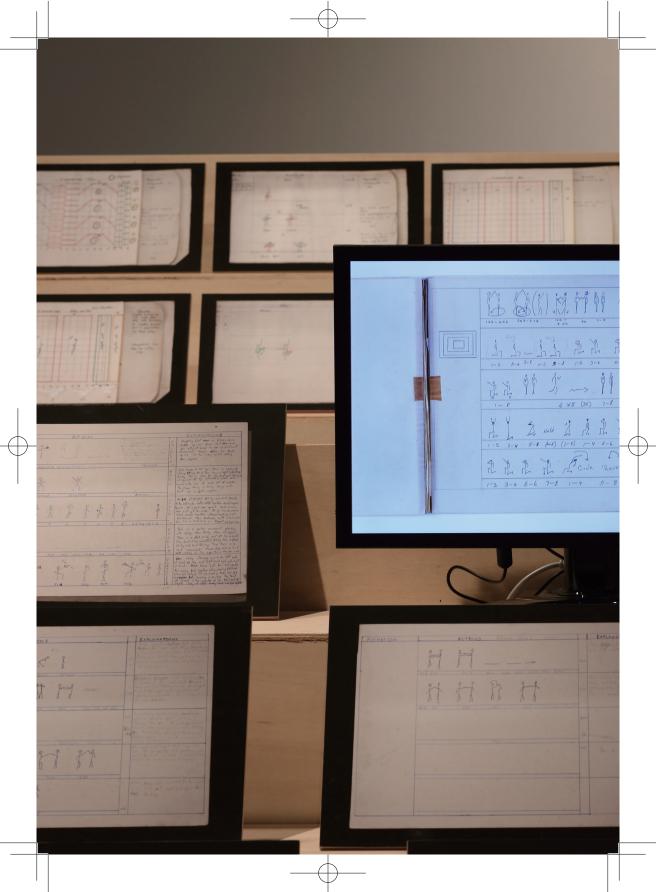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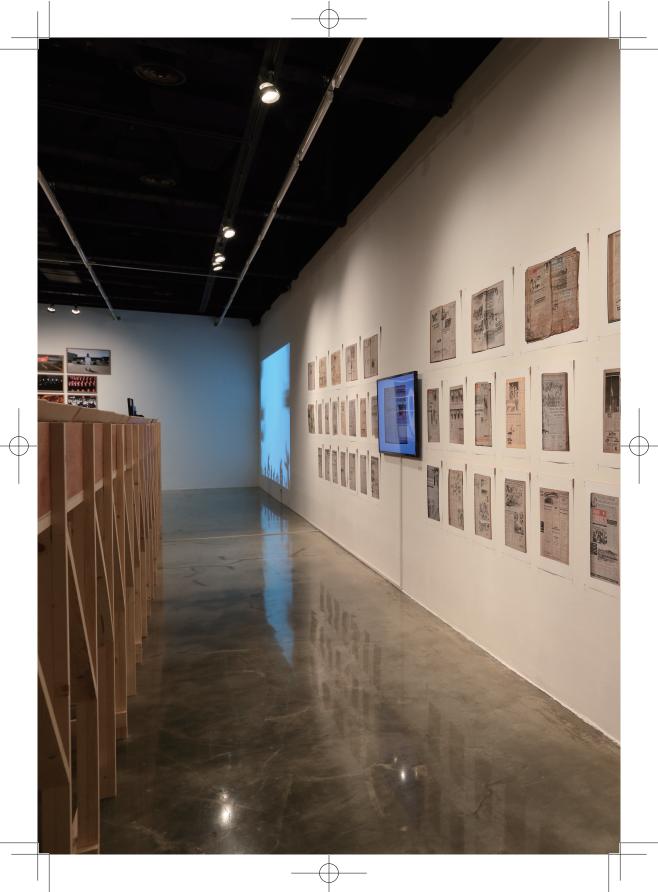














전시연계프로그램

1. 큐레이터 투어 (왜 지금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인가?)

아르코미술관 1전시실 2016년 10월 26일(수) 19:00~19:30 고원석 (큐레이터) 권성연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2. 라운드 테이블 〈Shake That Mass Games! 표〉

아르코미술관 3층 2016년 11월 4일(금) 17:00~18:30 이영재 (영화연구자/비교문학 연구자) 곽영빈 (미술/영화평론가) 홍지석 (미술사학자)

3.강연 ‹대중독재 : 포섭하는 권력과 탈주하는 개인›

아르코미술관 3층 2016년 11월 9일(수) 17:00~18:30 임지현 (역사학자)

Exhibition Related Programmes

1. Curatorial Tour ‹Why the Guyanese Mass Games Now?›

Arko Art Center Gallery 1 Wednesday October 26, 2016, 19:00-19:30 Wonseok Koh (curator) Vicki Sung-yeon Kwon (art historian/curator)

2. Roundtable < Shake That Mass Games! II>

Arko Art Center 3rd Floor
Friday November 4, 2016, 17:00-18:30
Young-jae Yi (researcher of film studies and comparative literature)
Yung-Bin Kwak (art and film critic)
Ji Suk Hong (art historian)

3. Lecture (Mass Dictatorship: Embracing Power and Escaping Individuals)

Arko Art Center 3rd Floor Wednesday November 9, 2016, 17:00-18:30 Jie-Hyun Lim (historian)



1. 큐레이터 투어 (왜 지금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인가?)

1. Curatorial Tour (Why the Guyanese Mass Games Now?)



2. 라운드 테이블 〈Shake That Mass Games! II ›

2. Roundtable < Shake That Mass Games! II >



3.강연〈대중독재: 포섭하는 권력과 탈주하는 개인〉

3. Lecture (Mass Dictatorship: Embracing Power and Escaping Individuals)

군중과 개인: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

2016. 10. 21 - 11. 27

아르코미술관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선정전시

기획: 고원석, 권성연 전시진행: 이현인 행정·출판: 유한나 홍보·프로그램: 박이현

전시 디자인 : Studio COM

(한주원, 김세중)

전시장 조성 및 설치 : 이수성(buup)

그래픽 디자인 : 신덕호 인쇄 : 삼원프린팅 번역 : 권성연, 황선혜

교정·교열: 유한나, Suzanne Needs

사진편집 : 김경호, 양철모

(바라스튜디오), Heather Leier 디지타이징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이미지 출력/전시전경

사진촬영 : 양철모(바라스튜디오)

© 2016 <군중과 개인: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 도록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전시제작진에 있습니다. 도판과 글을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ass and Individual:

The Archive of the Guyanese Mass Games

October 21 to November 27, 2016

ARKO ART CENTER

The exhibition garnered the 2016 Arts Council Korea exhibition grant.

Co-Curator/Director: Wonseok Koh and Vicki Sung-yeon Kwon

Exhibition project coordinator: Lee Hyunin 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Hanna L. Yoo

Promotion and programmes: Ian Bahc

Exhibition Space Design: Studio COM

(Joowon Han · Sejung Kim)

Exhibition Installation: Soosung Lee (buup)

Graphic Design: Dokho Shin Printing: Samwon Printing

Translation: Vicki Sung-yeon Kwon, Sunhye Hwang Text Proofreading: Hanna Yoo, Suzanne Needs

Image Editing: Kyoungho Kim, Heather Leier,

Yang Chulmo (Barastudio)

Digitizing Support: Asia Culture Center

Archive reproduction/photograph of the installation

views: Yang Chulmo (Barastudio)

© 2016. Exhibition Mass and Individual: The Archive of the Guyanese Mass Games. All rights reserved.

www.massandindividual.net facebook.com/massandindividual